

정책연구 2009-04

고졸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김유선 · 권혜자 · 김종진 · 이명규

목 차

요 약	i
제1장 머리말	1
제2장 주요 고용지표의 연도별 추이와 국제비교	5
1. 실업률과 고용률	5
2. 취업자와 실업자 구성	10
3. 비경제활동인구 구성	12
4. 유희인력	16
5. 국제비교	17
6. 소결	20
제3장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	23
1. 기술통계	23
2. 실증분석	29
3. 소결	35
제4장 취업과 이직실태	37
1. 개괄	37
2. 직업교육(훈련)과 직장체험	38
3. 취업경험과 취업횟수	44
4. 구직방법과 기간	46
5. 취업경험자의 첫 일자리	48
6. 최종학교 전공 불일치	54
7. 이직후 미취업자	55

8. 취업 미경험자	57
9. 소결	59
제5장 고용의 질	63
1. 노동력 구성	63
2. 고용안정성	68
3. 임금	71
4. 노동조건	76
5. 자발적 취업 여부	82
6. 소결	82
제6장 고졸 청년 구직자의 사무관련직 선호 경향과 임금프리미엄	86
1. 머리말	86
2. 고졸 청년층의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	88
3. 고졸 청년층의 사무관련직 선호 경향	91
4. 고졸 청년층의 사무관련직으로의 직업 이동	99
5. 취업 전후의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의 결정요인	103
6. 소결	109
제7장 맺음말	112
참고문헌	122
부 표	124

표 목 차

<표 1- 1> 학력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2
<표 2- 1> 성별 · 연령별 · 학력별 취업자 추이	10
<표 2- 2> 성별 · 연령별 · 학력별 취업자 비중 추이	11
<표 2- 3> 성별 · 연령별 · 학력별 실업자 추이	11
<표 2- 4> 성별 · 연령별 · 학력별 실업자 비중 추이	12
<표 2- 5> 성별 · 연령별 ·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13
<표 2- 6> 성별 · 연령별 ·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추이	13
<표 2- 7> 성별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15
<표 2- 8> 성별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추이	16
<표 2- 9> 성별 · 활동상태별 유희인력과 유희화율	17
<표 3- 1> 주요 고용지표	25
<표 3- 2> 비취업자 활동상태	28
<표 3- 3> 취업자 결정요인 로짓 분석 결과	29
<표 3- 4> 학력별 취업자 결정요인 로짓 분석 결과	31
<표 3- 5>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 다항로짓 분석 결과	32
<표 3- 6>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 다항로짓 분석 결과	32
<표 3- 7>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 로짓 분석 결과	33
<표 3- 8> 비취업자의 활동상태 결정요인 다항로짓 분석 결과	34
<표 3- 9> 비취업자의 활동상태 결정요인 다항로짓 분석 결과	35
<표 4- 1>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직업훈련경험과 훈련기관(청년)	39
<표 4- 2>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직장체험 여부와 주된 형태 (청년)	40

<표 4-3>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직장체험 기간(청년)	41
<표 4-4> 직업교육과 직장체험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로짓 분석 결과	42
<표 4-5> 직업교육기관과 직장체험 형태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43
<표 4-6>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취업경험과 취업횟수	44
<표 4-7> 취업경험횟수 결정요인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45
<표 4-8>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구직방법·경로	46
<표 4-9>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첫 일자리 구직기간	47
<표 4-10>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구직기간 분포	48
<표 4-11>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첫 일자리 고용형태	49
<표 4-12>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첫 일자리 산업	50
<표 4-13>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첫 일자리 산업	51
<표 4-14>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첫 일자리 근속기간	52
<표 4-15>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근속기간 분포	52
<표 4-16>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첫 일자리 이직사유	53
<표 4-16>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첫 일자리 이직사유	54
<표 4-17>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최종학교 전공 불일치 여부	55
<표 4-18>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최근 이직후 미취업기간	56
<표 4-19>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미취업기간 동안 활동	57
<표 4-20>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졸업·중퇴연도	58
<표 4-21>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활동상태	59
<표 5-1> 학력별 성·연령 구성	64
<표 5-2> 학력별 성·혼인과 가구주 관계 구성	65
<표 5-3> 학력별 산업 분포	66
<표 5-4> 학력별 직업 분포	66
<표 5-5> 학력별 종사자규모 분포	67
<표 5-6> 학력별 노조 및 조합원 분포	68
<표 5-7> 학력별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 분포	69

그림 목차

[그림 2- 1]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15세 이상)	6
[그림 2- 2] 성별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	7
[그림 2- 3] 연령별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	8
[그림 2- 4] 학력별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	9
[그림 2- 5] 성별·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14
[그림 2- 6] 실업률과 고용률 국제비교	18
[그림 2- 7] OECD 국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 비교	19
[그림 3- 1] 주요 고용지표	24
[그림 3- 2] 비취업자 활동상태	27
[그림 4- 1] 졸업·중퇴자의 취업 및 이직실태 개괄	38
[그림 6- 1] 고졸의 연령계층별 구직 현황	89
[그림 6- 2] 산업별 신규 구인인원의 특징	90
[그림 6- 3] 고졸 청년층의 직업별 신규 구인인원과 신규 구직자 수	91
[그림 6- 4] 고졸 청년층의 과거직업과 희망직업	93
[그림 6- 5] 고졸 청년층의 성별 과거직업의 차이	95
[그림 6- 6] 고졸 청년층의 과거직업의 차이(남성)	96
[그림 6- 7] 고졸 청년층의 과거직업의 차이(여성)	96
[그림 6- 8] 남성 청년층의 학력별 희망직업의 차이	98
[그림 6- 9] 여성 청년층의 학력별 희망직업	98
[그림 6-10] 고졸의 직업별 과거직업 변경 비율과 희망직업 변경 비율	100

요약

이 글에서는 고졸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 원인과 해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청년층 노동시장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심층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고용지표의 연도별 추이와 국제비교

제2장에서는 통계청이 운영하는 KOSIS 자료를 사용해서 주요 고용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 OECD의 Employment Outlook 자료를 사용해서 OECD에 가입한 30개 회원국의 고용지표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과 저학력층에서 고용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2008년 41.6%로 3.5%p 떨어졌고, 중졸이하 고용률은 47.4%에서 41.7%로 5.7%p 뚝 떨어졌다. 고졸자는 62.9%에서 62.3%로 0.6%p 감소한 데 비해, 대졸자는 75.2%에서 75.3%로 0.1%p 증가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실업률이 증가한 것도 아니다. 청년 실업률은 2004년 8.3%에서 2008년 7.2%로 1.1%p 감소했다. 중졸이하 실업률은 2.5%에서 2.2%로 0.3%p 감소했고, 고졸 실업률도 4.5%에서 3.8%로 0.7%p 감소했다. 이처럼 청년층과 저학력층에서 실업률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률이 뚝 떨어진 것은, 적절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둘째,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은 1980년 38.2%에서 2008년 41.9%로 매우 완만하게 증가했다. 청년층은 33.2%에서 17.3%로 크게 감소했고, 장년층은 56.0%에서 64.4%, 고령층은 10.8%에서 18.3%로 증가했다. 중졸이하는 71.5%에서 22.3%로 49.2%p나 줄었고, 대졸이상은 6.7%에서 36.8%로 30.1%p 증가했다. 여성화 속도는 매우 더딘 반면, 고령화와 고학력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전체 실업자 중 여성 비중은 1980년 25.4%에서 2008년 34.5%로 증가했다. 청년층은 62.7%에서 41.0%로 감소한 데 비해, 장년층은 34.6%에서 50.5%로 증가하고, 고령층도 2.7%에서 8.8%로 증가했다. '중졸이하'는 1980년 51.1%에서 2008년 15.3%로 크게 줄어 들고, '대졸이상'은 8.0%에서 34.9%로 증가했다. 고졸 비중은 줄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지난 5년 동안 노동력 유희화율은 2003년 27.8%에서 2008년 28.3%로 0.5%p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별로 보면 육아가사가 696만 명(45.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교육 415만 명(27.2%), 연로 152만 명(10.0%), 쉬었음 135만 명(8.9%), 취업준비 60만 명(3.9%) 순이다.

비경제활동인구를 100이라 할 때 지난 5년 동안 육아가사와 연로 비중은 감소하고, 교육은 같은 비중을 유지하고, 취업준비와 백수(쉬었음) 비중은 증가했다. 즉 백수는 2003년 91만 명(6.3%)에서 2008년 135만 명(8.9%)으로 44만 명(2.6%p) 증가했고, 취업준비생은 35만 명(2.4%)에서 60만 명(3.9%)으로 25만 명(1.5%p) 증가했다. 특히 남자는 취업준비생이 19만 명(4.2%)에서 34만 명(6.6%)로 15만 명(2.4%p) 증가하고, 백수(쉬었음)는 75만 명(16.3%)에서 111만 명(21.7%)으로 36만 명(5.4%p) 증가했다.

넷째, 한국의 실업률은 3%대로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낮다. 청년(15~24세) 실업률은 9.3%로 OECD 국가 중 열 번째로 낮다. 따라서 실업률만 보면 한국의 고용사정은 양호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23위이고, 청년 고용률은 23.8%로 OECD 국가 중 29위다. 한국보다 청년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헝가리 한 나라뿐이다. 따라서 한국의 청년 노동시장에서 고용사정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2.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

제3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09년 5월) 자료를 사용해서 주요 고용지표를 살펴본 뒤,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5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 3.8%보다 두 배 높다. 청년 고용률은 41.3%로 전체 고용률 59.3%보다 낮다. 실업률은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고용률은 '전문대졸(76.1%)>대졸이상(72.0%)>고졸(62.3%)>중졸이하(48.6%)' 순으로 저학력층에서 낮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전문대졸>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순으로, 저학력층에서 취업 확률이 낮다.

둘째, 일자리가 없는 비취업자는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자로 분류되고, 구직활동을 안 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실업자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하면, 남성 가구주보다 여성 배우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확률이 높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전문대졸' 순으로 저학력층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이는 그만큼 저학력층의 취업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셋째, 청년층 유희인력은 163만 명이고, 유희화율은 16.7%이다. 학력별 유희화율은 '중졸이하(42.7%)>고졸(31.8%)>전문대졸(23.5%)>대졸이상(24.4%)'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유희인력 활동상태는 취업준비가 48만 명이고, 육아가사가 46만 명, 백수(쉬었음)가 29만 명, 구직활동이 28만 명이다. 취업준비는 학력이 높을수록

많고, 육아가사와 백수(쉬었음)는 저학력층에 많다. 취업준비는 고학력층, 육아가사는 저학력층 여성, 백수는 저학력층 남성에 많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비취업자의 활동상태는 성과 학력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고학력층 남녀는 취업준비, 저학력층 여성은 육아가사, 저학력층 남성은 백수일 확률이 높다.

3. 취업과 이직실태

제4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09년 5월) 자료를 사용해서 청년 노동시장에서 취업 및 이직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5월 현재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청년들은 4명 중 1명꼴로 직업교육을 받았다. 대졸이상은 31.1%, 전문대졸은 23.9%, 고졸은 22.3%, 중졸이하는 12.5%로,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직업교육이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다른 조건을 통제했을 때 직업교육과 취업의 상관관계는 부(-)이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에서, 직업교육 기관별로는 사설학원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업교육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취업이 쉽지 않은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이 주로 사설학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고졸이하 저학력층과 사설학원 이외의 직업교육 기관에서는 직업교육과 취업 사이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많은 청년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직업교육이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2009년 5월 현재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청년들 가운데 절반은 학교에 다니면서 직장을 체험했다. 대졸이상은 62.0%, 전문대졸은

57.4%, 고졸은 31.1%, 중졸이하는 16.0%로, 학력이 높을수록 직장체험자가 많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직장체험과 취업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학교현장실습참여는 고졸이상, 직장체험프로그램은 고졸,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전문대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고졸 취업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현장실습참여와 직장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든지,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소요되는 구직기간은 평균 7.3개월이다. 전문대졸은 4.0개월, 대졸이상은 4.4개월인데, 고졸은 9.8개월, 중졸이하는 20.2개월로, 고졸이하 저학력층은 구직기간이 매우 길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경로는 연고채용(42.4%)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신문·잡지·인터넷·벽보(29.8%), 공개채용시험(18.0%), 회사특별채용(3.5%), 직업소개기관(3.3%) 순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공개채용시험 비중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연고채용 비중이 높다. 따라서 고졸이하 저학력층의 구직기간을 줄이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직업소개기관에서 맞춤형 취업알선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년층의 취업 횟수는 중졸과 고졸이하가 2.3회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은 2.0회, 대졸이상은 1.4회로,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 횟수가 많다. 취업 횟수 4회 이상은 '중졸이하(39.9%)>고졸(25.9%)>전문대졸(10.7%)>대졸이상(3.4%)'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여성과 저학력층의 취업 횟수가 많다. 이는 그만큼 여성과 저학력층의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일자리가 최종 학교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3%로, '일치한다'(47.3%)보다 조금 많다. '일치한다'는 응답은 '대졸이상(63.8%)>전문대졸(52.7%)>고졸(30.7%)>중졸이하(4.6%)'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본인의 전공이나 희망과 동떨어진 일자리에 비자발적으로 취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첫 일

자리를 이직한 사람들의 이직사유는 근로여건 불만족이 43.0%로 가장 많다. 이는 청년층의 이직률을 낮추고 실업률을 낮추려면 근로조건 개선 또한 긴요함을 말해준다.

여섯째, 2009년 5월 현재 미취업자 147만 명 가운데 1년 이상 미취업자가 51.4%이고, 3년 이상 미취업자가 18.1%이다. 1년 이상 미취업자는 ‘중졸이하(64.6%)>고졸(52.3%)>대졸이상(50.8%)>전문대졸(46.8%)’ 순이고, 3년 이상 미취업자는 ‘중졸이하(34.3%)>고졸(21.7%)>전문대졸(14.3%)>대졸이상(12.0%)’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장기간 미취업자가 많다.

미취업자들의 활동도 학력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취업시험 준비는 ‘대졸이상(52.0%)>전문대졸(26.4%)>고졸(10.9%)>중졸이하(7.3%)’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 그렇지만 육아가사는 ‘중졸이하(38.5%)>고졸(35.9%)>전문대졸(28.9%)>대졸이상(17.0%)’ 순이고, 백수(쉬었음)는 ‘중졸이하(28.1%)>고졸(19.9%)>전문대졸(15.2%)>대졸이상(4.8%)’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다.

4. 고용의 질

제5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09년 3월) 자료를 사용해서, 청년 노동자의 노동력 구성과 고용의 질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 사업체 규모와 노조 유무는 학력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사회서비스업과 생산자서비스업, 사무관리직과 전문직,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개인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많다.

둘째, 비정규직 비율은 ‘중졸이하(90.0%)>고졸(60.0%)>전문대졸

(46.0%)>대졸이상(41.0%)'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은 '중졸이하>고졸 ≒ 대졸이상>전문대졸' 순으로, 저학력층에서 높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중은 '중졸이하(64.3%)>고졸(46.1%)>전문대졸(40.1%)>대졸이상(39.2%)' 순이고, 신규취업 실패율은 '중졸이하(45.7%)>고졸(26.1%)>전문대졸(20.1%)>대졸이상(13.5%)'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낮다.

셋째, 대졸이상 월평균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대졸은 82.4, 고졸은 76.4, 중졸이하는 56.0이다. 대졸이상 시간당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대졸은 76.9, 고졸은 66.9, 중졸이하는 46.6이다. 인적속성과 일자리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력별 순임금격차를 계산하면, 대졸이상 월평균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대졸은 89.3, 고졸은 85.8, 중졸이하는 78.8이다. 대졸이상 시간당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대졸은 89.0, 고졸은 82.0, 중졸이하는 72.3으로 학력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월임금 총액보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학력별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그만큼 저학력층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넷째, 청년층에서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천원) 미달자는 40만 5천명(11.4%)으로, 9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중졸이하(42.9%)>4재학생(29.3%)>고졸(13.0%)>전문대졸(6.6%)>대졸이상(4.1%)>고졸(1%)' 순이다. 학력이 낮을수록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많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을 확률은 중졸이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재학생 아르바이트가 높다.

다섯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은 '중졸이하(72.9%)>고졸(31.3%)>전문대졸(19.3%)>대졸이상(10.2%)'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다. 고임금계층은 '중졸이하(2.9%)<고졸(6.2%)<전문대졸

(11.8%)<대졸이상(33.3%)'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저임금계층에 속할 확률은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순이고, 고임금계층에 속할 확률은 '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 순으로, 학력에 반비례한다.

여섯째, 주당 노동시간은 '중졸이하(51.4시간)>고졸(48.0시간)>전문대졸(45.0시간)>대졸이상(42.0시간)'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길다.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중졸이하(57.7%)>고졸(37.8%)>전문대졸(25.7%)>대졸이상(13.4%)'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고, 주5일제는 '중졸이하(9.1%)<고졸(35.9%)<전문대졸(53.1%)<대졸이상(69.2%)'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적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순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장시간 근로할 확률이 높고, 주5일제를 적용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일곱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중졸이하' 순으로 학력에 비례한다. 공무원과 교원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고용보험 가입률도 전문대졸이 대졸이상보다 높은 것을 제외하면 마찬가지이다. 이 밖에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근로계약 서면 작성 등 기타 노동조건 적용률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 비율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낮다. 이는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대체로 마찬가지이다.

여덟째, 현재의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중졸이하(78.6%)>고졸(47.7%)>전문대졸(28.4%)>대졸이상(21.7%)'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자발적 취업이 많다. 비자발적 취업사유로 중졸이하(55.7%)와 고졸(20.1%), 재학생(15.5%)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에 많이 응답하고, 전문대졸(9.1%)과 대졸이상(5.9%)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에 많이 응답하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청년 노동

시장은 학력별로 뚜렷하게 구별된다. 첫째, 학력별 고용률은 전문 대졸 76.2%, 대졸이상 72.0%, 고졸 62.3%, 중졸이하 48.6%로, 전문 대졸은 4명 중 3명이 일자리를 갖는 데 비해, 중졸이하는 2명만 일자리를 갖고 있다. 둘째, 학력이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가 많은 사회서비스업과 생산자서비스업, 사무관리직과 전문직,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좋은 일자리가 적은 개인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많다. 셋째,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노동시간이 짧으며,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안정된 일자리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학력이 낮을수록 은 4명중 3명이 일자리되거나 저임금계층이 될 확률이 높고,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시간은 길고 일자리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학력별 유희화율은 중졸이하 42.7%, 고졸31.8%, 대졸이상 24.4%, 전문대졸 23.5%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유희인력들의 활동상태를 보면 고학력층은 남녀 모두 취업준비가 많고, 저학력층 여성은 육아가사, 남성은 쉬었음(백수)이 많다.

5. 고졸 청년 구직자의 사무관련직 선호 경향과 임금프리미엄

제6장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DB(2007년 및 2008년 상반기) 자료를 이용하여 고졸 청년층의 구인·구직 특성에서 구직자의 사무관련직 선호 경향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는 한편, 사무관련직과 다른 직종 간의 이동 행태에 따라 임금프리미엄이나 임금페널티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졸 청년층 구직자들은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을 선호하는데, 특히 고졸 여성들의 사무관련직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과거 고졸 청년층이 종사했던 직업은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이 49.4%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이 구직을 희망하는 직업도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이 62.5%를 차지하였다. 고졸 청년 여성의 경우에는 과거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종사자가 전체의 67.8%에 달했으며, 희망직업도 사무관련직이 84.6%를 차지했다.

둘째, 고졸 청년층에서도 사무관련직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과거 사무관련직에 종사했던 이들은 직장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직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직자들이 구직 과정에서 과거 직업을 변경하는 비율은 50.7%에 달했으며, 희망직업의 변경 비율도 71.3%로 나타났다. 고졸 청년층의 경우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과거직업의 변경률이 가장 낮은 직종은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이다. 과거에 사무관련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15.5%만이 직장을 변경하면 사무관련직 이외의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구직자의 희망직업이 실제 취업 과정에서 변경된 비율도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희망자의 1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고졸 청년 여성의 경우에는 과거 다른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았다. 과거 영업 및 판매관련직의 78.6%, 전기, 전자관련직의 59.2%, 생산단순직의 49.3%가 새로 취업할 때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과거 다른 직업에 종사했다가 현재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영업 및 판매관련직의 17.0%, 기계관련직의 7.9%, 전기전자관련직의 11.3%, 생산단순직의 9.6%에 불과하다.

넷째, 학력별로 구직시의 의중임금과 취업시의 제시임금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일수록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이 높은 반면,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의 격차도 컸다. 구직자의 의중임금과 취업시의 제시임금의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저연령일수록, 저학력일수록, 자격증이 없을수록 의중임금이나 제시임금이 모두 낮았다. 주요 변수인 과거직업의 변경이나 희망직업의 변경은

모두 임금에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임금에 부(-)의 효과를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 이동과정에서 직업을 변경하게 되면 임금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섯째, 과거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사무관련직으로 직업을 바꾸면 임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 고졸 청년층에서도 사무관련직과 비사무관련직 간에 유의미한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금격차가 직업 변경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변경 과정에서 사무관련직에서 동일한 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한 집단과 비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은 기준 집단(비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에 비해 각각 33.6%, 31.8%의 임금프리미엄을 누렸다. 그러나 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은 기준 집단과 유사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무관련직으로의 이동이 주는 임금프리미엄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고졸 여성 청년구직자들이 사무관련직을 선호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즉 여성의 사무관련직 집중 현상은 여성의 생산직 기피 현상 이외에도 사무관련직과 비사무관련직 간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 노동시장에서 학력은 고용의 양과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학력수준이 높으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으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유희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청년실업 대책은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보다는 고졸 이하 저학력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고졸 미취업 청년층 문제는 사회양극화 문제와 직결되므로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연구되어야 한다. 하향 취업보다는 취업준비 또는 백수를 선택하는 청년층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별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층 고용대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 밖에서 진입을 망설이고 있는 청년층에게 노동공급의 유인을 제공하고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단기 일자리로 취업-비취업을 반복하면 불안정한 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적자본이 상실된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와 사회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제1장

머리말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저학력층에서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2008년 41.6%로 3.5%p 떨어졌고, 중졸이하 고용률은 47.4%에서 41.7%로 5.7%p 뚝 떨어졌다. 고졸자는 62.9%에서 62.3%로 0.6%p 감소한 데 비해, 대졸자는 75.2%에서 75.3%로 0.1%p 증가했다.

그렇다고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실업률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청년 실업률은 2004년 8.3%에서 2008년 7.2%로 1.1%p 감소했고, 중졸이하 실업률은 2.5%에서 2.2%로 0.3%p 감소했으며, 고졸 실업률은 4.5%에서 3.8%로 0.7%p 감소했다. 이처럼 청년층과 저학력층에서 공식 실업률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률이 뚝 떨어진 것은, 적절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청년실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주로 대졸 청년실업 문제에 모아지고 있고, 고졸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도 주로 대졸 청년실업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안국·신동준, 2007). 그러다 보니 처지가 더 나쁜 고졸이하 저학력층 청년고용 문제는 사회의 관심이나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기 십상이다.

청년실업(또는 고용) 연구도 대부분 대졸이상 고학력자에 초점을 맞추고, 고졸이하 저학력층 연구는 소홀한 편이다. 전병유·이상일(2003)과 정인수·남재량·이승우(2006), 김안국·신동준(2007)만 고졸이하 저

학력층에 초점을 맞출 뿐이다. 이들은 대졸이상 고학력층보다 고졸이하 저학력층에서 청년실업(또는 고용) 문제가 더 심각하며, 그 원인과 대책도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고한다. 전병유·이상일(2003)과 정인수·남재량·이승우(2006)는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고졸이하 저학력층의 고용(또는 실업) 실태를 살펴본 뒤, 주요 선진국의 청년실업 대책과 정부의 청년실업 대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졸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 원인과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노동시장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청년층 노동시장을 학력별로 구분해서 그 실태와 추이를 살펴보고, 다변량 분석을 통해 학력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통상적으로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으로 구분한다. 이때 대학(또는 전문대) 재학생은 고졸, 고등학교 재학생은 중졸이하로 분류된다. 2009년 5월 청년층(15~29세) 979만 명 가운데 재학생은 485만 명(고교 이하 241만 명, 전문대 58만 명, 대학 185만 명)으로 절반이다.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이들을 중졸이하 또는 고졸로 분류하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졸업(또는 중퇴)자의 고용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재학(또는 휴학)생을 따로 떼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표 1-1 참조).

<표 1-1> 학력별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2009년 5월, 단위: 천명)

	중졸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전 체
중졸이하	200				200
고졸		1,621			1,621
전문대졸			1,517		1,517
대졸이상				1,605	1,605
재학생	2,414	2,431			4,845
전 체	2,614	4,052	1,517	1,605	9,78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제2장 주요 고용지표의 연도별 추이와 국제비교에서는 통계청의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실업률과 고용률, 노동력 구성과 유휴인력 등 각종 고용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비교를 수행한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청년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헝가리뿐이며,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취업준비생과 청년 백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제3장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09년 5월) 자료를 사용해서, 인적 속성(성, 혼인, 가구주 관계, 연령, 학력)별로 실업률과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과 유희화율, 비취업자 활동상태를 살펴본다.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하고, 비취업자의 활동상태 결정요인을 다항로짓분석한다.

제4장 취업과 이직 실태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09년 5월) 자료를 사용해서, 직업교육(훈련)과 직장체험, 취업경험과 취업횟수, 구직방법과 구직기간, 취업경험자의 첫 일자리, 최종 학교 전공불일치 등을 학력별로 비교 검토한다. 기술통계 이외에 직업교육과 직장체험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짓분석과, 취업횟수 결정요인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제5장 고용의 질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09년 3월) 자료를 사용해서 청년 노동자의 구성과 고용의 질을 학력별로 살펴본다. 기술통계와 더불어 비정규직 결정요인 로짓분석, 임금결정요인 회귀분석,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로짓분석, 저임금-고임금 계층 결정요인 다항로짓분석, 노동시간 회귀분석, 단시간-장시간 근로 결정요인 다항로짓분석, 주5일제 실시 로짓분석, 사회보험 가입과 노동조건 적용 결정요인 로짓분석 등의 다변량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5장의 분석은 임금노동자로 한정된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하더라도 고용의 질은 임금노동자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청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가진 취업자의 92.3%가 임금노동자고, 청년 실업자의 98.1%가 임금노동을 희망한다

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청년 취업자의 고용의 질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6장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는 고졸 청년층 구직자가 대졸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사무관련직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만약 고졸 청년층 구직자들이 사무관련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사무관련직의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한다면, 고졸 청년층은 기술·기능을 습득함으로써 기술·기능직으로의 취업하기보다는 사무관련직으로의 취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07년과 2008년 상반기 워크넷 자료를 이용하여 고졸 청년 구직자의 직업 변경과 그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을 분석하였다.

제7장 맺음말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서 그 함의를 살펴본다.

제2장

주요 고용지표의 연도별 추이와 국제비교

1. 실업률과 고용률

가. 전 체

1970~86년에는 4% 안팎을 오르내리던 실업률이 1988~97년에는 2%대로 떨어졌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한때 7%까지 치솟았지만, 2001년 이후는 다시 3%대로 떨어졌다. 따라서 실업률만 보면 한국의 고용사정이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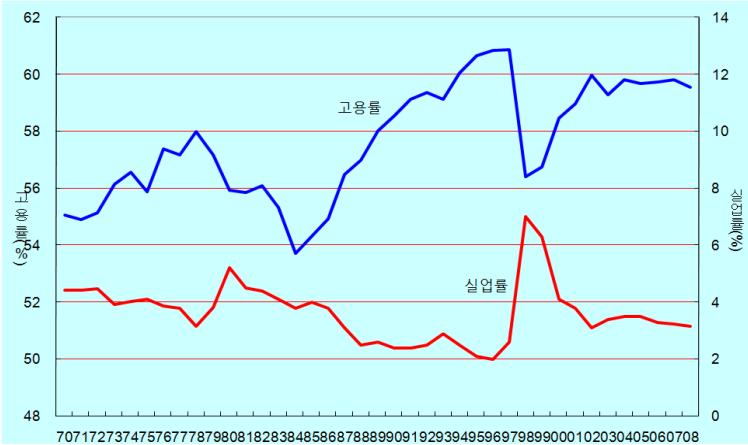
그러나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을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고용률은 1984년(53.7%)을 저점으로 1997년(60.9%)까지 꾸준히 높아지다가 외환위기 직후 56.4%로 4.5%p 감소했고, 2001년 이후 59%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고용률을 보면 한국의 고용사정이 양호하다 할 수 없다(그림 2-1 참조).

나. 남 녀

1970년 이후 지난 40년 동안 여성이 남성보다 실업률이 높았던 해가 없고, 고용률이 높았던 해도 없다. 2008년 여성 실업률은 2.6%로 남성(3.6%)보다 낮고, 고용률은 48.7%로 남성(70.9%)보다 22.2%p 낮다. 이는 그만큼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을 의미한다.

[그림 2-1]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15세 이상)

(단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남성 고용률은 1986년(68.6%)을 저점으로 1995년(74.6%)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69.2%로 5.4%p 감소했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2002년(72.2%)을 정점으로 2008년(70.9%)까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여성 고용률은 1984년(39.8%)을 저점으로 1997년(48.6%)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44.4%로 4.2%p 감소했다.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06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2006~08년에도 48.7~48.9%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그림 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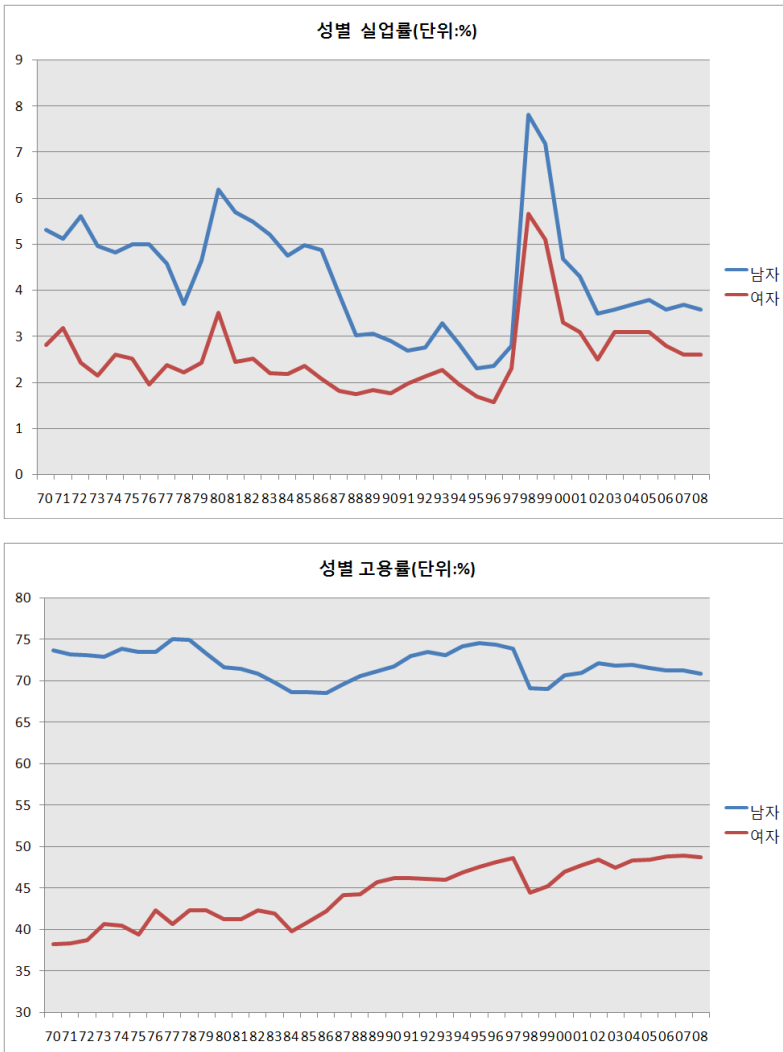
다. 연령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08년 7.2%로 외환위기 전인 1995년(4.6%)보다 2.6%p 높다. 장년층(30~54세) 실업률은 1.2%에서 2.5%로 1.3%p 증가했고, 고령(55세 이상) 실업률은 0.7%에서 1.6%로 0.9%p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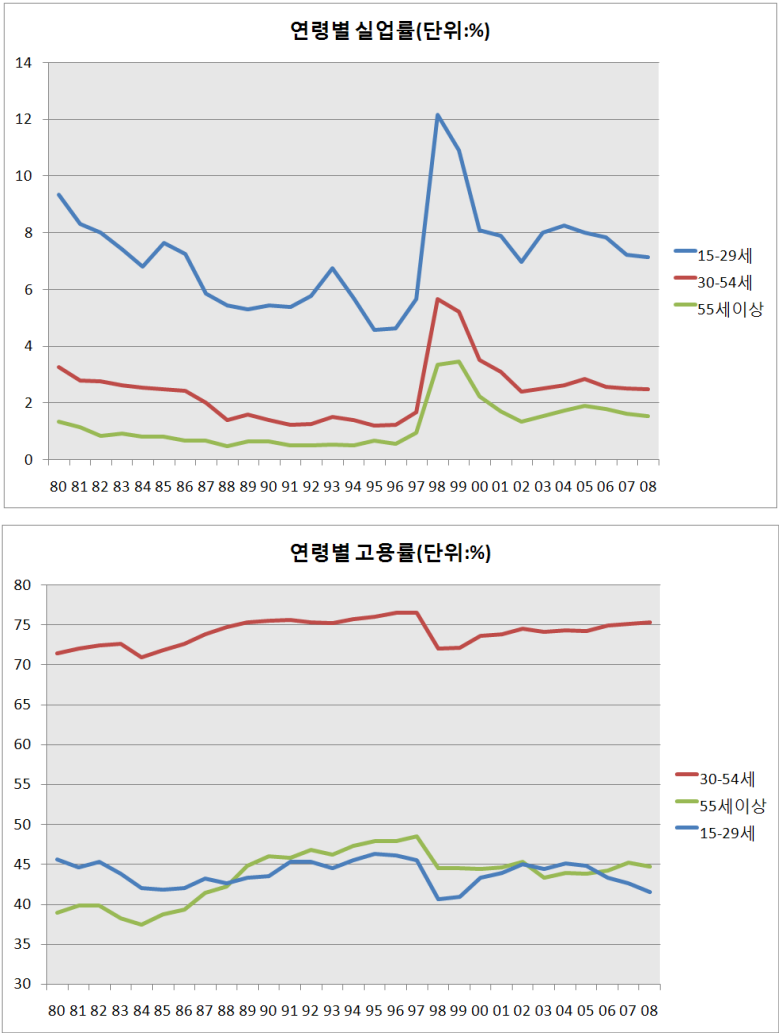
청년층 고용률은 1995년 46.4%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40.6%로 5.8%p 하락했다.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02~04년에는 45.1%로 높아졌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에는 41.6%로 떨어졌다. 이

에 비해 장년층 고용률은 1998년 72.1%에서 2008년 75.3%로 증가했고, 고령층 고용률은 44.5%에서 44.8%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 고용사정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우려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그림 2-3 참조).

[그림 2-2] 성별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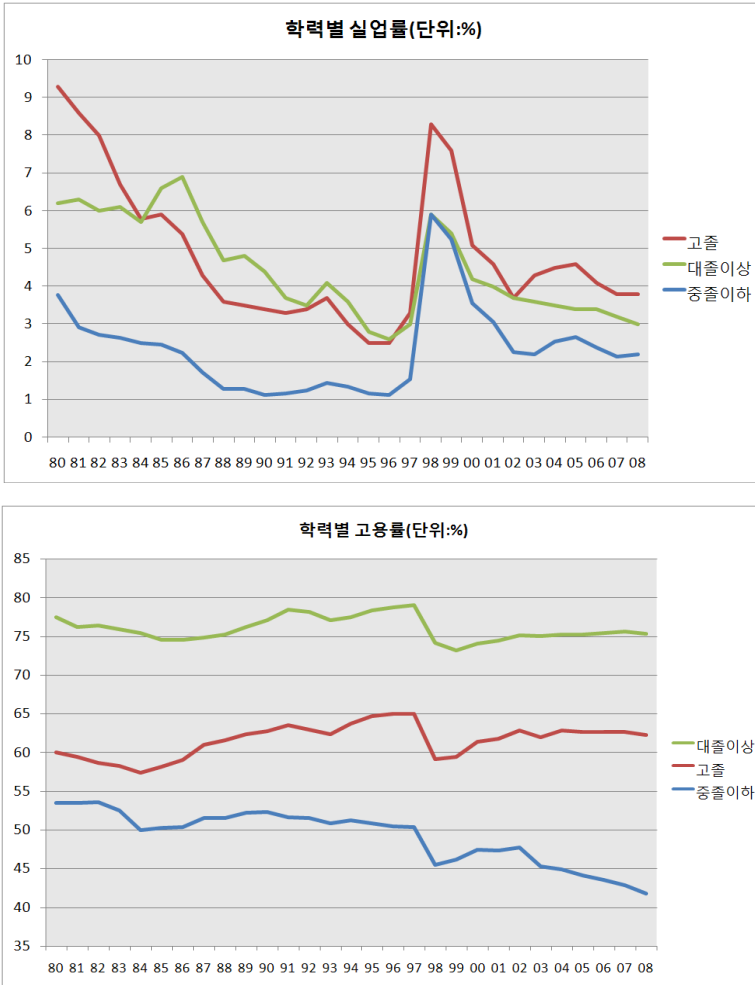
[그림 2-3] 연령별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



라. 학력

2008년 실업률은 고졸이 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대졸이상 3.0%, 중졸이하 2.2% 순이다. 고용률은 대졸이상이 75.3%로 가장 높고, 고졸이 62.3%, 중졸이하가 41.7%로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률이 낮다. 게다가 2000년 이후 고용률이 대졸이상은 74~75%, 고졸은 61~62%로 같은

[그림 2-4] 학력별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



수준을 유지한 데 비해, 중졸이하는 47.4%에서 41.7%로 5.7%p 감소했다. 이는 저학력층에서는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 2.4 참조).

2. 취업자와 실업자 구성

가. 취업자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은 1980년 38.2%에서 2006년 41.9%로 매우 완만하게 증가한 데 이어, 2006~08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층은 1980년 33.2%에서 2008년 17.3%로 크게 줄어든 데 비해, 장년층은 56.0%에서 64.4%, 고령층은 10.8%에서 18.3%로 증가했다. 중졸이하는 1980년 71.5%에서 2008년 22.3%로 49.2%p나 줄어든 데 비해, 대졸 이상은 6.7%에서 36.8%로 30.1%p 증가했다. 고졸은 1980년 21.8%에서 1990년대 후반에는 43.9%로 높아졌으나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여성화는 그 속도가 매우 더딘 반면, 고령화와 고학력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표 2-1과 표 2-2 참조).

〈표 2-1〉 성별·연령별·학력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전체	남성	여성	15~ 29세	30~ 54세	55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980	13,683	8,462	5,222	4,547	7,661	1,477	9,784	2,986	914
1980-4	14,204	8,722	5,482	4,651	7,974	1,580	9,509	3,591	1,105
1985-9	16,252	9,745	6,507	4,889	9,423	1,940	8,856	5,518	1,877
1990-4	18,965	11,304	7,662	5,313	11,118	2,534	8,053	7,799	3,113
1995-9	20,542	12,156	8,385	5,127	12,353	3,062	7,104	9,009	4,429
2000-4	21,919	12,827	9,091	4,735	13,745	3,437	6,227	9,613	6,078
2005-8	23,254	13,521	9,733	4,252	14,901	4,103	5,482	9,749	8,023
2005	22,856	13,330	9,526	4,450	14,557	3,850	5,660	9,791	7,406
2006	23,151	13,444	9,706	4,270	14,856	4,025	5,578	9,774	7,799
2007	23,433	13,607	9,826	4,202	15,001	4,229	5,443	9,778	8,212
2008	23,577	13,703	9,874	4,084	15,188	4,306	5,246	9,654	8,676

〈표 2-2〉 성별·연령별·학력별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980	100.0	61.8	38.2	33.2	56.0	10.8	71.5	21.8	6.7
1980-4	100.0	61.4	38.6	32.8	56.1	11.1	67.0	25.2	7.8
1985-9	100.0	60.0	40.0	30.1	58.0	11.9	54.7	33.8	11.5
1990-4	100.0	59.6	40.4	28.0	58.6	13.4	42.6	41.1	16.4
1995-9	100.0	59.2	40.8	24.9	60.1	14.9	34.6	43.9	21.6
2000-4	100.0	58.5	41.5	21.6	62.7	15.7	28.5	43.9	27.7
2005-8	100.0	58.1	41.9	18.3	64.1	17.6	23.6	41.9	34.5
2005	100.0	58.3	41.7	19.5	63.7	16.8	24.8	42.8	32.4
2006	100.0	58.1	41.9	18.4	64.2	17.4	24.1	42.2	33.7
2007	100.0	58.1	41.9	17.9	64.0	18.0	23.2	41.7	35.0
2008	100.0	58.1	41.9	17.3	64.4	18.3	22.3	40.9	36.8

나. 실업자

전체 실업자 중 여성 비중은 1980년 25.4%에서 2008년 34.5%로 증가했다. 청년층은 1980년 62.7%에서 2008년 41.0%로 감소한 데 비해, 장년층은 34.6%에서 50.5%로 증가하고, 고령층은 2.7%에서 8.8%로 증가했다. '중졸이하'는 1980년 51.1%에서 2008년 15.3%로 크게 줄어든 데 비해, '대졸이상'은 8.0%에서 34.9%로 급증했다. 고졸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표 2-3과 표 2-4 참조).

〈표 2-3〉 성별·연령별·학력별 실업자 추이

(단위: 천명)

	전체	남성	여성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980	748	558	190	469	259	20	382	307	60
1980-4	649	504	144	403	229	16	285	293	71
1985-9	530	400	130	329	189	13	162	256	112
1990-4	496	338	158	329	153	14	102	270	124
1995-9	859	576	284	415	387	57	211	462	188
2000-4	862	554	307	403	399	60	175	448	238
2005-8	817	527	290	349	398	72	132	416	269
2005	887	553	334	387	425	75	154	472	261
2006	827	533	294	364	391	73	136	420	272
2007	783	517	266	328	386	70	119	389	275
2008	769	505	265	315	388	68	118	384	268

〈표 2-4〉 성별·연령별·학력별 실업자 비중 추이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15~ 29세	30~ 54세	55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980	100.0	74.6	25.4	62.7	34.6	2.7	51.1	41.0	8.0
1980-4	100.0	77.8	22.2	62.2	35.3	2.5	44.0	45.2	10.9
1985-9	100.0	75.5	24.5	62.0	35.6	2.4	30.5	48.3	21.2
1990-4	100.0	68.1	31.9	66.3	30.8	2.8	20.6	54.4	25.0
1995-9	100.0	67.0	33.0	48.3	45.1	6.6	24.5	53.7	21.8
2000-4	100.0	64.3	35.7	46.8	46.3	6.9	20.3	52.0	27.7
2005-8	100.0	64.5	35.5	42.7	48.7	8.8	16.1	51.0	32.9
2005	100.0	62.3	37.7	43.6	47.9	8.5	17.4	53.2	29.4
2006	100.0	64.4	35.6	44.0	47.3	8.8	16.4	50.8	32.9
2007	100.0	66.0	34.0	41.9	49.3	8.9	15.2	49.7	35.1
2008	100.0	65.5	34.5	41.0	50.5	8.8	15.3	49.9	34.9

3. 비경제활동인구 구성

가. 성별·연령별·학력별 구성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 비중은 1980년 72.2%에서 2008년 66.4%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2/3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은 1980년 49.2%에서 2008년 35.6%로 줄어든 데 비해, 장년층은 28.0%에서 30.1%로 조금 늘어나고, 고령층은 22.9%에서 34.4%로 크게 늘어났다. 중졸이하는 1980년 81.2%에서 2008년 47.2%로 34.0%p나 줄어든 데 비해, 대졸이상은 2.1%에서 16.9%로 14.8%p 증가했다. 고졸은 1980년 16.8%에서 2000년대 초반 38.1%로 높아졌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도 고령화와 고학력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표 2-5와 표 2-6 참조).

〈표 2-5〉 성별·연령별·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명)

	전체	남성	여성	15~ 29세	30~ 54세	55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980	10,032	2,785	7,247	4,932	2,804	2,294	8,142	1,684	206
1980-4	10,803	3,149	7,653	5,446	2,885	2,472	8,287	2,241	275
1985-9	12,138	3,815	8,323	6,245	3,161	2,732	8,298	3,332	509
1990-4	12,542	3,805	8,737	6,193	3,445	2,904	7,476	4,291	774
1995-9	13,376	4,106	9,270	6,120	3,807	3,449	7,281	4,917	1,178
2000-4	14,177	4,537	9,639	5,533	4,386	4,259	6,972	5,397	1,808
2005-8	14,887	4,924	9,962	5,261	4,585	5,042	7,126	5,409	2,352
2005	14,557	4,733	9,823	5,084	4,609	4,864	7,026	5,351	2,181
2006	14,784	4,885	9,898	5,209	4,568	5,007	7,124	5,393	2,266
2007	14,954	4,960	9,994	5,325	4,578	5,051	7,148	5,427	2,380
2008	15,251	5,116	10,134	5,424	4,583	5,245	7,204	5,465	2,582

〈표 2-6〉 성별·연령별·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추이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15~ 29세	30~ 54세	55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980	100.0	27.8	72.2	49.2	28.0	22.9	81.2	16.8	2.1
1980-4	100.0	29.2	70.8	50.4	26.7	22.9	76.7	20.7	2.5
1985-9	100.0	31.4	68.6	51.4	26.0	22.5	68.4	27.4	4.2
1990-4	100.0	30.3	69.7	49.4	27.5	23.2	59.6	34.2	6.2
1995-9	100.0	30.7	69.3	45.8	28.5	25.8	54.4	36.8	8.8
2000-4	100.0	32.0	68.0	39.0	30.9	30.0	49.2	38.1	12.8
2005-8	100.0	33.1	66.9	35.3	30.8	33.9	47.9	36.3	15.8
2005	100.0	32.5	67.5	34.9	31.7	33.4	48.3	36.8	15.0
2006	100.0	33.0	67.0	35.2	30.9	33.9	48.2	36.5	15.3
2007	100.0	33.2	66.8	35.6	30.6	33.8	47.8	36.3	15.9
2008	100.0	33.6	66.4	35.6	30.1	34.4	47.2	35.8	16.9

나. 성별 활동상태별 구성

2008년 비경제활동인구 1,525만 명을 활동상태 별로 살펴보면, 육아가사가 696만 명(45.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교육 415만 명(27.2%), 연로 152만 명(10.0%), 쉬었음(백수) 135만 명(8.9%), 취업준비 60만 명(3.9%) 순이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육아가사가 681만 명(67.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교육 194만 명(19.1%), 연로 66만 명(6.5%), 취업준비 26만 명(2.5%), 쉬었음 24만 명(2.4%) 순이다. 이에 비해 남성은 교육이 222만 명(43.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쉬었음 111만 명(21.7%), 연로 86만 명(16.8%), 취업준비 34만 명(6.6%), 육아가사 15만 명(3.0%) 순이다. 사실상 백수라 할 '쉬었음'의 응답자가 성별로 차이가 큰 것은, 여성은 대부분 육아가사에 응답하기 때문이다(그림 2-5와 표 2-7, 표 2-8 참조).

[그림 2-5] 성별·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이 밖에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백수(쉬었음)와 취업준비생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백수는 2003년 91만 명(6.3%)에서 2008년 135만 명(8.9%)으로 44만 명(2.6%p) 증가했고, 취업준비생은 35만 명(2.4%)에서 60만 명(3.9%)으로 25만 명(1.5%p) 증가했다(표 2-7과 표 2-8 참조).

〈표 2-7〉 성별·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명)

		전체	육아가사	연로	교육	취업준비	쉬었음
전체	2003	14,383	6,658	1,667	3,908	345	907
	2004	14,300	6,722	1,544	3,742	383	1,033
	2005	14,557	6,725	1,524	3,736	457	1,238
	2006	14,784	6,773	1,502	3,905	525	1,277
	2007	14,954	6,839	1,442	4,066	546	1,321
	2008	15,251	6,963	1,518	4,152	598	1,352
남자	2003	4,580	106	868	2,064	192	746
	2004	4,584	135	827	1,985	215	838
	2005	4,734	121	800	1,992	254	985
	2006	4,885	151	801	2,080	294	1,033
	2007	4,960	143	785	2,160	315	1,072
	2008	5,117	151	860	2,217	340	1,108
여자	2003	9,803	6,552	799	1,845	152	161
	2004	9,716	6,587	717	1,757	168	195
	2005	9,823	6,605	725	1,744	203	253
	2006	9,898	6,622	700	1,824	231	245
	2007	9,994	6,696	657	1,906	231	250
	2008	10,134	6,812	658	1,936	258	244

〈표 2-8〉 성별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추이

(단위: %)

		전체	육아가사	연로	교육	취업준비	쉬었음
전체	2003	100.0	46.3	11.6	27.2	2.4	6.3
	2004	100.0	47.0	10.8	26.2	2.7	7.2
	2005	100.0	46.2	10.5	25.7	3.1	8.5
	2006	100.0	45.8	10.2	26.4	3.6	8.6
	2007	100.0	45.7	9.6	27.2	3.7	8.8
	2008	100.0	45.7	10.0	27.2	3.9	8.9
남자	2003	100.0	2.3	19.0	45.1	4.2	16.3
	2004	100.0	2.9	18.0	43.3	4.7	18.3
	2005	100.0	2.6	16.9	42.1	5.4	20.8
	2006	100.0	3.1	16.4	42.6	6.0	21.1
	2007	100.0	2.9	15.8	43.5	6.4	21.6
	2008	100.0	3.0	16.8	43.3	6.6	21.7
여자	2003	100.0	66.8	8.2	18.8	1.6	1.6
	2004	100.0	67.8	7.4	18.1	1.7	2.0
	2005	100.0	67.2	7.4	17.8	2.1	2.6
	2006	100.0	66.9	7.1	18.4	2.3	2.5
	2007	100.0	67.0	6.6	19.1	2.3	2.5
	2008	100.0	67.2	6.5	19.1	2.5	2.4

4. 유희인력

지난 5년 동안 유희인력¹⁾은 2003년 1,040만 명에서 2008년 1,120만 명으로 80만 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희화율²⁾도 27.8%에서 28.3%로 0.5%p 증가했다.

남성 유희인력(유희화율)은 242만 명(13.4%)에서 296만 명(15.3%)으로 54만 명(1.9%p) 증가했다. 여성 유희인력도 797만 명에서 823만 명으로 26만 명 증가했다. 그렇지만 유희화율은 41.5%에서 40.6%로 0.9%p 감소했다.

유희인력 구성은 남녀 모두 실업자와 연로는 그 비중이 감소하고, 취업준비와 쉬었음은 그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남자는 취업준비가 7.9%

1) 유희인력=실업자+비재학비경제활동인구.

2) 유희화율=유희인력÷생산가능인구×100.

〈표 2-9〉 성별·활동상태별 유휴인력과 유휴화율

(단위: 천명, %)

		유휴인력	유휴화율	유휴인력 구성(유휴인력=100)				
				실업자	육아가사	연로	취업준비	쉬었음
전체	2003	10,395	27.8	7.9	64.1	16.0	3.3	8.7
	2004	10,542	28.0	8.2	63.8	14.6	3.6	9.8
	2005	10,831	28.3	8.2	62.1	14.1	4.2	11.4
	2006	10,904	28.1	7.6	62.1	13.8	4.8	11.7
	2007	10,931	27.9	7.2	62.6	13.2	5.0	12.1
	2008	11,200	28.3	6.9	62.2	13.6	5.3	12.1
남자	2003	2,420	13.4	21.0	4.4	35.9	7.9	30.8
	2004	2,549	13.9	20.9	5.3	32.4	8.4	32.9
	2005	2,713	14.6	20.4	4.5	29.5	9.4	36.3
	2006	2,812	14.9	19.0	5.4	28.5	10.5	36.7
	2007	2,832	14.8	18.3	5.0	27.7	11.1	37.9
	2008	2,964	15.3	17.0	5.1	29.0	11.5	37.4
여자	2003	7,974	41.5	3.9	82.2	10.0	1.9	2.0
	2004	7,993	41.2	4.1	82.4	9.0	2.1	2.4
	2005	8,120	41.3	4.1	81.3	8.9	2.5	3.1
	2006	8,092	40.7	3.6	81.8	8.7	2.9	3.0
	2007	8,100	40.3	3.3	82.7	8.1	2.9	3.1
	2008	8,237	40.6	3.2	82.7	8.0	3.1	3.0

에서 11.5%로 3.6%p 증가하고, 쉬었음은 30.8%에서 37.4%로 6.6%p 증가했다(표 2-9 참조).

5.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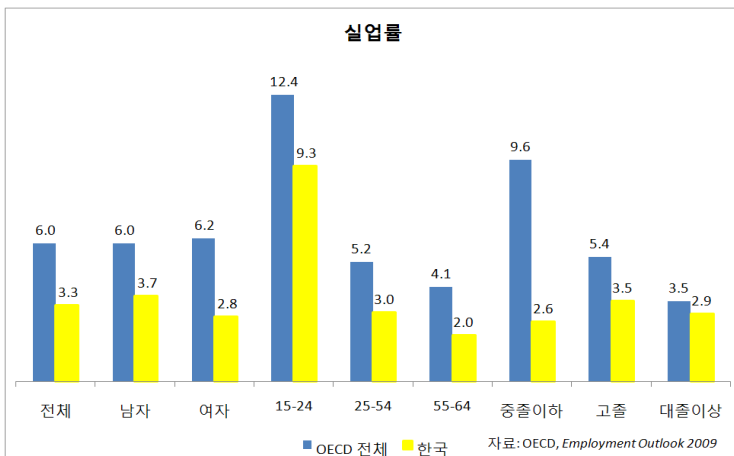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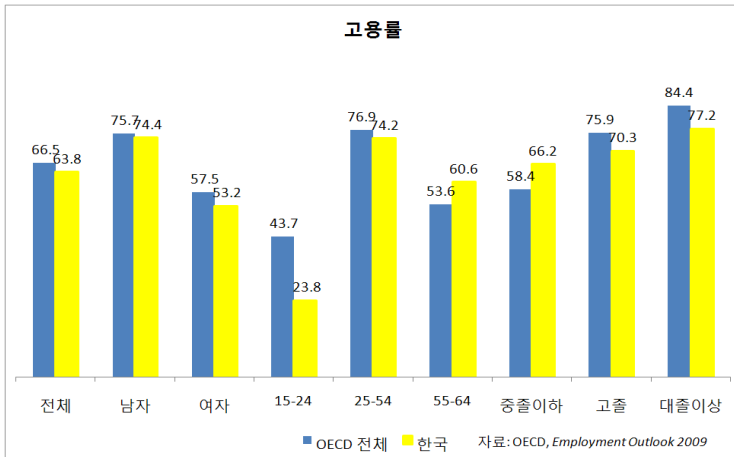
국내에서 통용되는 고용지표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를 분석 대상으로 작성된다. 그렇지만 OECD가 작성해서 발표하는 고용지표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생산가능인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08년 한국은 실업률이 3.3%로 OECD 회원국 평균(6.0%)보다 크게 낮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실업률이 낮은 나라는 노르웨이(2.6%), 아이슬란드(3.0%), 네덜란드(3.0%), 덴마크(3.1%) 네 나라뿐이다. 성별·연령·학력별 실업률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따라서 실업률만 보면 한국의 고용사정은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그림 2-6 참조).

[그림 2-6] 실업률과 고용률 국제비교

(2008년, 15~64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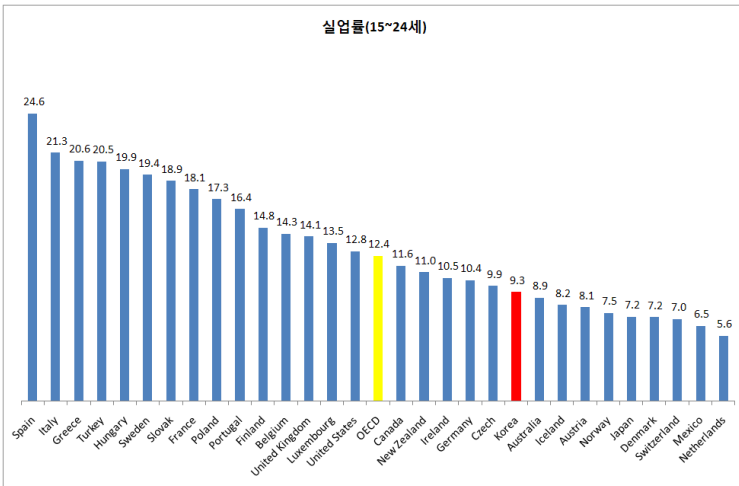
그렇지만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 기준으로는 한국의 고용사정이 양호하다고 할 수 없다. 한국의 고용률 63.8%는 OECD 30개국 중 23위로 OECD 평균(66.5%)에 못 미친다. 중졸이하 저학력층과 고령층(55~64세)을 제외하면 성별·연령별·학력별 고용률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한국의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낮은 것은 그만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청년층의 대학진학률이 높으며, 희망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백수, 취업준비생 등)가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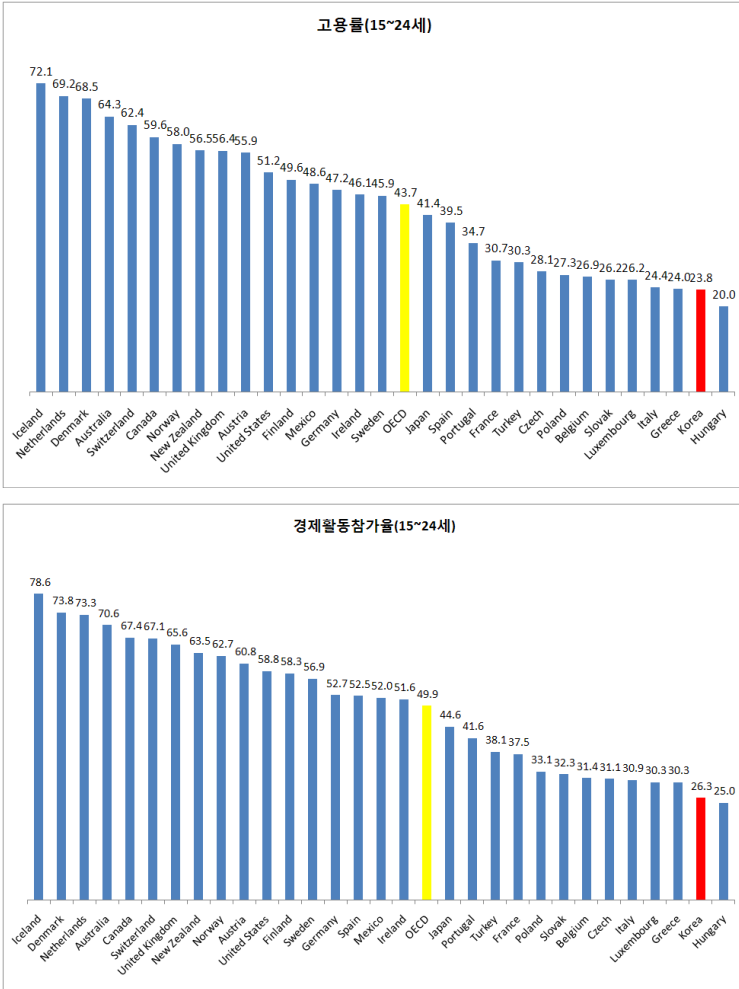
이러한 특징은 청년 노동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청년(15~24세) 실업률은 2008년 9.3%로 OECD 평균(12.4%)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10번째로 낮다. 그렇지만 청년 고용률은 23.8%로 OECD 평균(43.7%)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헝가리 다음인 두 번째로 낮다(그림 2-7 참조).

[그림 2-7] OECD 국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 비교

(2008년, 단위: %)



[그림 2-7]의 계속



6. 소 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실업률은 3%대로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낮다. 따라서 실업률만 보면 한국의 고용사정은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용률은 23위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둘째, 청년 노동시장은 사정이 더 나쁘다. 청년(15~24세) 실업률은 9.3%로 OECD 국가 중 열 번째로 낮다. 청년 고용률은 23.8%로 OECD 국가 중 29위다. 한국보다 청년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헝가리 한 나라 뿐이다.

셋째, 한국의 고용률은 성별·연령별·학력별 격차가 크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02년 45.1%에서 2008년 41.6%로 3.5%p 감소했고, 중졸이하 고용률은 47.7%에서 41.7%로 6.0%p 감소했다. 이는 청년층과 저학력층에서 고용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은 1980년 38.2%에서 2008년 41.9%로 매우 완만하게 증가했다. 청년층은 33.2%에서 17.3%로 크게 감소했고, 장년층은 56.0%에서 64.4%, 고령층은 10.8%에서 18.3%로 증가했다. 중졸이하는 71.5%에서 22.3%로 49.2%p나 줄어들고, 대졸이상은 6.7%에서 36.8%로 30.1%p 증가했다. 여성화 속도는 매우 더딘 반면, 고령화와 고학력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다섯째, 전체 실업자 중 여성 비중은 1980년 25.4%에서 2008년 34.5%로 증가했다. 청년층은 62.7%에서 41.0%로 감소한 데 비해, 장년층은 34.6%에서 50.5%로 증가하고, 고령층도 2.7%에서 8.8%로 증가했다. '중졸이하'는 1980년 51.1%에서 2008년 15.3%로 크게 줄어들고, '대졸이상'은 8.0%에서 34.9%로 증가했다. 고졸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여섯째,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 별로 보면, 육아가사가 4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교육(27.2%), 연로(10.0%), 쉬었음(8.9%), 취업준비(3.9%) 순이다. 여성은 육아가사(67.2%), 교육(19.1%), 연로(6.5%), 취업준비(2.5%), 백수(2.4%) 순이고, 남성은 교육(43.3%), 백수(21.7%), 연로(16.8%), 취업준비(6.6%), 육아가사(3.0%) 순이다. 성별 백수(쉬었음) 차이가 큰 것은, 여성은 대부분 육아가사에 응답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사실상 실업자라 할 백수(쉬었음)와 취업준비생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백수는 2003년 91만 명(6.3%)에서 2008년 135만 명(8.9%)으로 44만 명(2.6%p) 증가했고, 취업준비생은 35만 명(2.4%)에서 60만 명(3.9%)으로 25만 명(1.5%p) 증가했다.

여덟째, 지난 5년 동안 노동력 유희화율은 2003년 27.8%에서 2008년 28.3%로 0.5%p 증가했다. 남자는 13.4%에서 15.3%로 1.9%p 증가한 데 비해, 여성은 41.5%에서 40.6%로 0.9%p 감소했다. 유희인력 구성에서 실업자와 연로는 비중이 감소하고, 취업준비와 쉬었음은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남자는 취업준비가 7.9%에서 11.5%로 3.6%p 증가하고, 쉬었음은 30.8%에서 37.4%로 6.6%p 증가했다.

제3장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

1. 기술통계

가. 고용지표

[그림 3-1]과 <표 3-1>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09년 5월)에서 인적 속성(성, 혼인, 가구주 관계, 연령, 학력)별로 실업률과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유희화율을 계산한 것이다. 성과 학력을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5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 3.8%보다 두 배 높다. 청년 실업자는 33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94만 명의 1/3이다. 성별 실업률은 남자(8.9%)가 여자(6.4%)보다 높다. 학력별 실업률은 고졸(8.7%)은 높고 중졸이하(4.3%)는 낮으며, 전문대졸(7.4%)과 대졸이상(7.5%)은 엇비슷하다. 아노바(Anova) 검정 결과 학력별 실업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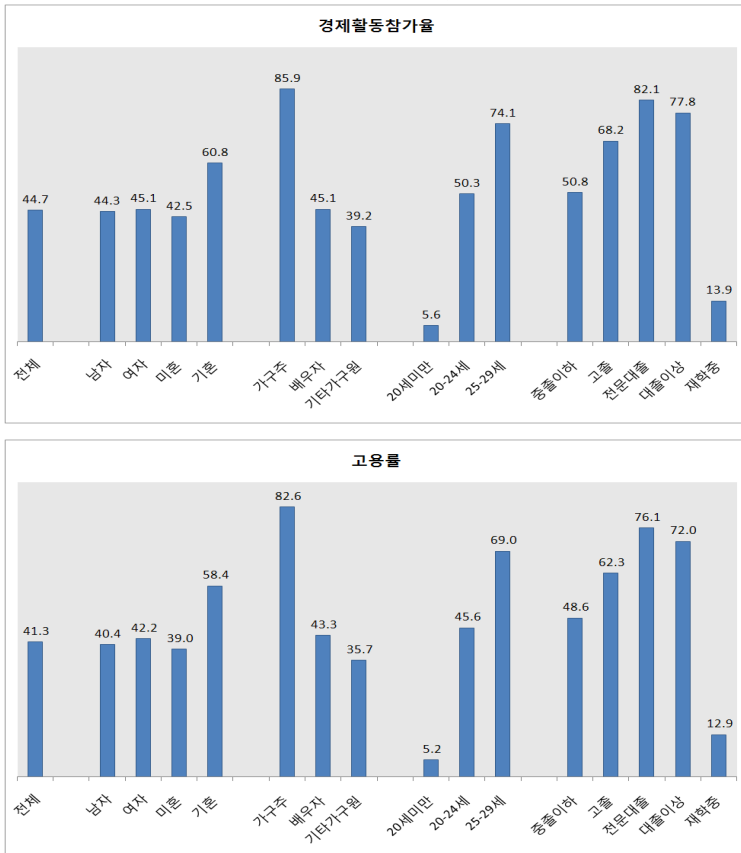
둘째, 청년 고용률 41.3%는 전체 고용률 59.3%에 크게 못 미친다. 청년 취업자 404만 명은 전체 취업자 2,372만 명의 1/6이다. 성별 고용률은 남성이 40.4%고 여성이 42.2%이다. 그렇지만 아노바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학력별 고용률은 전문대졸(76.1%)이 가장 높고, 대졸이상(72.0%), 고졸(62.3%), 중졸이하(48.6%)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이 밖에 연령계층별 고용률은 20세 미만은 5.2%, 20대 초반은 45.6%, 20대 후반은 69.0%로 그 격차가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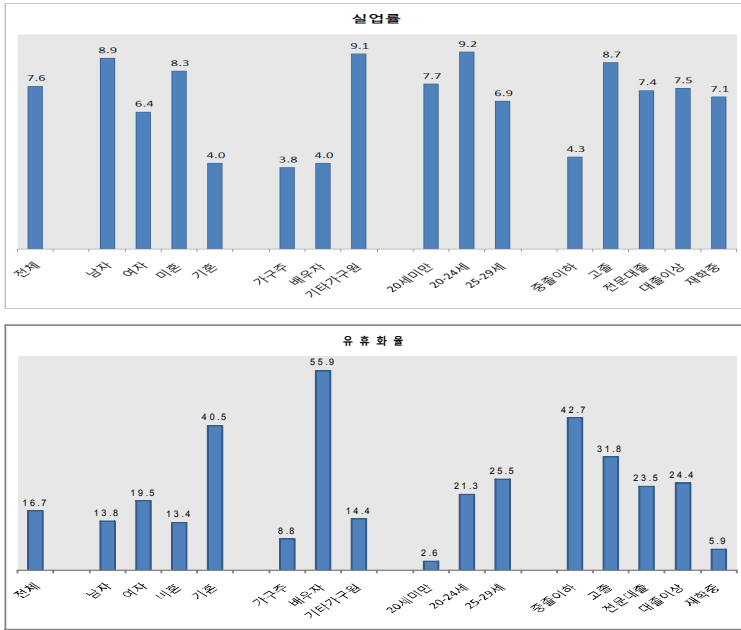
셋째,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44.7%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61.6%에 크게 못 미친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44.3%고 여성이 45.1%로, 아노바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은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전문대졸(82.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대졸이상(77.8%), 고졸(62.3%), 중졸이하(48.6%) 순이다.

넷째, 청년 유휴화율은 16.7%로 전체 노동력 유휴화율 30.0%보다는 낮다. 성별 유휴화율은 여성이 19.5%로 남성 13.8%보다 높다. 학력별 유휴화율은 중졸이하(42.7%), 고졸(31.8%), 전문대졸(23.5%), 대졸이상(24.4%)으로, 저학력층에서 그 비율이 높다.

[그림 3-1] 주요 고용지표

(2009년 5월, 15~29세 청년, 단위: %)





〈표 3-1〉 주요 고용지표

(2009년 5월, 15~29세 청년, 단위: 천명, %)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유휴 인력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유휴 화율
전체	9,787	4,374	4,041	333	5,413	1,634	44.7	41.3	7.6	16.7
남자	4,800	2,126	1,937	189	2,674	662	44.3	40.4	8.9	13.8
여자	4,988	2,249	2,105	144	2,739	972	45.1	42.2	6.4	19.5
미혼	8,610	3,659	3,354	305	4,951	1,154	42.5	39.0	8.3	13.4
기혼	1,180	718	689	29	462	478	60.8	58.4	4.0	40.5
가구주	1,063	913	878	35	150	94	85.9	82.6	3.8	8.8
배우자	681	307	295	12	374	381	45.1	43.3	4.0	55.9
기타가구원	8,044	3,155	2,869	286	4,889	1,157	39.2	35.7	9.1	14.4
20세미만	3,276	184	170	14	3,092	84	5.6	5.2	7.7	2.6
20~24세	2,654	1,334	1,211	123	1,320	566	50.3	45.6	9.2	21.3
25~29세	3,858	2,857	2,661	196	1,001	983	74.1	69.0	6.9	25.5
중졸이하	199	101	97	4	98	85	50.8	48.6	4.3	42.7
고졸	1,622	1,106	1,010	96	516	516	68.2	62.3	8.7	31.8
전문대졸	1,517	1,246	1,154	92	271	356	82.1	76.1	7.4	23.5
대졸이상	1,605	1,248	1,155	93	357	392	77.8	72.0	7.5	24.4
재학휴학중	4,844	673	625	48	4,171	285	13.9	12.9	7.1	5.9

나. 비취업자의 활동상태

[그림 3-2]와 <표 3-2>는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를 뺀 비취업자, 즉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를 인적 속성별로 살펴본 것이다. 청년 비취업자 575만 명 가운데 학업 중인 학생이 411만 명(71.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취업준비 48만 명(8.3%), 육아가사 46만 명(8.0%), 백수(쉬었음) 29만 명(5.0%), 구직활동 28만 명(4.9%) 순이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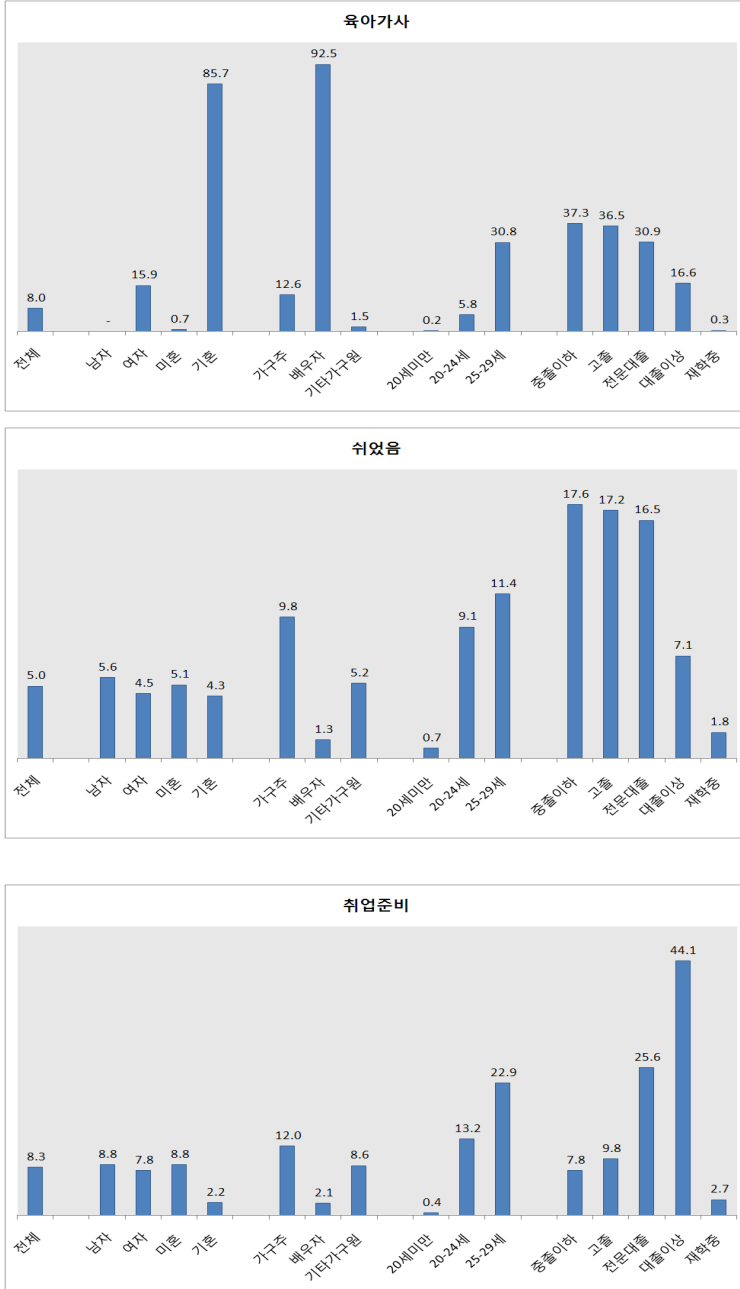
첫째, 20대 후반(30.8%), 여성(15.9%), 기혼(85.7%), 배우자(92.5%)는 육아가사 비중이 높다. 남성은 육아가사가 한 명도 없는데, 이는 청년층도 육아와 가사는 여성이 전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37.3%), 고졸(36.5%), 전문대졸(30.9%), 대졸이상(16.6%)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육아가사 비중이 높다.

둘째, 취업준비는 대졸이상(44.1%), 전문대졸(25.6%), 고졸(9.8%), 중졸이하(7.8%) 순으로 고학력층에 많다. 이에 비해 '쉬었음(백수)'은 중졸이하(17.6%), 고졸(17.2%), 전문대졸(16.5%), 대졸이상(7.1%) 순으로 저학력층에 많다. 특히 가구주(9.8%)와 20대 후반(11.4%) 연령층에서 '쉬었음'이 많은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업준비와 쉬었음 모두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로 판단된다.

셋째, 20대 후반 연령층은 육아가사가 37만명(30.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취업준비 27만명(22.9%), 교육 22만명(17.9%), 구직활동 17만 명(14.0%), 쉬었음 14만 명(11.4%) 순이다. 이 가운데 구직활동과 취업준비, 쉬었음을 합치면 58만 명(48.3%)이다. 따라서 20대 후반 연령층에서 비취업자(120만 명)의 절반은 사실상의 실업자로 판단된다.

[그림 3-2] 비취업자 활동상태

(2009년 5월, 15~29세 청년, 단위: %)



〈표 3-2〉 비취업자 활동상태

(2009년 5월, 15~29세 청년, 단위: 천명, %)

		비취업자	구직 활동	육아 가사	교육	취업 준비	백수	기타
수 (천명)	전체(청년)	5,746	281	460	4,112	475	290	128
	남자	2,864	161	0	2,202	251	159	91
	여자	2,883	121	459	1,911	224	130	38
	미혼	5,256	256	39	4,102	464	269	126
	기혼	489	25	419	11	11	21	2
	가구주	183	29	23	89	22	18	2
	배우자	386	9	357	5	8	5	2
	기타가구원	5,176	243	79	4,019	444	267	124
	20세미만	3,107	7	7	3,023	11	22	37
	20~24세	1,442	106	83	876	190	131	56
	25~29세	1,198	168	369	215	274	137	35
	중졸이하	102	4	38	17	8	18	17
	고졸	611	88	223	95	60	105	40
	전문대졸	363	83	112	7	93	60	8
대졸이상	451	75	75	59	199	32	11	
재학휴학중	4,219	31	12	3,934	115	75	52	
비율 (%)	전체(청년)	100.0	4.9	8.0	71.6	8.3	5.0	2.2
	남자	100.0	5.6	0.0	76.9	8.8	5.6	3.2
	여자	100.0	4.2	15.9	66.3	7.8	4.5	1.3
	미혼	100.0	4.9	0.7	78.0	8.8	5.1	2.4
	기혼	100.0	5.1	85.7	2.2	2.2	4.3	0.4
	가구주	100.0	15.8	12.6	48.6	12.0	9.8	1.1
	배우자	100.0	2.3	92.5	1.3	2.1	1.3	0.5
	기타가구원	100.0	4.7	1.5	77.6	8.6	5.2	2.4
	20세미만	100.0	0.2	0.2	97.3	0.4	0.7	1.2
	20~24세	100.0	7.4	5.8	60.7	13.2	9.1	3.9
	25~29세	100.0	14.0	30.8	17.9	22.9	11.4	2.9
	중졸이하	100.0	3.9	37.3	16.7	7.8	17.6	16.7
	고졸	100.0	14.4	36.5	15.5	9.8	17.2	6.5
	전문대졸	100.0	22.9	30.9	1.9	25.6	16.5	2.2
대졸이상	100.0	16.6	16.6	13.1	44.1	7.1	2.4	
재학휴학중	100.0	0.7	0.3	93.2	2.7	1.8	1.2	

2. 실증분석

가. 취업자 결정요인

<표 3-3>은 인적 속성(성, 혼인, 가구주 관계, 연령, 학력)을 설명변수로 하고, 비취업자 대비 취업자를 종속변수로 하여 취업자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다. 모든 연령을 분석 대상으로 한 <모형 1>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취업확률이 낮고, '전문대졸>중졸이하>대졸이상>고졸' 순으로 취업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청년층(15~29세)을 분석 대상으로 한 <모형 2>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확률이 높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만 유의미하게 높고 대졸이상과 고졸, 중졸이하 등 다른 학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표 3-3> 취업자 결정요인 로짓 분석 결과

(비취업자 기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전연령		15~29세		25~29세		15~29세		15~29세	
	남녀	남녀	남녀	남녀	남녀	남녀	남녀	남녀	남녀	남녀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0.464	0.000	0.184	0.002	0.091	0.299				
기혼	-0.375	0.000	-0.306	0.019	-0.245	0.104	0.579	0.012	-1.384	0.000
배우자	-1.493	0.000	-2.244	0.000	-2.388	0.000	-2.064	0.001	-0.761	0.000
기타가구원	-1.264	0.000	-1.172	0.000	-1.324	0.000	-1.217	0.000	-0.722	0.000
연령	0.211	0.000	1.491	0.000	2.666	0.025	1.331	0.000	1.674	0.000
연령제곱	-0.003	0.000	-0.028	0.000	-0.047	0.033	-0.024	0.000	-0.031	0.000
중졸이하	0.105	0.006	-0.270	0.116	-0.670	0.001	0.245	0.330	-0.598	0.019
고졸	-0.176	0.000	-0.024	0.767	-0.145	0.131	0.342	0.008	-0.242	0.024
전문대졸	0.235	0.000	0.433	0.000	0.363	0.000	0.642	0.000	0.292	0.006
재학중	-1.902	0.000	-1.459	0.000	-1.512	0.000	-1.242	0.000	-1.480	0.000
상수	-0.796	0.000	-17.89	0.000	-35.19	0.028	-17.17	0.000	-18.85	0.000
관측치	69,008		14,321		5,236		6,837		7,484	
로그우도비	-34,830		-6,163		-2,839		-2,703		-3,468	
모형설명력	0.253		0.365		0.124		0.414		0.320	

주: 설명변수는 남성, 미혼, 가구주, 대졸이상을 기준으로 했고, 가중치를 주고 분석했음.

<모형 3>은 남성이 군복무 등을 마친 20대 후반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했을 때의 분석 결과이다. <모형 1>, <모형 2>와 달리 남녀 취업확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순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청년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취업할 확률은 남성보다 낮지 않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의 취업확률이 가장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모형 4>와 <모형 5>는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남성은 취업확률이 '전문대졸>고졸>대졸이상≒중졸이하' 순이고, 청년 여성은 '전문대졸>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순으로 남성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학력별 취업확률은 남녀 모두 전문대졸이 가장 높고 중졸이하가 가장 낮으며, 대졸 남성은 고졸보다 낮고 대졸 여성은 고졸보다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3-4>에서 <모형 6> ~ <모형 10>은 학력별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의 계수값이 <모형 6>에서는 유의미한 부(-), <모형 7>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부(-), <모형 8>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정(+), <모형 9>에서는 유의미한 정(+)으로 학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대졸이상 고학력층은 여성의 취업확률이 남성보다 높지만 중졸이하 저학력층은 여성의 취업확률이 남성보다 낮으며, 고졸과 전문대졸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

<표 3-5>는 인적 속성(성, 혼인, 가구주관계, 연령, 학력)을 설명변수로 하여, 취업자 대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을 다항로짓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연령을 분석 대상으로 한 <모형 1>에서 실업자가 될 확률은 여성이 낮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확률은 여성이 높다. 실업자가 될 확률은 '고졸>중졸이하>전문대졸>대졸이상' 순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확률은 '고졸>대졸이상>중졸이하>전문대졸' 순이다.

이에 비해 청년층(15~29세)을 분석 대상으로 한 <모형 2>에서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확률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학력이

실업자가 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확률은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전문대졸' 순으로 높다.

<표 3-6>에서 <모형 3>과 <모형 4>는 남녀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다. <모형 3>에서 청년 남성은 실업자가 될 확률이 '대졸이상≒고졸>전문대졸>중졸이하' 순이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확률은 '대졸이상≒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 순이다. <모형 4>에서 청년 여성은 학력이 실업자가 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확률은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전문대졸' 순이다.

<표 3-4> 학력별 취업자 결정요인 로짓 분석 결과

(비취업자 기준, 15~29세 청년)

	<모형 6>		<모형 7>		<모형 8>		<모형 9>		<모형 10>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재학휴학중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0.645	0.043	-0.188	0.131	0.224	0.138	0.490	0.000	0.355	0.000
기혼	-0.048	0.904	-0.754	0.000	-0.065	0.838	-0.227	0.445	0.732	0.189
배우자	-2.171	0.000	-2.046	0.000	-2.792	0.000	-2.034	0.000	-1.387	0.059
기타가구원	-1.711	0.000	-1.407	0.000	-1.050	0.000	-1.260	0.000	-0.775	0.000
연령	0.420	0.288	1.509	0.000	0.554	0.237	1.076	0.126	2.081	0.000
연령제곱	-0.007	0.407	-0.028	0.000	-0.008	0.372	-0.018	0.187	-0.041	0.000
상수	-3.350	0.444	-16.69	0.000	-6.508	0.266	-14.23	0.118	-27.46	0.000
관측치	317		2,207		2,049		2,114		7,634	
로그우도비	-184		-1,255		-1,030		-1,189		-2,300	
모형설명력	0.161		0.142		0.086		0.052		0.217	

주: <표 3-3>과 같음.

<표 3-5>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 다항로짓 분석 결과
(취업자 기준)

	<모형 1>(전연령)				<모형 2>(청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0.326	0.000	0.578	0.000	-0.484	0.000	-0.124	0.047
기혼	-0.642	0.000	0.605	0.000	-0.327	0.252	0.464	0.001
배우자	0.150	0.190	1.588	0.000	0.603	0.157	2.425	0.000
기타가구원	0.751	0.000	1.357	0.000	0.837	0.000	1.253	0.000
연령	0.011	0.499	-0.229	0.000	0.172	0.456	-1.549	0.000
연령제곱	0.000	0.179	0.003	0.000	-0.005	0.329	0.029	0.000
중졸이하	0.406	0.000	-0.166	0.000	-0.618	0.209	0.408	0.023
고졸	0.485	0.000	0.132	0.000	0.119	0.448	0.023	0.793
전문대졸	0.214	0.049	-0.298	0.000	-0.061	0.701	-0.532	0.000
재학중	-0.041	0.821	2.093	0.000	-0.474	0.023	1.694	0.000
상수	-2.285	0.000	0.385	0.010	-3.267	0.227	18.068	0.000
관측치	69,008				14,321			
로그우도비	-39,214				-7,441			
모형설명력	0.258				0.357			

주: <표 3-3>과 같음.

<표 3-6>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 다항로짓 분석 결과

	<모형 3> (청년 남성)				<모형 4> (청년 여성)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기혼	-0.208	0.501	-0.862	0.005	-0.441	0.552	1.608	0.000
배우자	-0.011	0.992	2.699	0.000	0.567	0.478	0.790	0.000
기타가구원	0.967	0.000	1.298	0.000	0.637	0.053	0.738	0.000
연령	0.649	0.033	-1.406	0.000	-0.335	0.382	-1.735	0.000
연령제곱	-0.014	0.027	0.025	0.000	0.005	0.530	0.033	0.000
중졸이하	-1.046	0.042	-0.022	0.937	-0.045	0.959	0.654	0.014
고졸	-0.056	0.786	-0.414	0.005	0.225	0.367	0.253	0.025
전문대졸	-0.449	0.050	-0.726	0.000	0.256	0.258	-0.410	0.000
재학중	-0.582	0.021	1.500	0.000	-0.495	0.182	1.661	0.000
상수	-9.734	0.007	18.083	0.000	2.248	0.632	19.177	0.000
관측치	6,837				7,484			
로그우도비	-3,339				-4,009			
모형 설명력	0.404				0.327			

주: <표 3-3>과 같음. 취업자 기준

다.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

<표 3-7>은 비취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실업자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을 로짓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연령을 분석 대상으로 한 <모형 1>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확률은 여성, 기혼, 배우자가 높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 순이다.

청년층을 분석 대상으로 한 <모형 2>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확률은 여성, 기혼, 배우자가 남성, 미혼, 가구주보다 높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전문대졸’ 순으로 중졸이하 저학력층이 구직활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이는 그만큼 취업가능성이 낮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모형 3>에서 청년 남성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확률은 중졸이하에서 유의미하게 높고, <모형 4>에서 청년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확률은 전문대졸이 유의미하게 낮다.

<표 3-7>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 로짓 분석 결과

(실업자 대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전연령 남녀		청년 남녀		청년 남자		청년 여자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1.105	0.000	0.404	0.003				
기혼	0.302	0.011	0.709	0.017	-0.526	0.260	2.052	0.009
배우자	1.880	0.000	2.068	0.000	2.725	0.025	0.360	0.661
기타가구원	0.622	0.000	0.499	0.021	0.402	0.177	0.150	0.694
연령	-0.199	0.000	-1.557	0.000	-1.975	0.000	-1.241	0.001
연령제곱	0.003	0.000	0.030	0.000	0.038	0.000	0.024	0.002
중졸이하	-0.073	0.509	1.079	0.033	1.133	0.038	0.892	0.330
고졸	-0.213	0.020	-0.264	0.125	-0.424	0.070	-0.077	0.774
전문대졸	-0.616	0.000	-0.639	0.000	-0.314	0.228	-0.827	0.001
재학중	2.419	0.000	2.097	0.000	2.081	0.000	2.133	0.000
상수	2.310	0.000	19.553	0.000	26.803	0.000	15.069	0.001
관측치	28,380		8,920		4,379		4,541	
로그우도비	-4,605		-1,354		-682		-648	
모형설명력	0.263		0.314		0.360		0.281	

주 : <표 3-3>과 같음.

라. 비취업자의 활동상태 결정요인

<표 3-8>은 비취업자를 모집단으로 하고 구직활동을 기준변수로 하여 비취업자의 활동상태 결정요인을 다항로짓 분석한 결과이다.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육아가사를 주로 할 확률은 여성, 기혼이 유의미하게 높고,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전문대졸' 순으로 저학력층이 높다. 취업준비는 '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성과 혼인, 가구주관계와 연령은 백수(쉬었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학력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전문대졸' 순으로 백수 확률이 높다.

<표 3-8> 비취업자의 활동상태 결정요인 다항로짓 분석 결과

(15~29세 청년, 구직활동 기준)

	육아가사		교육		취업준비		쉬었음		기타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7.900	0.000	0.159	0.357	0.207	0.196	0.207	0.256	-0.522	0.031
기혼	3.649	0.000	-1.237	0.011	-1.659	0.012	0.318	0.442	-1.473	0.079
배우자	0.425	0.508	0.719	0.313	1.500	0.058	-0.093	0.900	2.442	0.018
기타가구원	-0.896	0.028	-0.395	0.190	0.417	0.159	0.571	0.078	0.867	0.094
연령	-1.126	0.034	-2.921	0.000	0.769	0.046	-0.329	0.365	-0.952	0.028
연령제곱	0.024	0.032	0.056	0.000	-0.016	0.043	0.006	0.447	0.016	0.098
중졸이하	2.698	0.003	-0.682	0.250	-0.251	0.662	2.112	0.000	2.402	0.000
고졸	0.980	0.003	-0.927	0.000	-1.280	0.000	0.945	0.001	0.501	0.180
전문대졸	0.323	0.320	-2.630	0.000	-0.936	0.000	0.432	0.120	-0.748	0.161
재학중	0.904	0.059	3.297	0.000	0.248	0.329	1.610	0.000	1.596	0.000
상수	-7.166	0.283	39.058	0.000	-6.923	0.143	2.553	0.551	13.437	0.007
관측치	8,920									
로그우도비	-4,241									
모형설명력	0.538									

주: <표 3-3>과 같음.

<표 3-9>는 남녀를 구분하여 비취업자의 활동상태 결정요인을 다항로짓 분석한 결과다. 남성은 대졸이상에서 취업준비가 유의미하게 높고, 고졸이하에서 쉬었음이 유의미하게 높다. 여성은 기혼자와 고졸이하에서 육아가사가 유의미하게 높고, 취업준비는 대졸이상, 쉬었음은 고졸에서 유의미하게 높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비취업자의 활동상태는 성과 학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고학력층 남녀는 취업준비, 저학력층 여성은 육아가사, 저학력층 남성은 백수 확률이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3-9> 비취업자의 활동상태 결정요인 다항로짓분석 결과

(15~29세 청년, 구직활동 기준)

	남 성						여 성					
	취업준비		쉬었음		육아가사		취업준비		쉬었음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기혼	-2.271	0.047	0.159	0.748	3.953	0.000	-0.718	0.467	0.530	0.567		
배우자	3.696	0.032	2.351	0.166	-0.170	0.853	0.384	0.739	-0.504	0.686		
기타가구원	0.500	0.236	0.210	0.580	-0.955	0.055	0.163	0.716	1.109	0.094		
연령	0.850	0.175	-0.823	0.103	-0.858	0.170	1.350	0.025	0.053	0.927		
연령제곱	-0.016	0.200	0.015	0.165	0.019	0.154	-0.030	0.019	0.000	0.981		
중졸이하	-0.046	0.943	2.444	0.000	2.442	0.053	-0.401	0.689	1.615	0.113		
고졸	-1.242	0.000	0.942	0.015	1.020	0.007	-1.235	0.000	1.068	0.006		
전문대졸	-0.522	0.069	0.452	0.295	0.178	0.616	-1.275	0.000	0.405	0.275		
재학중	0.317	0.322	1.930	0.000	0.690	0.214	0.261	0.532	1.192	0.017		
상수	-8.297	0.295	9.781	0.100	4.948	0.522	-13.24	0.068	-3.235	0.643		
관측치	4,379						4,541					
로그우도비	-2,188						-1,971					
모형설명력	0.411						0.603					

주: <표 3-3>과 같음. 교육, 기타 등의 분석결과는 생략했음.

3. 소 결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5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 3.8%보다 두 배 높다. 청년

고용률은 41.3%로 전체 고용률 59.3%에 크게 못 미친다. 학력별 실업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고용률은 전문대졸(76.1%)이 가장 높고 대졸이상(72.0%), 고졸(62.3%), 중졸이하(48.6%) 순이다.

둘째, 청년 비취업자 575만 명 가운데 재학생 411만 명을 제외한 유휴인력은 163만 명이다. 청년 유휴화율은 16.7%로, 학력별로는 중졸이하(42.7%), 고졸(31.8%), 전문대졸(23.5%), 대졸이상(24.4%) 순으로 저학력층에서 높다.

셋째, 유휴인력의 활동상태는 취업준비가 48만 명, 육아가사가 46만 명, 백수(쉬었음)가 29만 명, 구직활동이 28만 명이다. 취업준비는 학력이 높을수록 많고, 육아가사와 백수는 저학력층에 많다. 취업준비와 백수 모두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실상의 실업자로 해석된다.

넷째,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청년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확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높다. 학력별로 청년 노동시장을 구분하면, 대졸이상에서는 여성의 취업확률이 높고, 중졸이하에서는 남성의 취업확률이 높으며, 고졸과 전문대졸은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다섯째, 비취업자를 모집단으로 하고 실업자를 기준변수로 하여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을 로짓 분석하면, 여성, 기혼, 배우자가 남성, 미혼, 가구주보다 비경제활동인구 확률이 높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전문대졸' 순으로 중졸이하 저학력층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그만큼 저학력층의 취업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구직활동을 기준변수로 하고 남녀를 구분하여 비취업자의 활동상태 결정요인을 다항로짓 분석하면, 남성 대졸이상은 취업준비, 고졸이하의 쉬었음이 유의미하게 높다. 여성은 기혼자와 고졸이하에서 육아가사가 높고, 취업준비는 대졸이상, 쉬었음은 고졸에서 높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비취업자의 활동상태는 성과 학력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고학력층 남녀는 취업준비, 저학력층 여성은 육아가사, 저학력층 남성은 백수 확률이 높다.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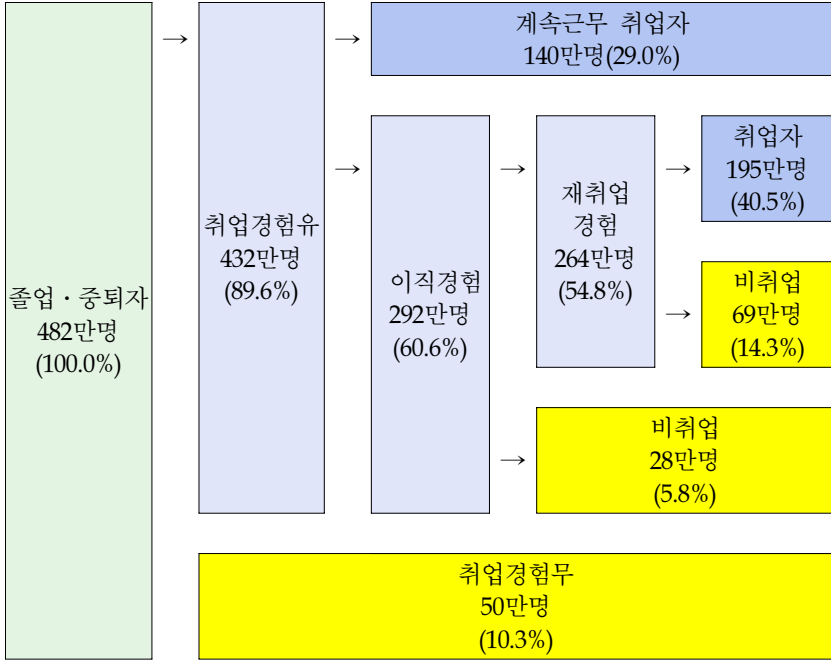
취업과 이직실태

1. 개 괄

이 장에서는 200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청년 노동시장에서 취업 및 이직실태를 살펴본다. 2009년 5월 현재 청년층(15~29세) 979만 명 가운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484만 명이고,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사람은 482만 명이다.

이들 졸업·중퇴자 가운데 한 번이라도 취업을 경험한 사람은 432만 명(89.6%)이고, 한 번도 취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50만 명(10.3%)이다. 취업 후 첫 일자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40만 명(29.0%)이고, 한 번이라도 이직을 경험한 사람은 292만 명(60.6%)이다. 이들 이직자 가운데 현재 취업 중인 사람은 195만 명(40.5%)이고, 일자리를 갖지 못한 비취업자는 97만 명(20.1%)이다. 따라서 취업자 235만 명 가운데 이직경험이 있는 사람은 195만 명이고 이직경험이 없는 사람은 140만 명이며, 비취업자 147만 명 가운데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은 50만 명이고, 이직 후 재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은 28만 명, 재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은 69만 명이다(그림 4-1 참조).

[그림 4-1] 졸업·중퇴자의 취업 및 이직실태 개괄



2. 직업교육(훈련)과 직장체험

가. 직업교육(훈련)

청년 979만 명 가운데 취업을 위하여 학원에 다니거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4만 명(15.8%)이다. 재학생을 제외하고 졸업·중퇴자로 대상을 한정하면,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5만 명(25.3%)으로 4명 중 1명꼴이다. 학력별로 대졸이상은 31.1%, 전문대졸은 23.9%, 고졸은 22.3%, 중졸이하는 12.5%로,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많다.

직업훈련기관은 사설학원이 6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민간직업전문학교 등)이 11.6%, 공공단체운영훈련기관(산업인력관리공단, 기능대학, 상공회의소 등)이 8.5% 순이다. 사설학원은 특히 대졸이상에 많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공공단체운영훈련기

관은 저학력층에 많다(표 4-1 참조).

나. 직장체험

청년 979만 명 가운데 학교 다닐 때 직장체험(취업 포함)을 경험한 사람이 379만명(38.7%)이다. 재학생을 제외하고 졸업·중퇴자로 대상을 제한하면, 학교 다닐 때 직장을 체험한 사람이 240만 명(48.6%)으로 2명 중 1명꼴이다. 학력별로 대졸이상은 62.0%, 전문대졸은 57.4%, 고졸은

〈표 4-1〉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직업훈련경험과 훈련기관(청년)

		전체	직업 훈련 경험 있음	직업훈련기관(직업훈련 경험=100)							
				공공 단체 운영 훈련 기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법인	비영 리법 인단 체	대학 대학 원	평생 교육 시설	사설 학원	사업 주사 업주 단체	기타
수 (천명)	취업자	4,044	927	86	116	44	38	8	581	39	15
	실업자	334	85	8	9	1	2	1	58	3	3
	비경활인구	5,414	531	37	54	24	9	5	374	14	14
	중졸이하	200	25	5	6				13	1	1
	고졸	1,622	362	51	78	4		1	210	16	3
	전문대졸	1,518	363	43	50	28	11	5	201	17	8
	대졸이상	1,605	499	21	29	25	27	7	370	12	8
	재학중	4,844	293	12	17	12	11	1	220	11	11
전체	9,792	1,543	131	179	69	49	14	1,013	56	32	
비율 (%)	취업자	100.0	22.9	9.3	12.5	4.7	4.1	0.9	62.7	4.2	1.6
	실업자	100.0	25.4	9.4	10.6	1.2	2.4	1.2	68.2	3.5	3.5
	비경활인구	100.0	9.8	7.0	10.2	4.5	1.7	0.9	70.4	2.6	2.6
	중졸이하	100.0	12.5	20.0	24.0				52.0	4.0	4.0
	고졸	100.0	22.3	14.1	21.5	1.1		0.3	58.0	4.4	0.8
	전문대졸	100.0	23.9	11.8	13.8	7.7	3.0	1.4	55.4	4.7	2.2
	대졸이상	100.0	31.1	4.2	5.8	5.0	5.4	1.4	74.1	2.4	1.6
	재학중	100.0	6.0	4.1	5.8	4.1	3.8	0.3	75.1	3.8	3.8
전체	100.0	15.8	8.5	11.6	4.5	3.2	0.9	65.7	3.6	2.1	

〈표 4-2〉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직장체험 여부와 주된 형태(청년)

		전체	했음	주된 형태(직장체험=100)				
				전일제 취업	시간제 아르바 이트	학교현장 실습참여	기업인 턴 사원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수 (천명)	취업자	4,044	2,260	510	1,203	406	99	42
	실업자	334	188	34	128	17	9	-
	비경활인구	5,414	1,340	240	915	138	26	21
	중졸이하	200	32	8	23	1	-	-
	고졸	1,622	505	114	236	136	13	6
	전문대졸	1,518	872	175	422	234	34	7
	대졸이상	1,605	995	183	576	128	71	37
	재학중	4,844	1,381	303	989	63	14	12
	전체	9,792	3,788	784	2,246	561	134	63
비율 (%)	취업자	100.0	55.9	22.6	53.2	18.0	4.4	1.9
	실업자	100.0	56.3	18.1	68.1	9.0	4.8	-
	비경활인구	100.0	24.8	17.9	68.3	10.3	1.9	1.6
	중졸이하	100.0	16.0	25.0	71.9	3.1	-	-
	고졸	100.0	31.1	22.6	46.7	26.9	2.6	1.2
	전문대졸	100.0	57.4	20.1	48.4	26.8	3.9	0.8
	대졸이상	100.0	62.0	18.4	57.9	12.9	7.1	3.7
	재학중	100.0	28.5	21.9	71.6	4.6	1.0	0.9
	전체	100.0	38.7	20.7	59.3	14.8	3.5	1.7

31.1%, 중졸이하는 16.0%로, 학력이 높을수록 직장체험자가 많다.

직장체험의 주된 형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5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전일제 취업이 20.7%, 학교현장실습 참여가 14.8%, 기업인턴사원이 3.9%,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1.7% 순이다. 학교현장실습 참여는 고졸(26.9%)과 전문대졸(26.8%)이 많고, 대졸이상은 기업인턴사원(7.1%)과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3.7%)이 많다(표 4-2 참조). 직장체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26.6%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22.9%다. 여기에 '1개월 미만'(12.3%)을 합치면 6개월 미만의 단기 프로그램이 61.8%다(표 4-3 참조).

〈표 4-3〉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직장체험 기간(청년)

		전체	했음	직장체험기간(직장체험 경험=100)					
				4,044	보름~1 월미만	1~3월 미만	3~6월 미만	6월~1 년미만	1년 이상
수 (천명)	취업자	4,044	2,260	77	158	523	520	462	520
	실업자	334	188	5	11	46	48	35	43
	비경활인구	5,414	1,340	82	134	439	301	222	162
	중졸이하	200	32	-	6	7	6	2	11
	고졸	1,622	505	20	32	105	159	95	95
	전문대졸	1,518	872	36	94	231	191	163	157
	대졸이상	1,605	995	28	55	245	226	237	204
	재학중	4,844	1,381	81	116	419	286	223	257
	전체	9,792	3,788	164	303	1,008	869	719	725
	비율 (%)	취업자	100.0	55.9	3.4	7.0	23.1	23.0	20.4
실업자		100.0	56.3	2.7	5.9	24.5	25.5	18.6	22.9
비경활인구		100.0	24.8	6.1	10.0	32.8	22.5	16.6	12.1
중졸이하		100.0	16.0	-	18.8	21.9	18.8	6.3	34.4
고졸		100.0	31.1	4.0	6.3	20.8	31.5	18.8	18.8
전문대졸		100.0	57.4	4.1	10.8	26.5	21.9	18.7	18.0
대졸이상		100.0	62.0	2.8	5.5	24.6	22.7	23.8	20.5
재학중		100.0	28.5	5.9	8.4	30.3	20.7	16.1	18.6
전체		100.0	38.7	4.3	8.0	26.6	22.9	19.0	19.1

다. 직업교육(훈련)과 직장체험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표 4-4>에서 <모형 1>은 성, 혼인, 가구주 관계, 연령, 학력을 통제 한 상태에서 직업교육(훈련)과 직장체험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 분석한 결과이고, <모형 2> ~ <모형 5>는 학력별로 직업교육(훈련)과 직장체험이 미치는 영향을 로짓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에서 직업교육은 취업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직장체험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력별로 중졸이하와 고졸에서 직업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지만,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에서는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장체험은 전문대졸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학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표 4-4> 직업교육과 직장체험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로짓 분석 결과
(청년 졸업·중퇴자)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0.112	0.134	-0.651	0.044	-0.195	0.118	0.231	0.127	0.540	0.000
기혼	-0.453	0.001	-0.056	0.889	-0.759	0.000	-0.106	0.746	-0.253	0.405
배우자	-2.242	0.000	-2.105	0.000	-2.039	0.000	-2.822	0.000	-2.034	0.000
기타가구원	-1.308	0.000	-1.615	0.000	-1.403	0.000	-1.054	0.000	-1.254	0.000
연령	0.906	0.000	0.420	0.306	1.491	0.000	0.528	0.262	1.133	0.110
연령제곱	-0.016	0.000	-0.007	0.424	-0.028	0.000	-0.008	0.419	-0.019	0.168
중졸이하	-0.273	0.112								
고졸	-0.042	0.626								
전문대졸	0.421	0.000								
직업교육	-0.284	0.000	-0.032	0.938	-0.031	0.817	-0.399	0.004	-0.480	0.000
직장체험	0.164	0.015	0.158	0.695	0.136	0.250	0.320	0.010	0.090	0.446
상수	-10.40	0.000	-3.371	0.459	-16.50	0.000	-6.365	0.279	-15.04	0.102
관측치	6,675		305		2,207		2,049		2,114	
LL	-3,677		-178		-1,254		-1,022		-1,179	
모형 설명력	0.108		0.157		0.142		0.093		0.060	

주: 가중치를 주고 분석한 결과임.

<표 4-5>는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직장체험 형태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로짓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가운데 사설학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 <모형 2> ~ <모형 4>에서 고졸은 비영리법인단체,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은 사설학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기관에서 직업교육이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모형 1>에서 직장체험 형태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교 현장실습참여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직장체험 형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다. <모형 2> ~ <모형 4>에서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교현

장실습참여는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고졸,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전문대졸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4-5〉 직업교육기관과 직장체험 형태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청년 졸업·중퇴자)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0.105	0.164	-0.688	0.035	-0.236	0.064	0.198	0.195	0.557	0.000
기혼	-0.460	0.001	-0.162	0.690	-0.783	0.000	-0.058	0.859	-0.304	0.321
배우자	-2.262	0.000	-2.039	0.000	-2.080	0.000	-2.842	0.000	-2.056	0.000
기타가구원	-1.308	0.000	-1.600	0.000	-1.429	0.000	-1.052	0.000	-1.248	0.000
연령	0.895	0.000	0.395	0.330	1.486	0.000	0.592	0.215	1.069	0.137
연령제공	-0.015	0.000	-0.006	0.490	-0.028	0.000	-0.009	0.354	-0.018	0.203
중졸이하	-0.342	0.044								
고졸	-0.063	0.471								
전문대졸	0.396	0.000								
공공단체운영	-0.283	0.138	-0.082	0.911	-0.513	0.070	-0.504	0.146	0.504	0.300
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	-0.233	0.183	-0.602	0.516	-0.114	0.654	-0.613	0.074	-0.154	0.713
훈련법인										
비영리법인단체	-0.449	0.122			-2.535	0.014	-0.102	0.811	-0.645	0.176
대학대학원	0.416	0.285					-0.038	0.953	0.412	0.351
평생교육시설	-0.693	0.172					-0.653	0.293	-0.488	0.521
사설학원	-0.309	0.001	0.408	0.449	0.226	0.206	-0.429	0.014	-0.614	0.000
사업주사업주단체	-0.230	0.477			-0.676	0.166	0.037	0.948	-0.366	0.649
기타	-0.418	0.370			0.221	0.768	-0.350	0.597	-0.306	0.750
전일제	0.112	0.316	-0.547	0.348	0.177	0.376	0.029	0.885	0.206	0.291
시간제	0.012	0.886	0.694	0.154	-0.151	0.362	0.355	0.019	-0.134	0.305
학교현장실습										
참여	0.573	0.000	-1.474	0.322	0.677	0.000	0.535	0.007	0.595	0.008
기업인턴사원	0.325	0.218			0.074	0.907	-0.382	0.414	0.875	0.028
직장체험										
프로그램	0.534	0.073			2.076	0.027			0.082	0.811
상수	-10.22	0.000	-3.269	0.465	-16.29	0.000	-7.178	0.230	-14.12	0.130
관측치	6,687		312		2,205		2,038		2,114	
LL	-3,667		-179		-1,238		-1,014		-1,161	
모형 설명력	0.113		0.174		0.153		0.098		0.074	

주: 가중치를 주고 분석한 결과임.

3. 취업경험과 취업횟수

가. 취업경험과 취업횟수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청년 482만 명 가운데 한 번이라도 취업을 경험한 사람은 432만 명(89.6%)이고, 취업을 경험하지 못한 미취업자가 50만 명(10.3%)이다. 학력별 취업횟수는 중졸과 고졸이하가 각각 2.3회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은 2.0회, 대졸이상은 1.4회로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횟수가 많다. 취업 1회는 '대졸이상(52.5%)>전문대졸(36.6%)>고졸(20.1%)>중졸이하(11.4%)'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고, 취업횟수 4회 이상은 '중졸이하(39.9%)>고졸(25.9%)>전문대졸(10.7%)>대졸이상(3.4%)'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다(표 4-6 참조).

〈표 4-6〉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취업경험과 취업횟수

(청년, 졸업·중퇴자=100)

		전체	없음	있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평균 횟수
수 (천명)	취업자	3,351	0	3,349	1,401	797	650	501	2.08
	실업자	286	74	211	47	47	59	58	1.93
	비경활인구	1,186	423	762	237	212	162	151	1.48
	중졸이하	193	44	149	22	32	18	77	2.32
	고졸	1,622	173	1,449	326	325	378	420	2.34
	전문대졸	1,518	82	1,436	556	392	325	163	1.95
	대졸이상	1,486	198	1,289	780	308	150	51	1.38
	전체	4,823	497	4,322	1,685	1,056	871	710	1.92
비율 (%)	취업자	100.0	0.0	100.0	41.8	23.8	19.4	15.0	
	실업자	100.0	25.9	73.8	16.4	16.4	20.6	20.3	
	비경활인구	100.0	35.7	64.2	20.0	17.9	13.7	12.7	
	중졸이하	100.0	22.8	77.2	11.4	16.6	9.3	39.9	
	고졸	100.0	10.7	89.3	20.1	20.0	23.3	25.9	
	전문대졸	100.0	5.4	94.6	36.6	25.8	21.4	10.7	
	대졸이상	100.0	13.3	86.7	52.5	20.7	10.1	3.4	
	전체	100.0	10.3	89.6	34.9	21.9	18.1	14.7	

나.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표 4-7>은 인적속성(성, 혼인, 가구주 관계, 연령, 학력)을 설명변수로 하고, 취업횟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포아송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졸업·중퇴 연도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 1>은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횟수가 많다. 그렇지만 졸업·중퇴 연도를 통제한 <모형 2>는 대졸이상만 취업횟수가 적을 뿐, 전문대졸이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 밖에 여성은 남성보다, 가구주는 기타 가구원이나 배우자보다 취업횟수가 많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취업횟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불안정해 이직이 잦음을 의미한다.

<표 4-7> 취업경험횟수 결정요인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청년, 졸업·중퇴자)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남녀		남녀		남자		여자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0.162	0.000	0.073	0.000				
기혼	-0.004	0.892	-0.019	0.478	0.014	0.700	-0.068	0.131
배우자	-0.136	0.000	-0.133	0.000	0.117	0.517	-0.085	0.086
기타가구원	-0.079	0.000	-0.066	0.001	-0.047	0.127	-0.064	0.017
연령	0.686	0.000	0.598	0.000	0.560	0.000	0.623	0.000
연령제곱	-0.012	0.000	-0.012	0.000	-0.011	0.000	-0.012	0.000
중졸이하	0.845	0.000	0.170	0.008	0.423	0.000	-0.025	0.803
고졸	0.663	0.000	0.238	0.000	0.348	0.000	0.194	0.000
전문대졸	0.415	0.000	0.245	0.000	0.321	0.000	0.205	0.000
졸업중퇴연도			-0.083	0.000	-0.074	0.000	-0.087	0.000
상수	-9.587	0.000	159.4	0.000	140.8	0.000	166.4	0.000
관측치	6,525		6,525		2,721		3,804	
LL	-7,245		-7,175		-3,107		-4,061	

주: 가중치를 주고 분석한 결과임.

4. 구직방법과 기간

가. 구직방법·경로

청년 취업자들이 일자리를 얻는 주된 방법이나 경로는 ‘연고를 통한 소개/추천’(42.4%)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신문, 잡지, 인터넷, 벽보 등을 보고 응모’(29.8%), (공개)채용시험(18.0%), 회사특별채용(3.5%), 직업소개기관(3.3%) 순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공개)채용시험 비중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연고채용 비중이 높다(표 4-8 참조).

〈표 4-8〉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구직방법·경로

(청년)

		전체	공개 채용 시험	회사 특별 채용	신문 잡지 인터넷 벽보 응모	연고				직업소개기관			
						소계	학교 학원 선생 소개 추천	가족 친지 소개 추천	직장 근무 자 소개 추천	소계	공공 직업 알선 기관	민간 직업 알선 기관	학교 취업 소개 기관
()	취업자	3,349	702	121	931	1,375	270	695	410	111	47	22	42
	실업자	202	19	14	79	81	20	47	14	4	1	2	1
	비경제활동인구	769	55	15	276	377	66	223	88	26	8	5	13
	중졸이하	149	2	2	54	81	1	62	18	6	3	3	
	고졸	1,447	76	41	462	762	101	452	209	44	17	15	12
	전문대졸	1,435	217	49	495	589	137	273	179	50	20	7	23
	대졸이상	1,287	481	58	276	400	117	177	106	41	16	4	21
전체	4,320	776	150	1,286	1,833	356	965	512	141	56	29	56	
()	취업자	100.0	21.0	3.6	27.8	41.1	8.1	20.8	12.2	3.3	1.4	0.7	1.3
	실업자	100.0	9.4	6.9	39.1	40.1	9.9	23.3	6.9	2.0	0.5	1.0	0.5
	비경제활동인구	100.0	7.2	2.0	35.9	49.0	8.6	29.0	11.4	3.4	1.0	0.7	1.7
	중졸이하	100.0	1.3	1.3	36.2	54.4	0.7	41.6	12.1	4.0	2.0	2.0	
	고졸	100.0	5.3	2.8	31.9	52.7	7.0	31.2	14.4	3.0	1.2	1.0	0.8
	전문대졸	100.0	15.1	3.4	34.5	41.0	9.5	19.0	12.5	3.5	1.4	0.5	1.6
	대졸이상	100.0	37.4	4.5	21.4	31.1	9.1	13.8	8.2	3.2	1.2	0.3	1.6
전체	100.0	18.0	3.5	29.8	42.4	8.2	22.3	11.9	3.3	1.3	0.7	1.3	

나. 구직기간

취업 후 이직한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소요된 구직기간은 평균 7.3개월이다. 졸업후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드는 기간은 전문대졸이 4.0개월, 대졸이상 4.4개월인데, 고졸은 9.8개월, 중졸이하 20.2개월로 학력이 낮을수록 구직기간이 길다.

구직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졸업 전 취업이 13.9%이고 졸업 후 3개월 이내 취업이 41.4%이다. 그렇지만 구직기간 1년 이상도 22.0%나 된다. 졸업 전 취업은 대졸이상(17.9%), 전문대졸(15.9%), 고졸(11.4%), 중졸이하(3.0%) 순이고, 졸업 후 3개월 이내 취업은 전문대졸(45.5%), 대졸이상(44.5%), 고졸(37.8%), 중졸이하(29.9%)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조기취업자가 많다. 이에 비해 구직기간 1년 이상은 대졸이상(13.9%), 전문대졸(16.2%), 고졸(28.1%), 중졸이하(43.3%)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다 (표 4-10 참조).

〈표 4-9〉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첫 일자리 구직기간

(청년, 이직경험자=100)

	관측치	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
취업자	1,948	7.3	2.0	16.1
실업자	211	6.0	1.0	16.5
비경제활동인구	762	7.5	2.0	16.5
중졸이하	136	20.2	8.0	27.6
고졸	1,217	9.8	3.0	17.6
전문대졸	956	4.0	1.0	13.1
대졸이상	611	4.4	1.0	11.6
전 체	2,921	7.3	2.0	16.3

〈표 4-10〉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구직기간 분포

(청년, 졸업·중퇴자=100)

		전체	졸업전	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	
				소계	3월 미만	3~6월 미만	6~9월 미만			9~12월 미만
수 (천명)	취업자	1,956	280	1,239	804	259	111	65	191	246
	실업자	213	31	138	96	23	15	4	19	25
	비경활인구	760	98	494	307	111	52	24	89	79
	중졸이하	134	4	72	40	14	11	7	20	38
	고졸	1,216	139	735	460	168	69	38	144	198
	전문대졸	956	152	649	435	129	61	24	86	69
	대졸이상	609	109	415	271	82	38	24	47	38
	전 체	2,915	404	1,871	1,206	393	179	93	297	343
	비율 (%)									
	취업자	100.0	14.3	63.3	41.1	13.2	5.7	3.3	9.8	12.6
	실업자	100.0	14.6	64.8	45.1	10.8	7.0	1.9	8.9	11.7
	비경활인구	100.0	12.9	65.0	40.4	14.6	6.8	3.2	11.7	10.4
	중졸이하	100.0	3.0	53.7	29.9	10.4	8.2	5.2	14.9	28.4
	고졸	100.0	11.4	60.4	37.8	13.8	5.7	3.1	11.8	16.3
	전문대졸	100.0	15.9	67.9	45.5	13.5	6.4	2.5	9.0	7.2
	대졸이상	100.0	17.9	68.1	44.5	13.5	6.2	3.9	7.7	6.2
	전 체	100.0	13.9	64.2	41.4	13.5	6.1	3.2	10.2	11.8

5. 취업경험자의 첫 일자리

가. 고용형태

취업을 경험한 청년들의 첫 일자리는 97%가 임금노동이다. 계약기간 기준으로 상용일자리(고용계약을 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60.7%고,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가 20.1%,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시적 일자리가 16.2%이다. 근무시간 기준으로 풀타임은 84.5%이고 파트타임은 12.6%이며, 풀타임 상용 일자리는 249만 명(57.5%)이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 기간제, 풀타임 비중이 높고, 학력수준이

〈표 4-11〉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첫 일자리 고용형태
(청년, 취업경험자=100)

		취업 경험자	비임금 근로	임금 노동	상용 일자리	기간제	일시 적일 자리	플타임	파트 타임	플타임 상용직
수 (천명)	취업자	3,349	107	3,242	2,097	652	493	2,863	379	1,990
	실업자	211	2	210	104	58	48	172	38	95
	비경활인구	762	20	742	422	160	160	616	127	398
	중졸이하	149	4	146	59	20	67	88	57	47
	고졸	1,449	54	1,395	830	241	324	1,173	223	780
	전문대졸	1,435	24	1,411	915	299	197	1,266	145	871
	대졸이상	1,289	46	1,242	820	309	113	1,124	119	787
	전 체	4,322	129	4,194	2,623	870	701	3,651	544	2,485
비율 (%)	취업자	100.0	3.2	96.8	62.6	19.5	14.7	85.5	11.3	59.4
	실업자	100.0	0.9	99.5	49.3	27.5	22.7	81.5	18.0	45.0
	비경활인구	100.0	2.6	97.4	55.4	21.0	21.0	80.8	16.7	52.2
	중졸이하	100.0	2.7	98.0	39.6	13.4	45.0	59.1	38.3	31.5
	고졸	100.0	3.7	96.3	57.3	16.6	22.4	81.0	15.4	53.8
	전문대졸	100.0	1.7	98.3	63.8	20.8	13.7	88.2	10.1	60.7
	대졸이상	100.0	3.6	96.4	63.6	24.0	8.8	87.2	9.2	61.1
	전 체	100.0	3.0	97.0	60.7	20.1	16.2	84.5	12.6	57.5

낮을수록 임시직과 파트타임 비중이 높다. 대졸이상과 전문대졸은 61%가 플타임 상용직인데, 고졸은 54%, 중졸이하는 32%만 플타임 상용직으로, 학력에 따라 고용형태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표 4-11 참조).

나. 산업

취업 후 이직한 청년들은 학력이 낮을수록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 비중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 금융, 기타서비스업과 운수통신업 비중이 높다(표 4-12 참조).

〈표 4-12〉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첫 일자리 산업

(청년, 이직경험자=100)

		전산업	광업 제조업	기타재 화생산	도소매 숙박음 식점업	운수 통신업	금융 보험업	교육서 비스업	기타서 비스업
수 (천명)	취업자	1,948	364	166	537	167	58	280	376
	실업자	211	52	25	45	20	8	24	37
	비경활인구	762	140	48	223	44	22	118	167
	중졸이하	136	38	12	61	2		11	12
	고졸	1,217	320	100	440	67	15	73	202
	전문대졸	958	136	77	215	90	36	157	247
	대졸이상	612	62	52	89	72	36	182	119
	전 체	2,923	556	241	805	231	87	423	580
비율 (%)	취업자	100.0	18.7	8.5	27.6	8.6	3.0	14.4	19.3
	실업자	100.0	24.6	11.8	21.3	9.5	3.8	11.4	17.5
	비경활인구	100.0	18.4	6.3	29.3	5.8	2.9	15.5	21.9
	중졸이하	100.0	27.9	8.8	44.9	1.5	-	8.1	8.8
	고졸	100.0	26.3	8.2	36.2	5.5	1.2	6.0	16.6
	전문대졸	100.0	14.2	8.0	22.4	9.4	3.8	16.4	25.8
	대졸이상	100.0	10.1	8.5	14.5	11.8	5.9	29.7	19.4
	전 체	100.0	19.0	8.2	27.5	7.9	3.0	14.5	19.8

다. 직업

중졸이하는 10명 중 9명이 판매서비스직(52.9%)과 단순노무직(36.0%)이고, 대졸이상은 사무관리전문직(73.7%)과 판매서비스직(20.9%)이 대부분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관리전문직 비중이 높고, 학력이 낮으면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다(표 4-13 참조).

〈표 4-13〉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첫 일자리 산업

(청년, 이직경험자=100)

		전직업	사무관리 전문직	판매 서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수 (천명)	취업자	1,950	755	721	296	178
	실업자	213	85	64	42	22
	비경활인구	761	334	282	71	74
	중졸이하	136	1	72	14	49
	고졸	1,216	257	534	259	166
	전문대졸	956	462	332	116	46
	대졸이상	613	452	128	21	12
	전 체	2,921	1,172	1,066	410	273
비율 (%)	취업자	100.0	38.7	37.0	15.2	9.1
	실업자	100.0	39.9	30.0	19.7	10.3
	비경활인구	100.0	43.9	37.1	9.3	9.7
	중졸이하	100.0	0.7	52.9	10.3	36.0
	고졸	100.0	21.1	43.9	21.3	13.7
	전문대졸	100.0	48.3	34.7	12.1	4.8
	대졸이상	100.0	73.7	20.9	3.4	2.0
	전 체	100.0	40.1	36.5	14.0	9.3

라. 근속기간

취업 후 이직한 청년들이 첫 일자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16.1개월이다. 학력별로 고졸은 17.2개월, 전문대졸은 16.3개월, 대졸이상은 14.7개월, 중졸이하는 11.4개월이다.

〈표 4-14〉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첫 일자리 근속기간

(청년, 이직경험자=100)

	관측치	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
취업자	1,948	15.7	11.0	15.5
실업자	211	16.7	10.0	18.7
비경활인구	762	16.9	11.0	18.8
중졸이하	136	11.4	6.0	15.0
고졸	1,217	17.2	12.0	18.4
전문대졸	956	16.3	12.0	16.4
대졸이상	611	14.7	11.0	13.2
전 체	2,921	16.1	11.0	16.7

근속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1년 미만이 50.8%로 절반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26.5%, 2년 이상이 22.8%이다. 중졸이하는 1년 미만 단기근속자가 69.9%이고, 2년 이상 근속자는 12.8%로, 다른 학력에 비해 근속기간이 매우 짧다(표 4-15 참조).

〈표 4-15〉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근속기간 분포

(청년, 졸업·중퇴자=100)

	전체	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
		소계	3월 미만	3~6월 미만	6~9월 미만	9~12월 미만		
취업자	1,944	985	181	294	290	220	537	422
실업자	213	112	28	33	32	19	45	56
비경활인구	761	384	95	134	87	68	195	182
중졸이하	133	93	30	32	23	8	23	17
고졸	1,218	604	113	177	177	137	319	295
전문대졸	959	466	95	158	121	92	273	220
대졸이상	612	320	67	94	88	71	159	133
전 체	2,922	1,483	305	461	409	308	774	665
취업자	100.0	50.7	9.3	15.1	14.9	11.3	27.6	21.7
실업자	100.0	52.6	13.1	15.5	15.0	8.9	21.1	26.3
비경활인구	100.0	50.5	12.5	17.6	11.4	8.9	25.6	23.9
중졸이하	100.0	69.9	22.6	24.1	17.3	6.0	17.3	12.8
고졸	100.0	49.6	9.3	14.5	14.5	11.2	26.2	24.2
전문대졸	100.0	48.6	9.9	16.5	12.6	9.6	28.5	22.9
대졸이상	100.0	52.3	10.9	15.4	14.4	11.6	26.0	21.7
전 체	100.0	50.8	10.4	15.8	14.0	10.5	26.5	22.8

마. 이직사유

첫 일자리를 이직한 사람들의 이직사유는, 직장에 대한 불만이 6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개인사정이 19.1%, 경영상 이유가 15.7% 순이다. 직장에 대한 불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이 4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직장이 나 하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가 9.6%,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가 6.6% 순이다(표 4-16 참조).

〈표 4-16〉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첫 일자리 이직사유 (청년, 이직경험자=100)

		이직경험	직장 불만	개인사정	경영상 이유
수 (천명)	취업자	1,950	1,314	293	296
	실업자	212	113	36	54
	비경활인구	762	405	229	108
	중졸이하	136	85	32	18
	고졸	1,217	742	253	183
	전문대졸	957	652	150	140
	대졸이상	611	352	123	117
	전 체	2,925	1,832	558	458
비율 (%)	취업자	100.0	67.4	15.0	15.2
	실업자	100.0	53.3	17.0	25.5
	비경활인구	100.0	53.1	30.0	14.2
	중졸이하	100.0	62.5	23.5	13.2
	고졸	100.0	61.0	20.8	15.0
	전문대졸	100.0	68.1	15.7	14.6
	대졸이상	100.0	57.6	20.1	19.1
	전 체	100.0	62.6	19.1	15.7

〈표 4-16〉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첫 일자리 이직사유

(청년, 계속)

		직장불만				경영상 이유				
		근로 여건 불만 족	전공 기술 적성 불일치	전망 없어	회사 내 인간 관계	임시적 계절적 일완료	일거리없 고회사사 정어려워	계약 기간 끝나	권고사 직정리 해고명 예퇴직	직장 휴업 폐업 파산
수 (천명)	취업자	906	130	209	69	75	62	60	22	77
	실업자	82	11	15	5	9	14	9	9	13
	비경제활동인구	271	51	58	25	31	19	29	13	16
	중졸이하	60	8	10	7	10	3	-	2	3
	고졸	519	64	109	50	39	51	18	21	54
	전문대졸	445	69	111	27	35	27	31	16	31
	대졸이상	234	51	53	14	31	14	49	5	18
	전 체	1,259	192	282	99	115	95	98	44	106
비율 (%)	취업자	46.5	6.7	10.7	3.5	3.8	3.2	3.1	1.1	3.9
	실업자	38.7	5.2	7.1	2.4	4.2	6.6	4.2	4.2	6.1
	비경제활동인구	35.5	6.7	7.6	3.3	4.1	2.5	3.8	1.7	2.1
	중졸이하	44.1	5.9	7.4	5.1	7.4	2.2	-	1.5	2.2
	고졸	42.6	5.3	9.0	4.1	3.2	4.2	1.5	1.7	4.4
	전문대졸	46.5	7.2	11.6	2.8	3.7	2.8	3.2	1.7	3.2
	대졸이상	38.3	8.3	8.7	2.3	5.1	2.3	8.0	0.8	2.9
	전 체	43.0	6.6	9.6	3.4	3.9	3.2	3.4	1.5	3.6

6. 최종학교 전공 불일치

지난 주 또는 가장 최근에 경험한 일자리가 최종학교 전공과 비교할 때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3%로, '일치한다'(47.3%)보다 조금 많다. 학력별로는 매우 뚜렷한 차이가 나는데, '일치한다'는 응답은 대졸이상(63.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전문대졸(52.7%), 고졸(30.7%), 중졸이하(4.6%) 순이다. '매우 불일치'를 1점, '약간 불일치'를 2점, '그런대로 일치'를 3점, '매우 일치'를 4점으로 하여 일치도를 계산하면, 취업자(2.39)가 실업자(2.02), 비경제활동인구(1.98)보다 높고, 학력별로는 '대졸

〈표 4-17〉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최종학교 전공 불일치 여부
(청년, 취업경험자=100)

		취업경험자	매우 불일치	약간 불일치	그런대로 일치	매우 일치	일치도
수 (천명)	취업자	3,349	1,150	500	952	747	2.39
	실업자	211	96	39	52	24	2.02
	비경활인구	762	364	129	186	83	1.98
	중졸이하	150	130	13	5	2	1.18
	고졸	1,448	716	287	378	67	1.86
	전문대졸	1,436	486	193	379	378	2.45
	대졸이상	1,288	279	174	428	407	2.75
	전 체	4,322	1,610	668	1,190	854	2.30
비율 (%)	취업자	100.0	34.3	14.9	28.4	22.3	
	실업자	100.0	45.5	18.5	24.6	11.4	
	비경활인구	100.0	47.8	16.9	24.4	10.9	
	중졸이하	100.0	86.7	8.7	3.3	1.3	
	고졸	100.0	49.4	19.8	26.1	4.6	
	전문대졸	100.0	33.8	13.4	26.4	26.3	
	대졸이상	100.0	21.7	13.5	33.2	31.6	
	전 체	100.0	37.3	15.5	27.5	19.8	

이상(2.75)>전문대졸(2.45)>고졸(1.86)>중졸이하(1.18)' 순으로 학력과 전공일치도가 비례한다(표 4-17 참조).

7. 이직후 미취업자

가. 미취업기간

2009년 5월 현재 미취업자 147만 명의 미취업기간은 '6개월 미만'은 38.4%이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0.3%이다. 1년 이상 미취업자가 51.4%고, 3년 이상 미취업자도 18.1%나 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이상 미취업자가 58.1%인데,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도 1년 이상 미취업자가 23.4%나 된다. 학력별로 1년 이상 미취업자는 '중졸이하(64.6%)>고졸(52.3%)>대졸이상(50.8%)>전문대졸(46.8%)' 순이고, 3년 이상 장기간

〈표 4-18〉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최근 이직후 미취업기간
(청년, 이직후 미취업자=100)

		미취업자	미취업 기간					
			6월 미만	6월~ 1년	1년 이상	1~ 2년	2~ 3년	3년 이상
수 (천명)	취업자							
	실업자	286	184	35	67	46	12	9
	비경활인구	1,184	380	116	688	267	164	257
	중졸이하	96	21	13	62	24	5	33
	고졸	612	233	59	320	114	73	133
	전문대졸	363	158	35	170	76	42	52
	대졸이상	400	152	45	203	100	55	48
	전 체	1,470	564	151	755	313	176	266
비율 (%)	취업자							
	실업자	100.0	64.3	12.2	23.4	16.1	4.2	3.1
	비경활인구	100.0	32.1	9.8	58.1	22.6	13.9	21.7
	중졸이하	100.0	21.9	13.5	64.6	25.0	5.2	34.4
	고졸	100.0	38.1	9.6	52.3	18.6	11.9	21.7
	전문대졸	100.0	43.5	9.6	46.8	20.9	11.6	14.3
	대졸이상	100.0	38.0	11.3	50.8	25.0	13.8	12.0
	전 체	100.0	38.4	10.3	51.4	21.3	12.0	18.1

미취업자도 '중졸이하(34.3%)>고졸(21.7%)>전문대졸(14.3%)>대졸이상(12.0%)'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다.

나. 주된 활동

미취업기간 동안 주된 활동은 육아가사(29.3%)가 가장 많고, 취업시험 준비(25.8%), 구직활동(15.4%), '집 등에서 그냥 시간 보냄'(15.2%) 순이다. 대졸이상은 취업시험 준비(52.0%)가 절반을 넘는 데 비해, 중졸이하의 육아가사(38.5%)와 '집 등에서 그냥 시간 보냄'(28.1%)이 2/3가량 된다(표 4-19 참조).

〈표 4-19〉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미취업기간 동안 활동
(청년, 이직 후 미취업자=100)

		직업교육(훈련)	취업시험 준비	집등에서그냥시간보냄	여행독서여가시간보냄	구직활동	육아가사	기타
수 (천명)	취업자							
	실업자	7	34	14	9	215	5	2
	비경활인구	30	345	209	33	12	425	130
	중졸이하	3	7	27	-	4	37	18
	고졸	16	67	122	13	83	220	90
	전문대졸	15	96	55	13	70	105	9
	대졸이상	3	208	19	15	70	68	16
	전 체	37	379	223	42	227	430	132
비율 (%)	취업자							
	실업자	2.4	11.9	4.9	3.1	75.2	1.7	0.7
	비경활인구	2.5	29.1	17.7	2.8	1.0	35.9	11.0
	중졸이하	3.1	7.3	28.1	-	4.2	38.5	18.8
	고졸	2.6	10.9	19.9	2.1	13.6	35.9	14.7
	전문대졸	4.1	26.4	15.2	3.6	19.3	28.9	2.5
	대졸이상	0.8	52.0	4.8	3.8	17.5	17.0	4.0
	전 체	2.5	25.8	15.2	2.9	15.4	29.3	9.0

8. 취업 미경험자

가. 졸업·중퇴 연도

취업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 50만 명 가운데 2009년 졸업·중퇴자는 24만 명(49.2%)이고, 나머지 절반은 2001~2008년에 졸업했거나 중퇴한 사람들이다. 2009년 졸업·중퇴자는 '대졸이상(55.3%)>전문대졸(51.2%)>고졸(48.8%)>중졸이하(20.0%)'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 이에 비

〈표 4-20〉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졸업·중퇴년도
 (청년, 취업경험없는 졸업·중퇴자=100)

		전체	2005 이전	2005	2006	2007	2008	2009
수 (천명)	취업자							
	실업자	75	2	2	3	2	10	56
	비경활인구	423	75	13	24	50	73	188
	중졸이하	45	21	2	1	5	7	9
	고졸	172	38	6	8	13	23	84
	전문대졸	82	7	2	4	9	18	42
	대졸이상	197	10	5	14	25	34	109
	전 체	496	76	15	27	52	82	244
비율 (%)	취업자							
	실업자	100.0	2.7	2.7	4.0	2.7	13.3	74.7
	비경활인구	100.0	17.7	3.1	5.7	11.8	17.3	44.4
	중졸이하	100.0	46.7	4.4	2.2	11.1	15.6	20.0
	고졸	100.0	22.1	3.5	4.7	7.6	13.4	48.8
	전문대졸	100.0	8.5	2.4	4.9	11.0	22.0	51.2
	대졸이상	100.0	5.1	2.5	7.1	12.7	17.3	55.3
	전 체	100.0	15.3	3.0	5.4	10.5	16.5	49.2

해 2001~2008년 졸업·중퇴자로서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은 '대졸이상(44.7%)<전문대졸(48.8%)<고졸(51.2%)<중졸이하(80.0%)'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다. 2005년 이전 졸업·중퇴자도 '대졸이상(5.1%)<전문대졸(8.5%)<고졸(22.1%)<중졸이하(46.7%)'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비취업자가 많다(표 4-20 참조).

나. 활동상태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활동상태는 취업준비(36.1%)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진학준비(20.8%), 육아가사(13.1%), 구직활동(12.3%), 쉬었음(9.5%) 순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준비'가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육아가사'가 많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표 4-21 참조).

〈표 4-21〉 경제활동상태 및 학력별 활동상태

(정년, 취업 경험 없는 졸업·중퇴자=100)

		전체	구직 활동	육아 가사	진학 준비	취업 준비	쉬었음	심신 장애
수 (천명)	취업자							
	실업자	74	61			12		
	비경활인구	422		65	103	167	47	28
	중졸이하	45		17	16	1	3	7
	고졸	173	5	29	78	17	20	18
	전문대졸	83	18	10	3	34	14	3
	대졸이상	197	38	10	7	128	11	
	전 체	496	61	65	103	179	47	28
비율 (%)	취업자							
	실업자	100.0	82.4			16.2		
	비경활인구	100.0		15.4	24.4	39.6	11.1	6.6
	중졸이하	100.0		37.8	35.6	2.2	6.7	15.6
	고졸	100.0	2.9	16.8	45.1	9.8	11.6	10.4
	전문대졸	100.0	21.7	12.0	3.6	41.0	16.9	3.6
	대졸이상	100.0	19.3	5.1	3.6	65.0	5.6	-
	전 체	100.0	12.3	13.1	20.8	36.1	9.5	5.6

9. 소 결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5월 현재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482만 명 가운데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125만 명(25.3%)이다. 대졸이상은 31.1%, 전문대졸은 23.9%, 고졸은 22.3%, 중졸이하는 12.5%로,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많다. 직업훈련기관은 사설학원이 65.7%로 가장 많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11.6%, 공공단체운영훈련기관은 8.5%다.

둘째, 졸업·중퇴자 가운데 학교 다닐 때 직장을 체험한 사람은 240만 명(48.6%)이다. 대졸이상은 62.0%, 전문대졸은 57.4%, 고졸은 31.1%, 중졸이하는 16.0%로, 학력이 높을수록 직장체험자가 많다. 직장체험은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59.3%로 가장 많고, 전일제 취업 20.7%, 학교현장

실습 참여 14.8%, 기업인턴사원 3.9%,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1.7% 순이다.

셋째,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직업교육과 취업은 부(-)의 상관관계이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는 사설학원이 취업과 부(-)의 상관관계이다. 그렇다고 해서 직업교육이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취업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사설학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고,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에 직업교육 수요가 있음에도 비영리 직업훈련기관들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직장체험은 취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학교현장실습참여는 고졸과 전문대졸, 대졸이상, 직장체험프로그램은 고졸,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전문대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취업횟수는 중졸과 고졸이하가 2.3회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은 2.0회, 대졸이상은 1.4회로,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횟수가 많다. 취업횟수 4회 이상은 '중졸이하(39.9%)>고졸(25.9%)>전문대졸(10.7%)>대졸이상(3.4%)'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다.

여섯째, 취업횟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포아송 회귀분석하면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횟수가 많다. 졸업·중퇴연도를 통제하면 대졸이상만 취업횟수가 적을 뿐, 전문대졸 이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밖에 여성은 남성보다, 가구주는 기타 가구원이나 배우자보다 취업횟수가 많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여성과 저학력층에서 취업횟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음을 의미한다.

일곱째, 청년 취업자들이 일자리를 얻는 주된 방법이나 경로는 '연고를 통한 소개/추천(42.4%)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신문, 잡지, 인터넷, 벽보 등을 보고 응모'(29.8%), (공개)채용시험(18.0%), 회사특별채용(3.5%), 직업소개기관(3.3%) 순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공개)채용시험 비중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연고채용 비중이 높다.

여덟째, 취업 후 이직한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구하는데 소요된 구직

기간은 평균 7.3개월이다. 전문대졸은 4.0개월, 대졸이상은 4.4개월인데, 고졸은 9.8개월, 중졸이하는 20.2개월로 학력이 낮을수록 구직기간이 길다. 졸업 전 취업이 13.9%이고 졸업 후 3개월 이내 취업이 41.4%다. 그렇지만 구직기간 1년 이상도 22.0%나 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조기취업자가 많다.

아홉째, 취업을 경험한 청년들의 첫 일자리는 97%가 임금노동이다. 상용일자리(고용계약을 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60.7%고,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가 20.1%,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시적 일자리가 16.2%이다. 근무시간 기준으로 풀타임은 84.5%이고 파트타임은 12.6%이며, 풀타임 상용 일자리는 249만 명(57.5%)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직, 기간제, 풀타임 비중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임시직과 파트타임 비중이 높다. 대졸이상과 전문대졸은 61%가 풀타임 상용직인데, 고졸은 54%, 중졸이하는 32%만 풀타임 상용직으로, 학력에 따라 고용형태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열째, 취업 후 이직한 청년들은 학력이 낮을수록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 비중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 금융, 기타서비스업과 운수통신업 비중이 높다. 중졸이하는 10명 중 9명이 판매서비스직(52.9%)과 단순노무직(36.0%)이고, 대졸이상은 사무관리전문직(73.7%)과 판매서비스직(20.9%)이 대부분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관리전문직 비중이 높고, 학력이 낮으면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다.

열한 번째, 취업 후 이직한 청년들이 첫 일자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16.1개월이다. 학력별로 고졸은 17.2개월, 전문대졸은 16.3개월, 대졸이상은 14.7개월, 중졸이하는 11.4개월이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이 50.8%로 절반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26.5%이며, 2년 이상이 22.8%이다. 중졸이하는 1년 미만 단기근속자가 69.9%이고, 2년 이상 근속자는 12.8%로, 다른 학력에 비해 근속기간이 짧다.

열두 번째, 첫 일자리를 이직한 사람들의 이직사유는, 직장에 대한 불만이 6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개인사정이 19.1%, 경영상 이유가 15.7% 순이다. 직장에 대한 불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여건(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 불만족'이 4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직장이나 하는 일이 전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가 9.6%, '전공, 지식, 기

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가 6.6% 순이다.

열세 번째, 지난 주 또는 가장 최근에 경험한 일자리가 최종학교 전공과 '일치한다'는 응답이 47.3%이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3%다. 학력이 높을수록 전공과 일치한다는 응답이 많다.

열네 번째, 2009년 5월 현재 미취업자 147만 명 가운데 1년 이상 미취업자가 51.4%고, 3년 이상 미취업자도 18.1%나 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이상 미취업자가 58.1%인데,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도 1년 이상 미취업자가 23.4%나 된다. 학력별로 1년 이상 미취업자는 '중졸이하(64.6%)>고졸(52.3%)>대졸이상(50.8%)>전문대졸(46.8%)' 순이고, 3년 이상 장기간 미취업자도 '중졸이하(34.3%)>고졸(21.7%)>전문대졸(14.3%)>대졸이상(12.0%)'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다.

열다섯 번째, 미취업기간 동안 주된 활동은 육아가사(29.3%)가 가장 많고, 취업시험 준비(25.8%), 구직활동(15.4%), '집 등에서 그냥 시간 보냄'(15.2%) 순이다. 대졸이상은 취업시험 준비(52.0%)가 절반을 넘는데 비해, 중졸이하는 육아가사(38.5%)와 '집 등에서 그냥 시간 보냄'(28.1%)이 2/3가량 된다.

열여섯 번째, 취업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 50만 명 가운데 2009년 졸업·중퇴자는 24만 명(49.2%)이고, 나머지 절반은 2001~2008년에 졸업했거나 중퇴한 사람들이다. 2009년 졸업·중퇴자는 '대졸이상(55.3%)>전문대졸(51.2%)>고졸(48.8%)>중졸이하(20.0%)'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 이에 비해 2001~2008년 졸업·중퇴자로서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은 '대졸이상(44.7%)<전문대졸(48.8%)<고졸(51.2%)<중졸이하(80.0%)'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다.

열일곱 번째,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활동상태는 취업준비(36.1%)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진학준비(20.8%), 육아가사(13.1%), 구직활동(12.3%), 쉬었음(9.5%) 순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준비'가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육아가사'가 많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제5장

고용의 질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해도 고용의 질은 임금노동자만 분석 가능하다. 게다가 청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가진 취업자는 92.3%가 임금노동자이고, 청년 실업자의 98.1%가 임금노동을 희망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통계청이 2009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청년(15~29세) 노동자의 노동력 구성과 고용의 질을 살펴본다.

1. 노동력 구성

가. 인적 구성

2009년 3월 현재 청년 노동자의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노동자 357만 명 가운데 남성은 165만 명(46.3%)이고 여성은 192만 명(53.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7만 명(7.4%p) 많다. 이는 여성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20대 초반 남성들이 군복무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5세 미만 연령층은 여성(77만 명)이 남성(40만명)보다 많지만, 20대 후반에는 남성(125만명)이 여성(115만명)보다 많다(표 5-1 참조).

둘째, 청년 노동자 357만 명 가운데 대졸이상은 107만 명(30.1%)이고 전문대졸은 103만 명(28.7%)으로, 10명 중 6명꼴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취업한 50만 명(14.0%)도 48만 명이 전문대나 대학,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다. 이에 비해 고

〈표 5-1〉 학력별 성·연령 구성

(2009년 3월, 15~29세 노동자)

		전체	남자	여자	25세 미만	20대 후반	남자		여자	
							25세 미만	20대 후반	25세 미만	20대 후반
							수 (천명)	중졸이하	70	44
	고졸	901	497	404	269	632	119	378	150	254
	전문대졸	1,025	391	634	315	710	61	330	254	380
	대졸이상	1,072	455	617	171	902	17	438	154	464
	재학중	498	263	235	377	121	182	81	195	40
	전 체	3,566	1,650	1,916	1,165	2,402	396	1,254	769	1,148
비율 (%)	중졸이하	100.0	62.9	37.1	47.1	52.9	24.3	38.6	22.9	14.3
	고졸	100.0	55.2	44.8	29.9	70.1	13.2	42.0	16.6	28.2
	전문대졸	100.0	38.1	61.9	30.7	69.3	6.0	32.2	24.8	37.1
	대졸이상	100.0	42.4	57.6	15.9	84.1	1.6	40.8	14.4	43.2
	재학중	100.0	52.8	47.2	75.7	24.3	36.5	16.3	39.2	8.0
	전 체	100.0	46.3	53.7	32.7	67.3	11.1	35.2	21.6	32.2

졸은 90만 명(25.3%)이고 중졸이하는 7만 명(2.0%)으로, 고졸이하 학력은 4명 중 1명꼴이다.

셋째, 여성의 학력수준이 남성보다 높다. 여성은 대졸이상이 62만 명(32.2%)이고 전문대졸이 63만 명(33.1%)으로 3명 중 2명꼴로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남성은 대졸이상이 46만 명(27.6%)이고 전문대졸이 39만 명(23.7%)으로 2명 중 1명꼴로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졸이하의 남성이 54만 명(32.8%)으로 여성 43만 명(22.5%)보다 12만명(10.3%p) 많다.

넷째, 기혼자는 62만 명(17.4%)이고 미혼자가 294만 명(82.6%)이다. 가구주는 85만 명(23.7%)이고 배우자는 26만 명(7.2%), 기타가구원은 246만 명(69.1%)이다. 따라서 청년 노동자는 '20대 후반 미혼 가구원'이 표준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청년 가구주와 배우자도 110만 명으로 10명 중 3명꼴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5-2 참조).

〈표 5-2〉 학력별 성·혼인과 가구주관계 구성

(2009년 3월, 15~29세 노동자)

		전체	미혼 남자	기혼 남자	미혼 여자	기혼 여자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
수 (천명)	중졸이하	70	35	9	17	8	27	4	38
	고졸	901	358	139	303	101	282	82	537
	전문대졸	1,025	309	82	549	85	213	71	741
	대졸이상	1,072	377	79	514	103	276	93	704
	재학중	498	255	8	229	7	47	6	443
	전 체	3,566	1,334	317	1,612	304	845	256	2,463
비율 (%)	중졸이하	100.0	50.0	12.9	24.3	11.4	38.6	5.7	54.3
	고졸	100.0	39.7	15.4	33.6	11.2	31.3	9.1	59.6
	전문대졸	100.0	30.1	8.0	53.6	8.3	20.8	6.9	72.3
	대졸이상	100.0	35.2	7.4	47.9	9.6	25.7	8.7	65.7
	재학중	100.0	51.2	1.6	46.0	1.4	9.4	1.2	89.0
	전 체	100.0	37.4	8.9	45.2	8.5	23.7	7.2	69.1

나. 일자리 구성

청년 노동자들은 학력에 따라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 사업체 규모와 노조 유무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첫째, 중졸이하는 개인서비스업(49.3%), 고졸은 유통서비스업(30.0%)과 제조업(26.2%), 전문대졸은 사회서비스업(25.2%)과 유통서비스업(23.7%), 대졸이상은 사회서비스업(35.3%)과 생산자서비스업(23.4%), 재학 중인 학생은 개인서비스업(34.5%)과 유통서비스업(24.3%)에 절반 이상 취업해 있다. 게다가 같은 사회서비스업이라도 대졸이상은 교육서비스업(22.3%), 전문대졸은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14.9%)에 주로 취업해 있다.

따라서 학력수준이 높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사회서비스업이나 생산자서비스업에 취업한 사람이 많고, 학력이 낮으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개인서비스업이나 유통서비스업에 취업한 사람이 많으며,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대부분 개인서비스업이나 유통서비스업이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표 5-3 참조).

〈표 5-3〉 학력별 산업 분포

(2009년 3월, 15~29세 노동자)

		전체	제조업	기타재 화생산	생산자 서비스업	유통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수 (천명)	중졸이하	70	13	6	2	12	34	2
	고졸	901	236	67	92	270	141	94
	전문대졸	1,025	171	57	182	243	114	258
	대졸이상	1,072	151	44	251	186	62	379
	재학중	498	42	17	50	121	172	94
	전 체	3,566	613	191	577	832	523	827
비율 (%)	중졸이하	100.0	18.8	8.7	2.9	17.4	49.3	2.9
	고졸	100.0	26.2	7.4	10.2	30.0	15.7	10.4
	전문대졸	100.0	16.7	5.6	17.8	23.7	11.1	25.2
	대졸이상	100.0	14.1	4.1	23.4	17.3	5.8	35.3
	재학중	100.0	8.4	3.4	10.0	24.3	34.5	18.9
	전 체	100.0	17.2	5.4	16.2	23.4	14.7	23.2

둘째, 학력이 높을수록 사무관리직과 전문직 비중이 높고, 낮을수록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으며, 생산직은 고졸이 많다. 즉 대졸이상은 10명 중 9명꼴로 전문직(49.3%)이나 사무관리직(38.7%)이고, 전문대졸은 3명 중 2명꼴로 사무관리직(33.7%)이나 전문직(33.4%)이다. 이에 비하여 고졸은 10명 중 6명꼴로 판매서비스직(31.4%)과 생산직(26.2%)이고, 중졸이하는 4명 중 3명꼴로 판매서비스직(46.5%)과 단순노무직(28.2%)이다(표 5-4 참조).

〈표 5-4〉 학력별 직업 분포

(2009년 3월, 15~29세 노동자)

		전체	사무 관리직	전문직	판매 서비스직	생산직	단순 노무직
수 (천명)	중졸이하	70	2	2	33	14	20
	고졸	901	181	84	283	236	117
	전문대졸	1,025	345	342	172	140	26
	대졸이상	1,072	415	529	80	34	15
	재학중	498	93	93	201	47	63
	전 체	3,566	1,036	1,050	769	471	241
비율 (%)	중졸이하	100.0	2.8	2.8	46.5	19.7	28.2
	고졸	100.0	20.1	9.3	31.4	26.2	13.0
	전문대졸	100.0	33.7	33.4	16.8	13.7	2.5
	대졸이상	100.0	38.7	49.3	7.5	3.2	1.4
	재학중	100.0	18.7	18.7	40.4	9.4	12.7
	전 체	100.0	29.0	29.4	21.6	13.2	6.8

〈표 5-5〉 학력별 종사자규모 분포

(2009년 3월, 15~29세 노동자)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수 (천명)	중졸이하	70	34	17	12	6	2	
	고졸	901	233	183	166	158	85	76
	전문대졸	1,025	164	209	253	184	101	114
	대졸이상	1,072	87	125	236	273	156	195
	재학중	498	141	112	120	55	34	36
	전 체	3,566	659	646	787	676	378	421
비율 (%)	중졸이하	100.0	48.6	24.3	17.1	8.6	2.9	
	고졸	100.0	25.9	20.3	18.4	17.5	9.4	8.4
	전문대졸	100.0	16.0	20.4	24.7	18.0	9.9	11.1
	대졸이상	100.0	8.1	11.6	22.0	25.4	14.5	18.2
	재학중	100.0	28.3	22.5	24.1	11.0	6.8	7.2
	전 체	100.0	18.5	18.1	22.1	19.0	10.6	11.8

셋째,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은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체는 나쁜 일자리로 통칭된다. 중졸이하 저학력층은 10인 미만 영세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72.9%고, 300인 이상 사업체에 취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에 비해 고졸은 각각 46.2%와 8.4%이고, 전문대졸은 36.4%와 11.1%, 대졸이상은 19.7%와 18.2%이다. 즉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많다(표 5-5 참조).

넷째,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취업해 조합원이 된 사람이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이 적다. 즉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은 ‘중졸이하(2.9%)<고졸(16.7%)<전문대졸(22.3%)<대졸이상(31.8%)’ 순으로 학력에 비례하고, 조합원 비율도 각각 1.4%, 8.0%, 11.1%, 12.4%로 학력에 비례한다(표 5-6 참조).

〈표 5-6〉 학력별 노조 및 조합원 분포

(2009년 3월, 15~29세 노동자)

	수(천명)				비율(%)			
	전체	유노조	유자격	조합원	전체	유노조	유자격	조합원
중졸이하	70	2	1	1	100.0	2.9	1.4	1.4
고졸	901	151	101	72	100.0	16.7	11.2	8.0
전문대졸	1,025	229	157	114	100.0	22.3	15.3	11.1
대졸이상	1,072	341	230	133	100.0	31.8	21.5	12.4
재학중	497	58	20	14	100.0	11.7	4.0	2.8
전체	3,566	781	509	334	100.0	21.9	14.3	9.4

2. 고용안정성³⁾

가. 비정규직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설 뿐 아니라,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을 비롯한 각종 노동조건에서 차별이 심하며, 사회보험 및 노조 가입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폐해가 다른 나라보다 두드러진 것은, 비정규직 대부분이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비정규직(또는 임시근로) 비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표 5-7〉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중졸이하(90.0%)>고졸(60.0%)>전문대졸(46.0%)>대졸이상(41.0%)’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다.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 비율도 ‘중졸이하(85.7%)>고졸(51.9%)>전

3) Auer & Cazes(2003)는 고용안정(job stability)의 지표로 근속연수(평균근속연수, 장기근속자 비중, 단기근속 비중)와 직장유지율, 임시직 비율을 사용하고, 고용안전(job security)의 지표로 이직률과 단기불안정성(신규취업 실패율)을 사용하고 있다.

4)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파트타임은 노동시간만 짧을 뿐 고용계약 기간은 상용직이 대부분이며,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 노동조건을 적게 받는 것을 제외하면 차별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파트타임 104만 명 가운데 103만 명(98.5%)이 임시직이고 2만 명(1.5%)만 상용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김유선, 2005).

문대졸(30.4%)>대졸이상(25.1%)'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다(표 5-7 참조).

<표 5-8>은 인적 속성(성, 혼인, 가구주 관계, 연령, 학력)과 일자리 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을 설명변수로 하고, 비정규직, 임시근로, 기간제, 파트타임, 임시일용직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짓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서 학력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때 청년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은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전문대졸' 순으로 중졸이하가 가장 높고 전문대졸이 가장 낮다. 종속변수가 임시근로이거나 임시일용직 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세부 고용형태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기간제로 취업할 확률은 고졸만 유의미하게 낮고 다른 학력에서는 차이가 없다. 파트타임으로 취업할 확률은 '재학중>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중졸이하'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표 5-7> 학력별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 분포

(2009년 3월, 15~29세 노동자)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비정 규직	임시 근로	기간제	시간제	호출 근로	특수 고용	파견 근로	용역 근로	가내 근로	상용	임시	일용
중졸이하	90.0	88.6	11.4	8.6	7.1	1.4		1.4		14.3	62.9	22.9
고졸	60.0	59.4	13.3	3.3	3.0	2.4	1.0	2.2	0.3	48.1	43.2	8.8
전문대졸	46.0	45.3	20.6	2.9	0.5	1.5	1.0	1.5		69.6	27.7	2.6
대졸이상	41.0	40.4	22.7	5.3	0.1	1.9	1.3	0.8	0.1	74.9	23.5	1.6
재학중	81.5		18.5	41.0	3.8	1.2	1.2	2.0	0.4	25.7	42.8	31.5
전 체	53.9	53.2	18.9	9.2	1.6	1.8	1.1	1.5	0.2	58.5	33.1	8.3

〈표 5-8〉 비정규직 결정요인 분석 결과

(청년, 로짓분석, 관측치 4,781개)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비정규직		임시근로		기간제		파트타임		임시일용직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0.128	0.174	-0.133	0.159	-0.224	0.034	0.293	0.129	-0.066	0.547
기혼	-0.205	0.166	-0.199	0.178	0.014	0.939	-0.861	0.134	-0.392	0.017
배우자	0.054	0.786	0.103	0.602	-0.086	0.736	1.961	0.001	0.443	0.049
기타가구원	0.162	0.112	0.200	0.049	0.161	0.191	0.257	0.333	0.235	0.035
연령	-0.886	0.001	-0.853	0.001	0.048	0.836	-1.645	0.000	-0.792	0.003
연령제곱	0.015	0.004	0.014	0.005	-0.002	0.623	0.030	0.000	0.013	0.014
중졸이하	1.103	0.005	0.894	0.016	-0.212	0.609	-1.655	0.003	1.099	0.002
고졸	0.035	0.766	0.033	0.781	-0.292	0.040	-1.433	0.000	0.232	0.080
전문대졸	-0.241	0.018	-0.257	0.011	0.048	0.673	-1.162	0.000	-0.432	0.000
재학중	0.560	0.000	0.539	0.001	-0.149	0.369	1.109	0.000	0.667	0.000
기타재화생산	0.881	0.000	0.845	0.000	0.680	0.002	0.337	0.596	0.741	0.000
생산자서비스업	0.788	0.000	0.632	0.000	0.847	0.000	0.179	0.739	0.205	0.229
유통서비스업	0.720	0.000	0.606	0.000	0.431	0.016	0.743	0.106	0.639	0.000
개인서비스업	1.454	0.000	1.370	0.000	0.342	0.098	1.584	0.001	1.481	0.000
사회서비스업	1.104	0.000	1.028	0.000	0.947	0.000	1.572	0.001	1.199	0.000
관리전문직	-0.755	0.000	-0.680	0.000	-0.278	0.145	0.642	0.269	-0.886	0.000
사무직	-0.627	0.000	-0.537	0.001	-0.088	0.624	-0.175	0.774	-0.684	0.000
판매서비스직	0.308	0.075	0.380	0.028	-0.305	0.128	1.134	0.041	0.572	0.001
단순노무직	1.004	0.000	1.018	0.000	-0.180	0.450	1.487	0.009	1.133	0.000
1~4인	1.643	0.000	1.669	0.000	-0.788	0.000	0.644	0.060	1.950	0.000
5~9인	0.933	0.000	0.978	0.000	-0.457	0.013	0.321	0.358	1.225	0.000
10~29인	0.560	0.000	0.587	0.000	-0.027	0.863	0.216	0.527	0.571	0.002
30~99인	0.295	0.045	0.264	0.074	0.064	0.682	-0.589	0.102	0.005	0.978
100~299인	0.207	0.212	0.156	0.348	0.058	0.731	-0.468	0.317	-0.268	0.214
노조유										
비조합원	0.472	0.000	0.522	0.000	0.857	0.000	-0.211	0.407	0.144	0.289
노조유										
조합원	-0.842	0.000	-0.781	0.000	-0.140	0.410	-1.964	0.013	-2.110	0.000
상수	12.062	0.000	11.584	0.000	-1.194	0.678	17.889	0.000	10.348	0.002
관측치	4,781		4,781		4,781		4,781		4,781	
로그우도비	-2,570		-2,578		-2,162		-876		-2,138	
모형설명력	0.221		0.220		0.068		0.402		0.341	

주: 남성, 미혼, 가구주, 대졸이상, 제조업, 생산직, 300인이상, 노조무비조합원을 기준변수로 사용했고, 가중치를 주고 분석한 결과임.

〈표 5-9〉 학력별 근속연수

(2009년 3월, 15~29세 노동자)

	근속연수(년)				근속연수 계층(%)					신규 취업 실패율
	평균값	중위값	표준 편차	변이 계수	1년 미만	1~ 2년	2~ 3년	3~ 5년	5년 이상	
중졸이하	1.0	0.6	1.5	1.51	64.3	18.6	14.3	1.4	1.4	45.7
고졸	1.9	1.1	2.1	1.13	46.1	20.0	11.2	12.3	10.4	26.1
전문대졸	2.0	1.3	2.1	1.01	40.1	20.0	12.4	16.6	10.9	20.1
대졸이상	1.8	1.2	1.7	0.96	39.2	25.7	12.7	15.9	6.6	13.5
재학중	0.7	0.3	1.1	1.67	77.8	13.2	4.2	3.0	1.8	64.5
전 체	1.7	1.0	1.9	1.12	47.1	20.7	11.1	13.1	8.0	26.4

나. 근속연수

근속연수 평균값은 ‘중졸이하(1.0년)<대졸이상(1.8년)<고졸(1.9년)<전문대졸(2.0년)’ 순이다. 여기서 대졸이상이 고졸과 전문대졸보다 근속연수 평균값이 짧은 것은, 그만큼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중은 ‘중졸이하(64.3%)>고졸(46.1%)>전문대졸(40.1%)>대졸이상(39.2%)’ 순이고, 신규취업 실패율⁵⁾도 ‘중졸이하(45.7%)>고졸(26.1%)>전문대졸(20.1%)>대졸이상(13.5%)’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다. 학력이 높을수록 그만큼 일자리가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표 5-9 참조).

3. 임금

가. 임금수준

월평균 임금은 ‘대졸이상(178만원)>전문대졸(146만원)>고졸(136만원)>중졸이하(99만원)’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대졸이상 월평균

5) 신규취업 실패율(failure rate of new job matching)은 단기불안정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비율) - (근속 1~2년 근로자 비율)’로 계산한다.(Auer & Cazes 2003).

〈표 5-10〉 학력별 임금수준

(2009년 3월, 15~29세 노동자)

	월평균 임금(만원)				시간당 임금(원)			
	평균값	중위값	표준 편차	변이 계수	평균값	중위값	표준 편차	변이 계수
중졸이하	99	100	33	0.33	4,659	4,247	1,999	0.43
고졸	136	130	53	0.39	6,694	6,140	2,864	0.43
전문대졸	146	141	52	0.36	7,688	7,368	3,022	0.39
대졸이상	178	170	80	0.45	10,000	9,211	4,688	0.47
재학중	88	80	56	0.64	5,884	5,080	3,204	0.54
전 체	144	140	69	0.48	7,821	6,908	3,909	0.50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대졸은 82.4, 고졸은 76.4, 중졸이하는 56.0으로 그 격차가 크다. 이러한 특징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즉 시간당 임금도 '대졸이상(1만원)>전문대졸(7천7백원)>고졸(6천7백원)>중졸이하(4천7백원)'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대졸이상 시간당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대졸은 76.9, 고졸은 66.9, 중졸이하는 46.6으로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표 5-10 참조).

<표 5-11>은 인적 속성(성, 혼인, 가구주 관계, 연령, 학력)과 일자리 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 근속연수, 노동시간, 비정규직)을 통제한 상태에서 임금결정요인을 회귀 분석한 결과다. 대졸이상을 100이라 할 때 학력별 순임금격차는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전문대졸이 89.3, 고졸이 85.8, 중졸이하가 78.8이다. 시간당임금 기준으로는 전문대졸이 89.0, 고졸이 82.0, 중졸이하가 72.3이다. 월임금총액보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전문대졸이상과 고졸이하의 순임금격차가 큰 것은, 저학력층의 노동시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이다.

〈표 5-11〉 임금결정요인 분석 결과

(청년, 회귀분석)

	<모형 1>			<모형 2>		
	로그 월임금총액			로그 시간당 임금		
	계수	p값	exp(계수)	계수	p값	exp(계수)
여성	-0.097	0.000	0.908	-0.082	0.000	0.921
기혼	0.039	0.045	1.040	0.041	0.050	1.042
배우자	-0.078	0.007	0.925	-0.053	0.079	0.948
기타가구원	-0.056	0.000	0.946	-0.049	0.001	0.952
연령	0.129	0.000	1.138	-0.006	0.861	0.994
연령제곱	-0.002	0.001	0.998	0.001	0.433	1.001
중졸이하	-0.238	0.000	0.788	-0.325	0.000	0.723
고졸	-0.153	0.000	0.858	-0.198	0.000	0.820
전문대졸	-0.113	0.000	0.893	-0.139	0.000	0.870
재학중	-0.244	0.000	0.783	-0.177	0.000	0.838
근속년수	0.076	0.000	1.079	0.065	0.000	1.067
근속제곱	-0.006	0.000	0.994	-0.005	0.000	0.995
기타재화생산	0.077	0.003	1.080	0.066	0.011	1.068
생산자서비스업	0.125	0.000	1.133	0.116	0.000	1.123
유통서비스업	0.053	0.004	1.054	0.036	0.061	1.037
개인서비스업	-0.030	0.205	0.970	-0.028	0.239	0.972
사회서비스업	-0.027	0.169	0.973	-0.030	0.152	0.970
관리전문직	0.114	0.000	1.121	0.132	0.000	1.141
사무직	0.025	0.206	1.025	0.033	0.107	1.034
판매서비스직	-0.017	0.429	0.983	-0.023	0.320	0.977
단순노무직	-0.146	0.000	0.864	-0.139	0.000	0.870
1~4인	-0.260	0.000	0.771	-0.275	0.000	0.760
5~9인	-0.186	0.000	0.830	-0.208	0.000	0.812
10~29인	-0.113	0.000	0.893	-0.127	0.000	0.881
30~99인	-0.074	0.001	0.929	-0.085	0.000	0.919
100~299인	-0.046	0.059	0.955	-0.050	0.043	0.951
노조유비조합원	0.076	0.000	1.079	0.081	0.000	1.084
노조유조합원	0.117	0.000	1.124	0.129	0.000	1.138
로그노동시간	0.649	0.000	1.914			
비정규직	-0.170	0.000	0.844	-0.149	0.000	0.862
상수	0.840	0.032	2.316	8.965	0.000	7,824
관측치	4,781			4,781		
모형 설명력	0.656			0.462		

주: <표 5-8>과 같음.

나. 저임금계층

청년 노동자 357만 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천원) 미달 자는 40만 5천명(11.4%)으로, 9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학력별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42.9%)>재학생(29.3%)>고졸(13.0%)>전문대졸(6.6%)>대졸이상(4.1%)'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은 '중졸이하(72.9%)>고졸(31.3%)>전문대졸(19.3%)>대졸이상(10.2%)'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고, 고임금계층은 '중졸이하(2.9%)<고졸(6.2%)<전문대졸(11.8%)<대졸이상(33.3%)'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다(표 5-12 참조).

<표 5-13>에서 <모형 1>은 인적속성(성, 혼인, 가구주 관계, 연령, 학력)과 일자리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 근속연수, 노동시간, 비정규직)을 통제된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천원) 미달자 결정요인을 로짓 분석한 결과이고, <모형 2>와 <모형 3>은 저임금과 고임금계층 결정요인을 다항로짓 분석한 결과이다.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을 확률은 중졸이하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재학생 아르바이트가 높다. 고졸, 전문대졸, 대졸

<표 5-12>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와 저임금계층 비율

(2009년 3월, 15~29세 노동자)

		법정최 저임금 미달자	저-고임금계층(EU,월)			저-고임금계층(EU,시간)		
			저임금 계층	중간임 금계층	고임금 계층	저임금 계층	중간임 금계층	고임금 계층
수 (천명)	중졸이하	30	34	36	-	51	17	2
	고졸	117	159	701	41	282	563	56
	전문대졸	68	116	841	68	198	706	121
	대졸이상	44	104	738	231	109	607	357
	재학생	146	278	209	10	258	205	33
	전 체	405	691	2,525	350	898	2,098	569
비율 (%)	중졸이하	42.9	48.6	51.4	-	72.9	24.3	2.9
	고졸	13.0	17.6	77.8	4.6	31.3	62.5	6.2
	전문대졸	6.6	11.3	82.0	6.6	19.3	68.9	11.8
	대졸이상	4.1	9.7	68.8	21.5	10.2	56.6	33.3
	재학생	29.3	55.9	42.1	2.0	52.0	41.2	6.8
	전 체	11.4	19.4	70.8	9.8	25.2	58.8	16.0

〈표 5-13〉 저임금-고임금계층 결정요인 분석 결과

(청년 관측치 4,781개)

	<모형 1> 로짓분석		<모형 2> (월임금총액 기준) 다항 로짓분석				<모형 3> (시간당 임금 기준) 다항 로짓분석			
	최저임금미달		저임금계층		고임금계층		저임금계층		고임금계층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0.159	0.279	0.268	0.064	-0.707	0.000	0.219	0.068	-0.551	0.000
기혼	-0.087	0.768	-0.075	0.785	0.094	0.669	-0.403	0.066	0.265	0.157
배우자	0.813	0.023	1.077	0.001	0.273	0.390	1.083	0.000	0.137	0.590
기타가구원	0.231	0.200	0.505	0.007	-0.066	0.698	0.295	0.031	-0.092	0.514
연령	-0.358	0.171	-0.674	0.031	1.178	0.267	-0.158	0.519	-1.272	0.003
연령제공	0.005	0.333	0.011	0.089	-0.019	0.341	0.000	0.924	0.026	0.002
중졸이하	1.135	0.001	1.496	0.000	-35.54	0.000	1.631	0.000	-0.476	0.545
고졸	0.305	0.165	0.474	0.010	-1.165	0.000	0.493	0.001	-1.479	0.000
전문대졸	0.017	0.935	0.067	0.688	-1.096	0.000	0.181	0.197	-1.100	0.000
재학중	0.437	0.060	0.739	0.000	-0.837	0.025	0.491	0.005	-0.589	0.013
근속년수	-0.577	0.000	-0.588	0.000	0.380	0.000	-0.398	0.000	0.265	0.000
근속제공	0.051	0.000	0.051	0.000	-0.027	0.017	0.032	0.001	-0.019	0.037
기타재화생산	-0.895	0.024	-0.648	0.038	0.205	0.518	-0.560	0.024	0.065	0.793
생산자서비스업	-0.666	0.023	-0.894	0.000	0.749	0.001	-0.548	0.006	0.587	0.001
유통서비스업	-0.343	0.188	-0.506	0.017	0.248	0.274	-0.048	0.791	0.093	0.616
개인서비스업	0.094	0.723	0.018	0.939	0.122	0.769	0.326	0.099	0.132	0.629
사회서비스업	0.119	0.681	-0.062	0.787	-0.635	0.006	0.122	0.541	-0.118	0.516
관리전문직	-0.346	0.283	-0.271	0.343	1.096	0.000	-0.365	0.107	0.874	0.000
사무직	-0.401	0.176	0.107	0.671	0.486	0.061	-0.316	0.115	0.274	0.176
판매서비스직	0.494	0.064	0.233	0.341	1.242	0.000	0.207	0.292	0.582	0.017
단순노무직	0.668	0.016	0.468	0.066	-0.928	0.168	0.610	0.003	-1.564	0.012
1~4인	0.231	0.485	0.814	0.006	-2.472	0.000	0.927	0.000	-1.781	0.000
5~9인	-0.210	0.526	0.357	0.229	-1.324	0.000	0.550	0.024	-1.235	0.000
10~29인	-0.531	0.111	-0.065	0.820	-1.316	0.000	0.106	0.659	-1.083	0.000
30~99인	-0.959	0.007	-0.100	0.728	-0.798	0.000	-0.006	0.981	-0.831	0.000
100~299인	-0.747	0.061	-0.048	0.878	-0.631	0.003	-0.203	0.459	-0.573	0.001
노조유비조합원	-0.924	0.005	-0.268	0.186	0.688	0.000	-0.548	0.002	0.394	0.008
노조유조합원	-1.563	0.014	-1.293	0.002	0.786	0.000	-1.345	0.000	0.537	0.000
로그노동시간			-3.064	0.000	-0.283	0.554				
비정규직	1.437	0.000	1.411	0.000	-0.985	0.000	0.961	0.000	-0.559	0.000
상수	2.639	0.407	18.236	0.000	-17.81	0.212	1.771	0.558	14.918	0.008
관측치	4,781		4,781				4,781			
로그우도비	-1,176		-2,306				-3,290			
모형설명력	0.305		0.390				0.277			

주: <표 5-8>과 같음.

이상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월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모형 2>에서 저임금계층에 속할 확률은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순이고, 고임금계층에 속할 확률은 '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중졸이하' 순이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 <모형 3>에서 저임금계층에 속할 확률은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순이고, 고임금계층에 속할 확률은 '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 순으로 학력에 크게 좌우된다.

4. 노동조건

가. 노동시간

청년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3.6시간이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51.4시간)>고졸(48.0시간)>전문대졸(45.0시간)>대졸이상(42.0시간)'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길다.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율은 '중졸이하(57.7%)>고졸(37.8%)>전문대졸(25.7%)>대졸이상(13.4%)' 순이고, 주5일제 실시 비율도 '중졸이하(9.1%)<고졸(35.9%)<전문대졸(53.1%)<대졸이상(69.2%)' 순으로, 학력에 따라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표 5-14 참조).

<표 5-14> 학력별 주당 노동시간

(2009년 3월, 15~29세 노동자)

	노동시간(시간)				노동시간 계층(%)					주5일 근무제실 시(%)
	평균값	중위값	표준 편차	변이 계수	36 미만	36 ~40	41 ~44	45 ~48	48 초과	
중졸이하	51.4	50.0	13.1	0.26	9.9	14.1	4.2	14.1	57.7	9.1
고졸	48.0	48.0	10.5	0.22	3.3	30.9	5.8	22.2	37.8	35.9
전문대졸	45.0	44.0	8.5	0.19	2.9	45.6	7.2	18.6	25.7	53.1
대졸이상	42.0	40.0	8.0	0.19	5.7	59.9	6.5	14.5	13.4	69.2
재학중	34.8	40.0	15.6	0.45	41.2	27.0	4.2	10.9	16.7	32.3
전 체	43.6	40.0	11.1	0.25	9.3	43.0	6.2	17.1	24.4	49.8

〈표 5-15〉 노동시간 결정요인 분석 결과

(2009년 3월, 15~29세 청년노동자)

	<모형 1> 회귀분석		<모형 2> 다항로지분석				<모형 3> 로지분석	
	로그 노동시간		단시간근로		장시간근로		주5일제 실시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0.042	0.001	0.357	0.063	-0.341	0.001	-0.133	0.237
기혼	-0.004	0.766	-0.594	0.273	0.187	0.206	-0.135	0.417
배우자	-0.071	0.002	1.718	0.002	-0.480	0.028	0.259	0.242
기타가구원	-0.018	0.112	0.122	0.656	-0.261	0.018	0.107	0.388
연령	0.382	0.000	-1.636	0.000	0.418	0.107	0.523	0.046
연령제곱	-0.007	0.000	0.032	0.000	-0.009	0.090	-0.010	0.056
중졸이하	0.248	0.000	-0.881	0.106	0.981	0.001	-1.230	0.006
고졸	0.128	0.000	-1.062	0.000	0.624	0.000	-0.800	0.000
전문대졸	0.073	0.000	-0.907	0.001	0.415	0.000	-0.299	0.010
재학중	-0.191	0.000	1.126	0.000	0.100	0.566	-0.319	0.073
근속년수	0.030	0.000	-0.732	0.000	0.100	0.091	0.131	0.039
근속제곱	-0.003	0.000	0.052	0.069	-0.009	0.227	-0.011	0.190
기타재화생산 생산자서비스업	0.031	0.039	0.142	0.829	0.101	0.622	-0.570	0.004
유통서비스업	0.026	0.037	-0.082	0.890	-0.160	0.362	0.897	0.000
개인서비스업	0.049	0.000	0.686	0.167	0.566	0.000	-0.122	0.450
사회서비스업	-0.005	0.837	1.583	0.001	0.916	0.000	-0.904	0.000
관리전문직	0.006	0.658	1.327	0.009	0.165	0.338	-0.391	0.025
사무직	-0.052	0.003	0.977	0.104	-0.071	0.674	0.184	0.313
판매서비스직	-0.024	0.094	-0.238	0.705	-0.678	0.000	0.869	0.000
단순노무직	0.016	0.424	1.190	0.038	0.442	0.009	-0.572	0.004
1~4인	-0.019	0.440	1.249	0.031	0.188	0.311	-0.477	0.040
5~9인	0.044	0.028	0.412	0.284	1.359	0.000	-5.209	0.000
10~29인	0.062	0.000	0.056	0.886	1.054	0.000	-4.937	0.000
30~99인	0.038	0.008	0.002	0.996	0.933	0.000	-4.193	0.000
100~299인	0.032	0.008	-0.618	0.120	0.618	0.001	-3.744	0.000
노조유비조합원	0.013	0.356	-0.659	0.183	0.538	0.011	-1.034	0.018
노조유조합원	-0.014	0.276	-0.347	0.213	-0.699	0.000	0.073	0.617
비정규직	-0.036	0.000	-0.569	0.456	-0.753	0.000	0.891	0.000
상수	-0.061	0.000	21.212	0.000	0.114	0.239	-0.268	0.008
관측치	-1.090	0.024	-3.370	.	-6.803	0.035	-2.310	0.480
로그우도비	4,781		4,781				4,781	
모형 설명력	0.253		0.290				0.410	

주: <표 5-8>과 같음.

<표 5-15>에서 <모형 1>은 인적속성(성, 혼인, 가구주 관계, 연령, 학력)과 일자리 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 근속연수, 노동시간, 비정규직)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동시간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다. <모형 2>는 단시간과 장시간 근로 결정요인을 다항로지분석한 결과이고, <모형 3>은 주5일제 실시 여부를 로짓분석한 결과다.

<모형 1>에서는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순으로 노동시간이 길다. <모형 2>도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이에 비해 단시간 근로는 재학생 아르바이트와 대졸이상에서 높다. 주5일제를 적용받을 확률도 ‘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중졸이하’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그 확률이 높다.

나. 사회보험 가입 및 기타 노동조건

사회보험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중졸이하’ 순으로 학력에 비례한다. 공무원과 교원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고용보험 가입률도 전문대졸이 대졸이상보다 높다는 것을 제외하면 마찬가지이다. 이 밖에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근로계약 서면작성 등 기타 노동조건 적용률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낮다.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도 마찬가지다(표 5-16 참조).

<표 5-16> 학력별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09년 3월, 15~29세 노동자, 단위: %)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근로계 약서면 작성	교육 훈련 경험
중졸이하	22.8	21.8	22.0	18.3	19.7	17.1	18.1	17.4	6.8
고졸	63.5	63.8	62.3	56.5	52.3	35.9	47.3	41.4	21.3
전문대졸	81.6	82.1	79.6	75.8	69.7	46.3	67.1	58.6	32.6
대졸이상	84.2	84.4	74.3	79.0	74.2	54.6	73.5	66.8	43.1
재학생	35.7	35.7	35.2	30.5	26.2	21.2	25.9	35.5	17.8
전 체	70.3	70.5	66.3	64.4	59.6	42.1	57.3	52.7	30.3

<표 5-17>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 결정요인 분석 결과
(15~29세 청년노동자, 로짓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0.076	0.582	0.065	0.648	0.002	0.989	0.126	0.377
기혼	0.133	0.580	0.068	0.785	-0.019	0.923	0.036	0.878
배우자	-0.760	0.025	-0.695	0.048	-0.290	0.260	-0.546	0.110
기타가구원	0.159	0.322	0.097	0.554	0.295	0.032	-0.023	0.885
연령	0.969	0.002	0.990	0.001	1.084	0.000	0.616	0.052
연령제곱	-0.020	0.002	-0.020	0.001	-0.022	0.000	-0.012	0.071
중졸이하	-0.848	0.027	-0.985	0.015	-0.235	0.473	-0.889	0.033
고졸	-0.123	0.500	-0.083	0.660	0.604	0.000	-0.236	0.203
전문대졸	0.400	0.014	0.462	0.006	0.969	0.000	0.300	0.058
재학중	-0.770	0.000	-0.784	0.000	-0.103	0.544	-0.605	0.004
근속년수	0.705	0.000	0.725	0.000	0.384	0.000	0.657	0.000
근속제곱	-0.068	0.000	-0.079	0.000	-0.037	0.000	-0.068	0.000
기타재화생산	-0.830	0.004	-0.900	0.001	-1.186	0.000	-0.583	0.033
생산자서비스업	0.112	0.659	0.085	0.744	-0.101	0.653	0.351	0.127
유통서비스업	-0.420	0.067	-0.450	0.056	-0.675	0.001	-0.237	0.284
개인서비스업	-1.432	0.000	-1.306	0.000	-1.656	0.000	-0.884	0.001
사회서비스업	-0.957	0.000	-0.971	0.000	-2.175	0.000	-0.960	0.000
관리전문직	0.093	0.726	0.084	0.760	0.663	0.003	0.407	0.115
사무직	0.762	0.003	0.770	0.004	0.773	0.000	0.476	0.046
판매서비스직	-0.728	0.004	-0.878	0.001	-1.039	0.000	-0.746	0.003
단순노무직	-0.775	0.002	-0.802	0.001	-1.181	0.000	-0.648	0.013
1~4인	-1.421	0.000	-1.291	0.000	-1.595	0.000	-1.561	0.000
5~9인	-0.599	0.019	-0.589	0.025	-0.798	0.000	-0.759	0.003
10~29인	0.009	0.970	0.064	0.805	-0.206	0.325	-0.103	0.671
30~99인	0.622	0.020	0.751	0.006	-0.079	0.717	0.191	0.444
100~299인	0.491	0.110	0.390	0.220	0.194	0.419	0.443	0.108
노조유비조합원	0.844	0.000	0.944	0.000	-0.229	0.190	0.036	0.835
노조유조합원	1.404	0.000	1.464	0.000	-0.642	0.002	1.584	0.000
비정규직	-4.410	0.000	-4.784	0.000	-1.977	0.000	-6.004	0.000
상수	-7.354	0.052	-7.154	0.056	-10.634	0.001	-2.385	0.543
관측치	4,781		4,781		4,781		4,781	
로그우도비	-1,246		-1,223		-1,751		-1,224	
모형 설명력	0.572		0.578		0.427		0.607	

주: <표 5-8>과 같음.

〈표 5-17〉의 계속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모형9)	
	상여급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근로계약서면		교육훈련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0.001	0.995	-0.209	0.053	0.083	0.484	-0.105	0.278	-0.061	0.537
기혼	0.296	0.169	-0.066	0.698	0.157	0.408	-0.018	0.901	-0.142	0.346
배우자	-0.706	0.028	0.093	0.678	-0.274	0.292	-0.015	0.938	-0.155	0.442
기타가구원	-0.252	0.088	-0.003	0.976	0.011	0.931	0.023	0.823	-0.212	0.042
연령	0.572	0.082	0.305	0.240	0.448	0.092	0.808	0.000	0.381	0.101
연령제곱	-0.011	0.093	-0.006	0.218	-0.009	0.097	-0.017	0.000	-0.008	0.088
중졸이하	-0.426	0.290	-0.150	0.675	-0.409	0.228	-0.783	0.009	-1.250	0.004
고졸	-0.273	0.133	-0.408	0.003	-0.445	0.004	-0.382	0.001	-0.673	0.000
전문대졸	0.105	0.487	-0.124	0.286	0.029	0.832	0.039	0.706	-0.301	0.002
재학중	-0.621	0.004	-0.369	0.026	-0.774	0.000	-0.322	0.026	-0.599	0.000
근속년수	0.625	0.000	0.186	0.002	0.338	0.000	0.184	0.000	0.211	0.000
근속제곱	-0.062	0.000	-0.010	0.197	-0.028	0.001	-0.015	0.020	-0.012	0.071
기타재화생산	-0.255	0.431	-0.463	0.030	-0.482	0.066	-0.211	0.218	-0.224	0.264
생산자서비스업	0.298	0.162	0.248	0.133	0.475	0.011	0.517	0.001	0.462	0.001
유통서비스업	-0.176	0.408	-0.195	0.215	-0.046	0.803	-0.087	0.522	0.169	0.232
개인서비스업	-0.916	0.000	-0.662	0.001	-0.496	0.016	-0.471	0.004	0.034	0.848
사회서비스업	-0.885	0.000	0.097	0.532	-0.239	0.195	-0.346	0.019	0.652	0.000
관리전문직	0.553	0.033	-1.076	0.000	0.037	0.857	0.420	0.007	-0.125	0.445
사무직	0.332	0.145	-1.007	0.000	0.344	0.069	0.386	0.009	-0.178	0.258
판매서비스직	-0.511	0.030	-0.882	0.000	-0.514	0.011	-0.172	0.278	0.302	0.089
단순노무직	-0.659	0.012	-0.768	0.000	-0.930	0.000	-0.124	0.497	-0.462	0.039
1~4인	-0.823	0.001	-1.863	0.000	-1.263	0.000	-2.044	0.000	-1.559	0.000
5~9인	-0.457	0.056	-1.372	0.000	-0.996	0.000	-1.346	0.000	-0.799	0.000
10~29인	0.007	0.976	-0.732	0.000	-0.342	0.074	-0.766	0.000	-0.345	0.012
30~99인	0.240	0.320	-0.163	0.305	0.117	0.543	-0.291	0.052	-0.358	0.008
100~299인	0.470	0.068	0.010	0.959	0.249	0.251	0.078	0.655	0.053	0.723
노조유비조합원	0.132	0.427	0.523	0.000	0.503	0.001	0.579	0.000	0.188	0.111
노조유조합원	1.814	0.000	1.623	0.000	1.196	0.000	0.124	0.386	0.692	0.000
비정규직	-4.410	0.000	-1.907	0.000	-2.609	0.000	-0.091	0.287	-0.417	0.000
상수	-3.920	0.339	-1.163	0.720	-3.506	0.278	-8.812	0.001	-4.468	0.125
관측치	4,781		4,781		4,781		4,781		4,781	
로그우도비	-1,331		-2,119		-1,789		-2,660		-2,544	
모형 설명력	0.587		0.349		0.452		0.196		0.133	

주: <표 5-8>과 같음.

<표 5-17>은 인적 속성(성, 혼인, 가구주관계, 연령, 학력)과 일자리 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 근속연수, 비정규직)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짓분석한 결과이다. 학력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적용받을 확률은 ‘전문대졸>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순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확률은 ‘전문대졸>고졸>대졸이상>중졸이하’ 순으로, 대졸이상의 고용보험 가입확률이 고졸보다 낮다. 이는 공무원과 교원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둘째, 학력은 상여금 지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간외 수당과 유급휴가는 고졸만 유의미하게 낮고, 근로계약 서면작성은 ‘전문대졸<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순이고, 교육훈련은 ‘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중졸이하’ 순이다.

<표 5-18> 학력별 취업 동기

(2009년 3월, 15~29세 노동자)

	자발적 취업			자발적 취업사유			비자발적 취업사유		
	자발적 취업	비자발적 취업	근로조건만족	안정된 일자리	기타	생활비 등수입 필요	원하는 일자리 없어	전공경력 맞는 일자리무	기타
중졸이하	21.4	78.6	11.4	1.4	8.6	55.7	10.0	5.7	7.1
고졸	52.3	47.7	25.0	21.1	6.3	20.1	14.1	3.1	10.4
전문대졸	71.6	28.4	30.9	30.5	10.3	6.7	9.1	3.2	9.4
대졸이상	78.3	21.7	35.9	31.5	10.9	3.4	5.9	2.7	9.7
재학중	45.9	54.1	15.1	7.4	23.4	15.5	7.8	3.8	27.0
전 체	64.2	35.8	28.3	24.6	11.2	11.3	9.2	3.2	12.2

5. 자발적 취업 여부

현재의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중졸이하(78.6%)>고졸(47.7%)>전문대졸(28.4%)>대졸이상(21.7%)'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자발적 취업이 많다. 비자발적 취업 사유로 중졸이하(55.7%)와 고졸(20.1%), 재학 중(15.5%)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에 가장 많이 응답하고, 전문대졸(9.1%)과 대졸이상(5.9%)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에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다.

6. 소 결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청년(15~29세) 노동자의 노동력 구성과 고용의 질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노동자 357만 명 가운데 남성은 165만 명(46.3%)이고 여성은 192만 명(53.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대졸이상 107만 명(30.1%), 전문대졸 103만 명(28.7%), 고졸 90만 명(25.3%), 중졸이하 7만 명(2.0%)으로, 청년 노동자들의 학력수준이 높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

둘째, 청년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 사업체 규모와 노조 유무는 학력에 따라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업이나 생산자서비스업, 사무관리직과 전문직,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개인서비스업이나 유통서비스업,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많다.

셋째, 비정규직 비율은 '중졸이하(90.0%)>고졸(60.0%)>전문대졸(46.0%)>대졸이상(41.0%)'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다. 다른 조건을 통제했을 때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은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전문대졸' 순으로 중졸이하와 고졸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대졸이상도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고졸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넷째, 근속연수 평균은 '중졸이하(1.0년)<대졸이상(1.8년)<고졸(1.9년)<전문대졸(2.0년)' 순이다. 여기서 대졸이상이 고졸과 전문대졸보다 근속연수 평균값이 짧은 것은, 그만큼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기 때문이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중은 '중졸이하(64.3%)>고졸(46.1%)>전문대졸(40.1%)>대졸이상(39.2%)' 순이고, 신규취업 실패율도 '중졸이하(45.7%)>고졸(26.1%)>전문대졸(20.1%)>대졸이상(13.5%)'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다.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그만큼 일자리가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대졸이상 월평균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대졸은 82.4, 고졸은 76.4, 중졸이하는 56.0으로 그 격차가 크다.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력별 순임금격차를 계산하면, 대졸이상 월평균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대졸은 89.3, 고졸은 85.8, 중졸이하는 78.8이다.

여섯째, 대졸이상 시간당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대졸은 76.9, 고졸은 66.9, 중졸이하는 46.6이다.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력별 순임금격차는, 대졸이상 시간당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대졸은 89.0, 고졸은 82.0, 중졸이하는 72.3이다. 월임금총액보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학력별 순임금격차가 큰 것은, 그만큼 저학력층의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일곱째,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천원) 미달자는 40만 5천명(11.4%)으로, 9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중졸이하(42.9%)>재학생(29.3%)>고졸(13.0%)>전문대졸(6.6%)>대졸이상(4.1%)'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다. 다른 조건을 통제했을 때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을 확률은 중졸이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재학생 아르바이트가 높다.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여덟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은 '중졸이하(72.9%)>고졸(31.3%)>전문대졸(19.3%)>대졸이상(10.2%)'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고, 고임금계층은 '중졸이하(2.9%)<고졸(6.2%)<전문대졸(11.8%)<대졸이상(33.3%)'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저임금계층에 속할 확률은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순이고,

고임금계층에 속할 확률은 '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 순으로, 학력에 반비례한다.

아홉째, 주당 노동시간은 '중졸이하(51.4시간)>고졸(48.0시간)>전문대졸(45.0시간)>대졸이상(42.0시간)'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길다.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도 '중졸이하(57.7%)>고졸(37.8%)>전문대졸(25.7%)>대졸이상(13.4%)' 순이고, 주5일제 실시도 '중졸이하(9.1%)<고졸(35.9%)<전문대졸(53.1%)<대졸이상(69.2%)' 순으로, 학력에 따라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열 번째,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순으로 노동시간이 길다. 장시간근로도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고, 단시간 근로는 재학생과 대졸이상에서 높다. 주5일제 실시도 '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중졸이하'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주5일제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다.

열한 번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중졸이하' 순으로 학력에 비례한다. 공무원과 교원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고용보험 가입률도 전문대졸이 대졸이상보다 높은 것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다. 이 밖에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근로계약 서면작성 등 기타 노동조건 적용률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적용받는 비율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낮다.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도 마찬가지다.

열두 번째,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적용받을 확률은 '전문대졸>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순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확률은 '전문대졸>고졸>대졸이상>중졸이하' 순으로, 대졸이상이 고졸보다 낮다. 이는 공무원과 교원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학력은 상여금 지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는 고졸만 유의미하게 낮고, 근로계약 서면작성은 '전문대졸≐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순이며, 교육훈련은 '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중졸이하' 순이다.

열세 번째, 현재의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중졸이하(78.6%)>고졸(47.7%)>전문대졸(28.4%)>대졸이상(21.7%)'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자발적 취업이 많다. 비자발적 취업사유로 중졸이하(55.7%)와 고졸

(20.1%), 재학생(15.5%)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에 가장 많이 응답하고, 전문대졸(9.1%)과 대졸이상(5.9%)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에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고용의 질은 학력에 따라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며, 고학력자일수록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저학력자일수록 질 나쁜 일자리에 취업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제6장

고졸 청년 구직자의 사무관련직 선호 경향과 임금프리미엄

1. 머리말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85%가 전문대학 이상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청년실업 문제와 대책은 주로 대졸 청년층의 실업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청년층 노동시장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15%의 고졸 청년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자리에 취업하는가의 문제는 고졸 청년구직자들의 미래 소득과 고용안정성을 결정짓는 문제임과 동시에, 중소기업 및 제조관련 생산직의 구인난 해소의 해결고리이기도 하다. 이미 고학력화된 노동시장에서 고졸 청년층의 일자리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서 불안정고용과 실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소기업 및 제조관련 생산직의 구인난을 겪어온 우리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기술 기능을 가진 고졸 청년인력의 양성과 이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글은 고졸 청년층 구직자의 구직행태와 취업직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주제는 고졸 청년층이 대졸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사무관련직을 선호하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선호가 사무관련직 일자리의 임금프리미엄 때문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약 고졸

청년층에서도 사무관련직의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한다면, 고졸 구직자들은 훈련과 자격취득을 통해서 기술·기능직으로의 취업하기보다는 사무관련직으로의 취업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졸 청년층의 뒤늦은 대학진학 선택을 회피할 수 없으며, 고질적인 기술·기능직 구인난도 완화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졸 청년층의 과거직업, 희망직업, 그리고 실제 취업직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졸 청년구직자가 사무관련직 선호경향을 갖는가를 살펴보았다. 직장 변경과정에서 과거직업이나 희망직업이 실제 취업직업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보는 한편, 다른 직업으로부터 사무관련직으로의 이동행태를 성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과거직업의 변경이나 희망직업의 변경이 현재의 임금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특히 다른 직업에서 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한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임금 프리미엄을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고용정보원의 2007년과 2008년 상반기 워크넷 자료를 이용하여,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과거에 직업을 가졌고 현재 취업상태인 사람들에게 한정된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이 자료는 구직자의 과거직업, 희망직업, 현재 취업직업과 함께 구직당시의 의중임금 및 제시임금 정보를 담고 있다. 구직자의 의중임금은 구직 등록시에 보고된 희망직종의 희망임금 수준이며, 제시임금은 실제 취업알선이 이루어진 구인직업에서의 제시임금이다. 따라서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고졸 청년층 구직자의 과거직업과 현재직업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직장 이동과정에서 희망임금과 제시임금의 격차를 살펴볼 수 있다.

2. 고졸 청년층의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

2007년 워크넷의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을 살펴보면, 신규 구인인원은 1,151천 명이고 신규 구직자 수는 2,230천 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직자 대비 취업성공률은 26.6%이며, 구인인원의 총족률은 51.6%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고졸은 신규 구인인원의 37.0%이며, 신규 구직자 수의 43.0%, 취업건수의 42.5%를 차지하고 있어 워크넷을 통한 구직 및 구인인원의 다수를 차지한다.

〈표 6-1〉 2007년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단위: 명, 건, %)

		신규구인인원		신규구직자수		취업건수		취업 성공률	구인 총족률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151,052	100	2,230,916	100	593,573	100.0	26.6	51.6
학 력 별	중졸 이하	50,485	4.4	447,849	20.1	106,837	18.0	23.9	211.6
	고졸	425,652	37.0	959,959	43.0	252,217	42.5	26.3	59.3
	전문대졸	177,331	15.4	390,194	17.5	115,944	19.5	29.7	65.4
	대졸	33,385	2.9	417,870	18.7	114,334	19.3	27.4	342.5
	대학원졸 이상	941	0.1	15,042	0.7	4,241	0.7	28.2	450.7
	관계없음	463,258	40.2	-	-	-	-	-	-
임 금 대 별	100만원 미만	347,861	30.2	427,215	19.1	120,076	20.2	28.1	34.5
	100만~150만원	513,565	44.6	823,057	36.9	215,324	36.3	26.2	41.9
	150만~200만원	210,174	18.3	516,579	23.2	137,008	23.1	26.5	65.2
	200만~250만원	53,320	4.6	246,535	11.1	59,596	10.0	24.2	111.8
	250만원 이상	25,967	2.3	216,493	9.7	61,357	10.3	28.3	236.3
연 령 대 별	20대 이하	400,451	34.8	778,481	34.9	220,001	37.1	28.3	54.9
	30대	479,572	41.7	568,022	25.5	155,195	26.1	27.3	32.4
	40대	111,816	9.7	387,225	17.4	102,494	17.3	26.5	91.7
	50대	30,303	2.6	344,052	15.4	81,477	13.7	23.7	268.9
	60대 이상	8,970	0.8	153,120	6.9	34,404	5.8	22.5	383.5
	관계없음	119,940	10.4	-	-	-	-	-	-

주: 1) 남녀고용평등법상 성별 구인인원은 제시되지 못함.

2) '관계없음'은 고용형태, 연령, 학력 등의 각 특성별 차이에 상관없이 구인 또는 구직을 신청한 경우를 의미함.

3) 분류불능이나 임금 무응답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7), 『워크넷 통계연보』.

워크넷에 등록된 고졸 청년층 신규 구직자 수는 298천 명이고 이 중에서 취업건수는 85천 명으로 나타나, 이들의 취업성공률은 28.4%로 나타난다. 이는 전문대졸 31.5%, 대졸이상자의 29.6%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이다.

고졸 신규 구직자 중에서 청년층의 수치는 장년층에 비해서 크게 늘지 않았다(그림 6-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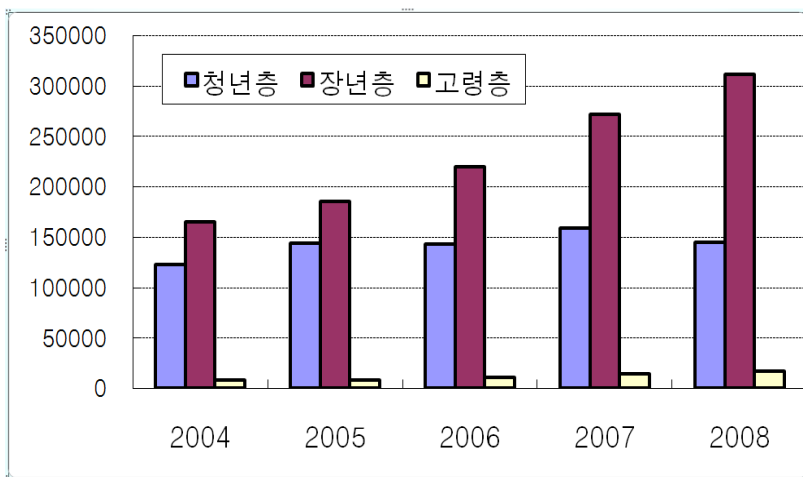
〈표 6-2〉 고졸 청년층의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2008)

(단위: 명, 건, %)

	신규구직인원	신규구직자수	취업건수	취업성공률	구인층족률
중졸이하	6,638	20,130	3,492	17.3	52.6
고졸	197,543	298,499	84,790	28.4	42.9
전문대졸	82,488	220,271	69,372	31.5	84.1
대졸이상	12,739	196,718	58,285	29.6	457.5
무관	92,093	-	-	-	-
전 체	391,501	735,618	215,939	29.4	55.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8), 「워크넷 DB 원자료」.

[그림 6-1] 고졸의 연령계층별 구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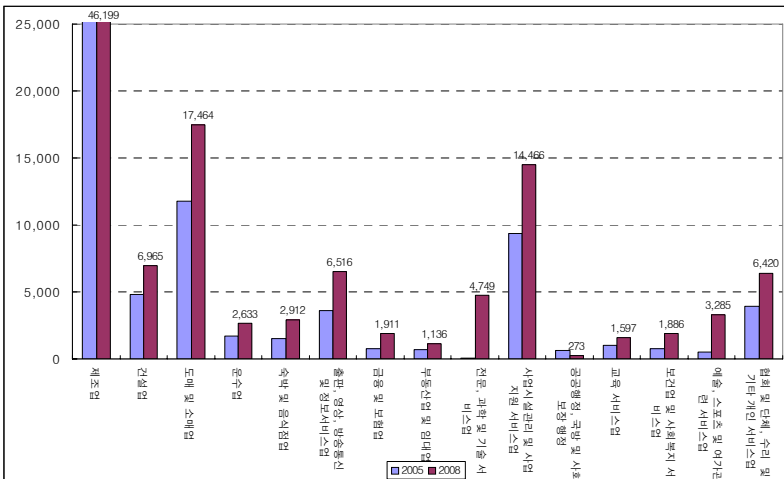
자료: <부표 6-1>에서 재구성.

고졸 신규구직자 수는 2004년 230천 명에서 2008년 299천 명으로 증가했으나, 그 증가 추세는 장년층의 증가 추세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다. 고졸 청년층에 대한 구인인원도 2008년 현재 119천 명으로 2005년 86천 명에 비해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고졸 구인인원 중에서 청년층의 비율은 2005년 52.4%에서 2008년 47.4%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역시 장년층에 대한 구인인원의 증가 추세에 의한 것이다(부표 6-1 및 부표 6-2 참조).

고졸 청년층에 대한 신규구인인원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고, 도소매업, 사업지원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도소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고졸 청년층에 대한 구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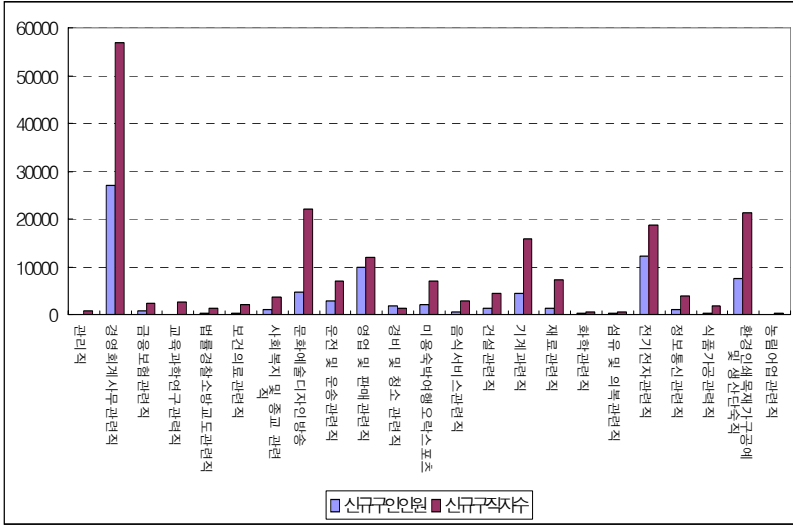
그러나 고졸 청년층이 원하는 직업과 사업체의 구인직종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고졸 청년층 신규구직자가 원하는 직업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생산단순직, 전기·전자관련직의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업체의 구인직종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 전기·전자관련직, 영업·판매단순직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6-2] 산업별 신규 구인인원의 특징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8), 『워크넷 DB 원자료』.

[그림 6-3] 고졸 청년층의 직업별 신규 구인인원과 신규구직자 수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8), 『워크넷 DB 원자료』.

특히, 고졸 청년층의 희망직업이 경영·회계·사무관련직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졸 청년층의 상당수가 사무관련직을 원하는 반면, 고졸 청년층에 대한 구인은 사무관련직 이외에도 영업·판매관련직, 전기·전자관련직, 생산·단순직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고졸 청년층 구직자의 희망직업과 실제 고졸에 대한 구인의 차이는 우리 사회에서 구인·구직의 불일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한다.

3. 고졸 청년층의 사무관련직 선호 경향

이 절에서는 과거 직업을 가졌던 워크넷 신규 등록자 중에서 현재 취업한 사람에 한정하여 직업의 이동형태와 취업 전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7년에서 2008년 5월까지의 워크넷 신규 구직자 원자료 중에서 과거직업을 가진 적이 있고 현재 취업한 사람에 한정하여 자료를 재구축하였다. 의중임금 및 제시임금 자료는 자료의 신뢰성을 위하여 양극단 0.05%를 제거하였다.

그 결과로 197,718명의 개인별 관측치를 구축하였는데, 학력별 구성은 중졸 6.6%, 고졸 45.9%, 전문대졸 27.4%, 대졸 20.1%로 구성되었다(표 6-3 참조). 이 중 청년층 관측치는 82,988명으로, 학력별 구성은 중졸 이하 0.4%, 고졸 42.3%, 전문대졸 37.7%, 대졸 19.6%로 나타났다. 학력 및 연령계층별 여성 비율을 보면(표 6-4 참조), 청년층의 69%가 여성으로 장년층이나 고령층에 비해 여성 비율이 높는데, 이는 청년 남성의 군복무 기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에서 학력별 여성 비율은 고졸 65.3%, 전문대졸 73.0%, 대졸 70.0%로 나타난다.

과거직업을 가졌던 고졸 청년층 구직자의 희망직업을 살펴보면, 이들의 사무관련직 선호 경향을 알 수 있다. 고졸 청년층의 전직에서는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이 49.4%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이 구직을 희망하는 희망직업에서도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이 62.5%로 매우 높았다.

〈표 6-3〉 연령계층별 분포

(단위: 천명, %)

	전 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청년층	82,988 (100.0)	336(0.4)	35,074(42.3)	31,305(37.7)	16,273(19.6)
장년층	99,617 (100.0)	6,403(6.4)	48,902(49.1)	22,418(22.50)	21,894(22.0)
고령층	15,113 (100.0)	6,329(41.9)	6,813(45.1)	347(2.3)	1,624(10.80)
전 체	197,718(100.0)	13,068(6.6)	90,789(45.9)	54,070(27.4)	39,791(2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추출자료」, 2007-2008년 상반기.

〈표 6-4〉 학력 및 연령계층별 여성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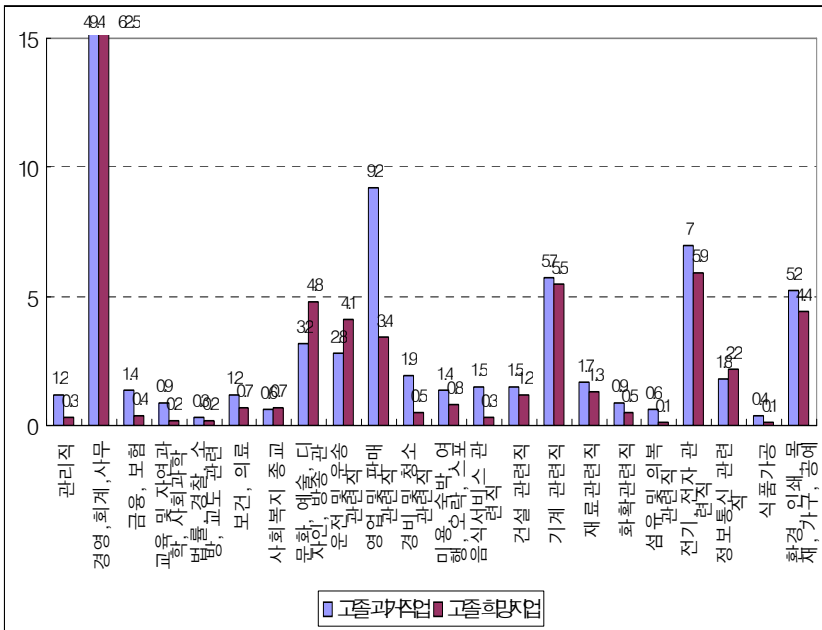
	전 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청년층	69.0	24.1	65.3	73.0	70.0
장년층	41.9	43.7	46.4	42.0	30.9
고령층	16.2	29.9	6.7	8.9	1.0
전 체	51.3	36.5	50.4	59.8	45.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추출자료」, 2007-2008 상반기.

그 외에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과 운전·운송관련직은 전직 직업의 비율보다 희망직업의 비율이 높은 직종들이다. 반면에 과거에 구직자들이 종사했던 직업이지만 희망직업 비율이 낮은 직업으로는 대표적으로 영업·판매관련직을 들 수 있다. 고졸 청년층의 전직을 보면 이 직업에서의 종사 비율이 9.2%였으나, 구직시 희망직업에서는 3.4%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과거에 종사했던 직업보다 희망직업 비율이 낮은 직업은 영업·판매관련직과 대부분의 제조업관련 생산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에 종사했던 직업보다 희망직업의 비율이 높은 직업은 주로 사무관련직으로 나타난다.

고졸 청년층의 과거직업을 보면 성별로 뚜렷한 차이를 알 수 있다. 고졸 남성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이 기계관련직, 전기·전자관련직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고졸 여성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에 67.8%로 뚜렷한 편중 현상을 보인다.

[그림 6-4] 고졸 청년층의 과거직업과 희망직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추출자료」, 2007-2008년 상반기.

〈표 6-5〉 고졸 청년층의 과거직업과 희망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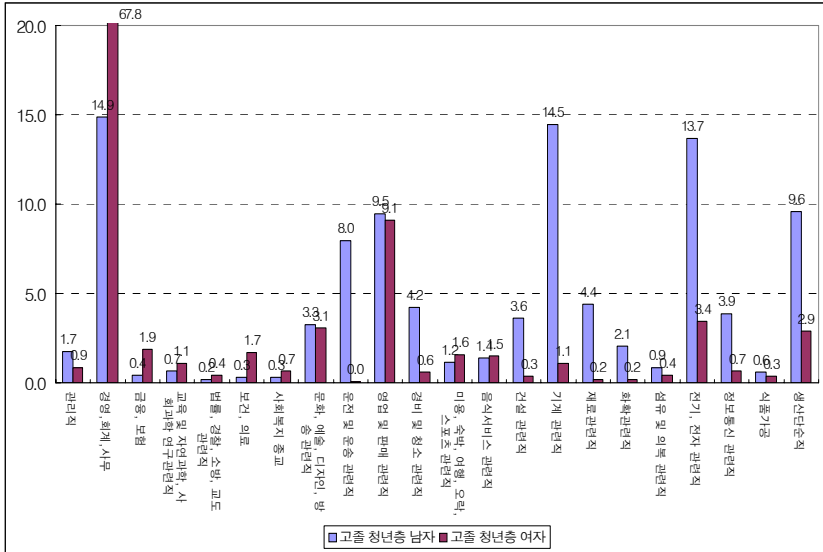
(단위: %)

직종	전체			남자			여자		
	과거	희망	현재	과거	희망	현재	과거	희망	현재
	직업	직업	직업	직업	직업	직업	직업	직업	직업
관리직	1.2	0.3	0.1	1.7	0.8	0.2	0.9	0.1	0.1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49.4	62.5	59.2	14.9	20.8	16.1	67.8	84.6	82.1
금융·보험 관련직	1.4	0.4	0.3	0.4	0.1	0.2	1.9	0.5	0.4
교육 및 연구관련직	0.9	0.2	0.2	0.7	0.1	0.1	1.1	0.3	0.3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0.3	0.2	0.2	0.2	0.2	0.2	0.4	0.2	0.2
보건·의료 관련직	1.2	0.7	0.7	0.3	0.1	0.1	1.7	1.0	0.9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6	0.7	0.7	0.3	0.3	0.3	0.7	0.9	1.0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3.2	4.8	4.4	3.3	4.8	4.3	3.1	4.8	4.4
운전·운송 관련직	2.8	4.1	4.5	8.0	11.8	13.0	-	-	-
영업·판매 관련직	9.2	3.4	4.8	9.5	6.4	8.8	9.1	1.8	2.7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9	0.5	1.3	4.2	1.1	2.2	0.6	0.1	0.9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4	0.8	0.7	1.2	0.6	0.5	1.6	0.9	0.9
음식서비스 관련직	1.5	0.3	0.3	1.4	0.3	0.3	1.5	0.2	0.3
건설 관련직	1.5	1.2	1.2	3.6	2.5	2.6	0.3	0.5	0.5
기계 관련직	5.7	5.5	5.6	14.5	15.2	15.3	1.1	0.4	0.5
재료관련직	1.7	1.3	1.7	4.4	3.7	4.6	0.2	-	0.1
화학관련직	0.9	0.5	0.7	2.1	1.4	1.7	0.2	0.1	0.2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6	0.1	0.2	0.9	0.1	0.3	0.4	0.1	0.2
전기·전자 관련직	7.0	5.9	6.0	13.7	14.2	13.3	3.4	1.5	2.1
정보통신 관련직	1.8	2.2	2.1	3.9	5.8	5.3	0.7	0.3	0.4
식품가공 관련직	0.4	0.1	0.2	0.6	0.2	0.4	0.3	0.1	0.2
환경·인쇄 및 생산단순직	5.2	4.4	4.7	9.6	9.5	10.2	2.9	1.6	1.7
농림어업 관련직	0.1	-	0.1	0.1	0.1	0.2	-	-	0.1
전체	35,074(100.0)			12,170(100.0)			22,904(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추출자료」, 2007-2008년 상반기.

고졸 여성의 사무관련직 집중 현상은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졸 여성이 대부분 사무종사자와 서비스종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관련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년층 고졸 사무종사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71.9%로, 대졸 사무종사자의 여성비율 62.7%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다(표 6-6 참조).

[그림 6-5] 고졸 청년층의 성별 과거직업의 차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위크넷 DB 추출자료」, 2007-2008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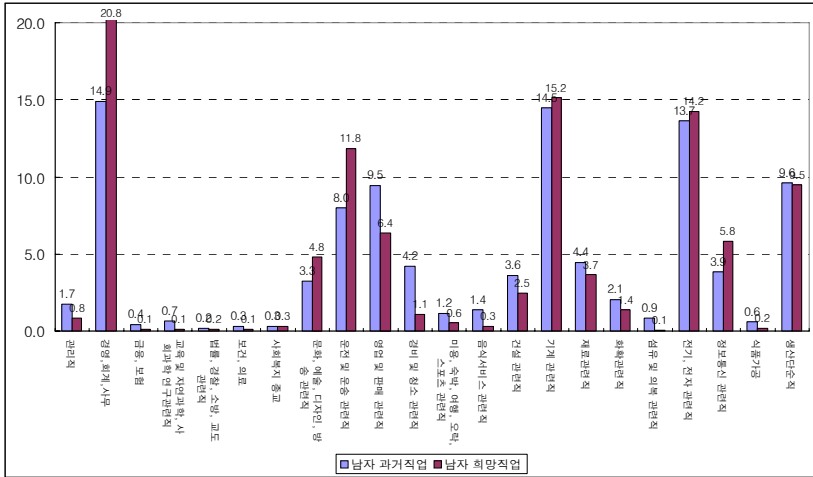
〈표 6-6〉 청년층의 학력별 직업분포와 여성비율(2008)

	고졸 남	고졸 여	대졸 남	대졸 여	고졸의 여성비율	대졸의 여성비율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	0.2	-	-	-
전문가	2.3	3.9	26.8	34.9	57.9	63.1
기술공 및 준전문가	9.5	11.6	23.9	15.7	50.1	46.4
사무 종사자	10.9	33.9	34.2	43.7	71.9	62.7
서비스 종사자	15.5	22.2	3.7	2.5	54.0	47.3
판매 종사자	12.3	8.3	3.0	2.6	55.1	53.3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0.2	-	0.3	-	17.1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5.2	0.9	3.7	-	4.8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7.0	4.8	2.4	0.5	18.7	21.9
단순노무 종사자	17.1	4.5	1.8	0.1	17.8	8.6
전 체	857 (100.0)	705 (100.0)	436 (100.0)	574 (100.0)	45.1	56.9

자료: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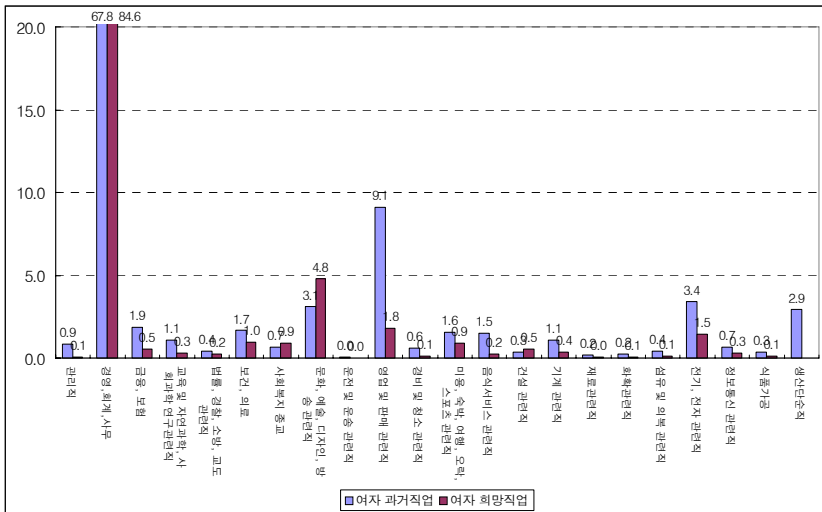
성별 직업의 차이를 고려하여 성별로 고졸 청년층의 과거직업과 희망직업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6-6] 및 [그림 6-7]에 나타나 있다.

[그림 6-6] 고졸 청년층의 과거 직업의 차이(남성)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추출자료」, 2007-2008년 상반기.

[그림 6-7] 고졸 청년층의 과거 직업의 차이(여성)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추출자료」, 2007-2008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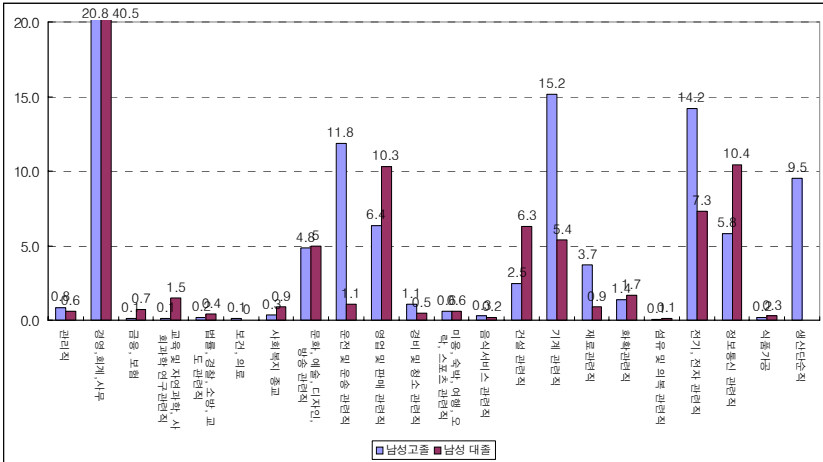
먼저 남성의 경우 과거직업보다 희망직업의 비율이 높은 직업은 대표적으로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이며, 운전·운송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으로 나타난다. 또한 기계 및 전기·전자관련직에서는 과거직업과 희망직업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다. 과거직업에 비해서 희망직업이 낮은 직업은 영업·판매관련직, 경비·청소관련직, 건설관련직 등으로, 영업직이나 3D 직종에 대한 고졸 청년층의 기피현상을 보여준다.

고졸 청년 여성의 경우에는 특정 직업으로의 편중이 더욱 심각하다. 이미 과거에도 경영·회계·사무관련직에 대한 집중도는 67.8%에 달했으나, 희망직업은 그보다 높은 84.6%로 나타난다. 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사무관련직을 제외하고 과거직업보다 희망직업 비율이 높은 직업은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에 불과하다. 또한 고졸 청년층은 과거 직업에서 영업·판매관련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9.1%에 달했으나 희망직업으로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이를 고려할 때 고졸 청년층에서는 남녀 모두에게서 경영·회계·사무관련직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선호는 고졸 청년 여성에게서 매우 강하다. 고졸 남성은 기계 및 전기·전자관련직, 운전·운송관련직 등에서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서 과거직업과 희망직종 간의 간극이 크지 않은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사무관련직에 대한 편중이 희망직업에서도 대단히 높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고졸 청년층에게 제시되는 직업은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업·판매관련직, 제조업 생산직 및 생산단순직이어서 고졸 청년층의 눈높이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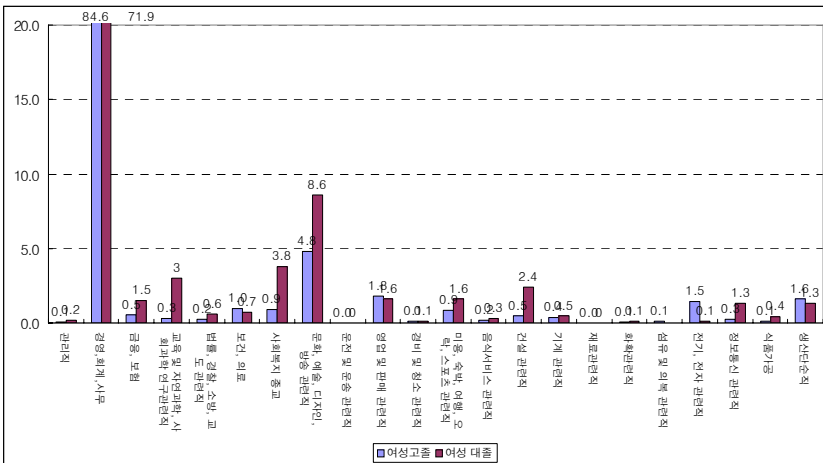
청년층 고졸과 대졸의 희망직업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희망직업이 학력별로 차이가 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학력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그림 6-8 및 그림 6-9 참조). 남성 고졸 청년의 희망직업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20.8%), 기계관련직(15.2%), 전기·전자관련직(14.2%), 운전·운송관련직(11.8%)의 순으로 나타나지만, 남성 대졸 청년의 희망직업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40.5%), 정보통신관련직(10.4%), 영업·판매관련직(10.3%)의 순을 보인다.

[그림 6-8] 남성 청년층의 학력별 희망직업의 차이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추출자료」, 2007-2008년 상반기.

[그림 6-9] 여성 청년층의 학력별 희망직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추출자료」, 2007-2008년 상반기.

즉 남성 청년층의 경우에는 고졸과 대졸 간에 선호직업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고졸과 대졸의 희망직업에 큰 차이가 없다. 고졸과 대졸 모두 희망직업이 경영·회계·사무관련직에 70~80%가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직업도 문화·예술·

디자인·방송관련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영업·판매관련직에 대한 기피 현상도 동일하다.

이는 고졸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도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방향을 취해야 함을 보여준다. 고졸 남성의 경우 학업과 자격증 취득이 취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거직업과 희망직업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고졸 여성의 경우에는 뚜렷한 사무관련직 편중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일자리 수가 사무관련직 일자리보다 이들이 기피하는 영업·판매관련직 및 생산관련직 일자리가 더 많은 점에 문제가 있다. 고졸 청년층에 대한 자격증 취득과 일자리 연계정책이 자리매김되어야 하며, 특히 고졸 청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을 정책방향으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4. 고졸 청년층의 사무관련직 이동

이 절에서는 청년층의 학력별 직업이동 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자료에서는 과거직업, 구직등록 시 희망직업, 현재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과거직업과 현재직업의 유지 및 이동 또는 희망직업과 현재직업의 유지 및 이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표 6-7> 직업의 변경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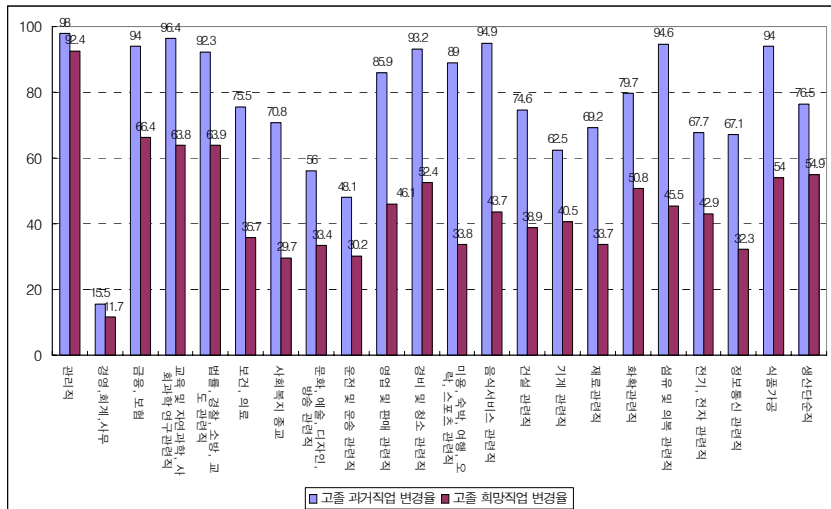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과거직업 변경	50.7	42.6	50.6	55.3	47.3
과거직업 유지	49.3	57.4	49.4	44.7	52.7
희망직업 변경	71.3	60.0	70.9	75.8	69.8
희망직업 실현	28.7	40.0	29.1	24.2	30.2
전 체	197,718	13,068	90,789	54,070	39,79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추출자료」, 2007-2008년 상반기.

여기에서 과거직업의 유지 및 이동은 과거직업과 현재직업이 한국 고용직업분류 대분류 사이에서 이동한 경우를 변경으로 보고, 동일한 대분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를 과거직업의 유지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희망직업의 유지 및 변경도 구직 당시 희망직업과 현재직업이 직업 대분류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를 유지로 보았으며, 변경되는 경우를 변경으로 보았다. 이렇게 살펴본 직업의 변경 비율이 <표 6-7>에 나타나 있다.

직업 대분류 수준에서 과거직업의 변경 비율은 50.7%이며 희망직업의 변경 비율은 71.3%로 나타난다. 이는 과거직업을 가졌던 구직자들의 절반이 과거직업과는 다른 직업으로 취업했다는 것이며, 구직 과정에서 희망했던 직업과는 다른 직업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71.3%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력별로 직업이동 비율은 차이가 있는데, 과거직업의 변경 비율은 고졸 50.6%, 전문대졸 55.3%, 대졸 47.3%로 나타났다. 희망직업이 현재직업과 달라진 비율은 고졸 70.9%, 전문대졸 75.8%, 대졸 69.8%로 나타났다. 고졸에 한정하여 과거직업의 변경 비율과 희망직업 변경 비율을 보면 [그림 6-10]과 같다.

[그림 6-10] 고졸의 직업별 과거직업 변경 비율과 희망직업 변경 비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추출자료』, 2007-2008년 상반기.

먼저 과거직업의 변경률이 낮은 직종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 15.5%, 운전·운송관련직 48.1%,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56.0%의 순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희망직업의 변경 비율이 낮은 직종도 경영·회계·사무관련직 11.7%, 사회복지·종교관련직 29.7%, 운전·운송관련직 30.2%, 정보통신관련직 32.3%,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33.4%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은 구직자의 선호가 높지만, 과거 직업이나 희망직업의 변경 비율이 대단히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사무관련직에서는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사무관련직 내에서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8〉 고졸 및 대졸 청년층의 과거직업 및 희망직업 변경

(단위: 명, %)

	고 졸				대 졸			
	빈도	과거직업 변경	빈도	희망직업 변경	빈도	과거직업 변경	빈도	희망직업 변경
관리직	407	98.0	119	92.4	237	99.6	50	88.0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17,340	15.5	21,902	11.7	7647	21.6	10,175	15.5
금융·보험 관련직	483	94.0	134	66.4	333	90.4	206	67.0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329	96.4	80	63.8	1349	90.7	414	46.9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117	92.3	72	63.9	90	84.4	84	66.7
보건·의료 관련직	421	75.5	241	35.7	156	80.1	85	36.5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92	70.8	249	29.7	338	58.3	475	3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1,108	56.0	1,693	33.4	1135	52.9	1,231	29.9
운전·운송 관련직	980	48.1	1,442	30.2	121	86.8	56	41.1
영업·판매 관련직	3,239	85.9	1,181	46.1	1420	79.9	681	38.0
경비 및 청소 관련직	648	93.2	166	52.4	250	95.2	31	48.4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501	89.0	269	33.8	382	85.9	218	42.2
음식서비스 관련직	508	94.9	87	43.7	333	94.9	42	38.1
건설 관련직	520	74.6	414	38.9	566	44.9	575	21.6
기계 관련직	2,013	62.5	1,932	40.5	322	64.0	314	41.7
재료관련직	584	69.2	457	33.7	60	83.3	44	47.7
화학관련직	300	79.7	177	50.8	86	70.9	96	54.2
섭유 및 의복 관련직	205	94.6	33	45.5	24	100.0	6	100.0
전기·전자 관련직	2,443	67.7	2,064	42.9	419	65.6	370	32.7
정보통신 관련직	627	67.1	768	32.3	527	52.4	659	23.5
식품가공 관련직	149	94.0	50	54.0	70	84.3	61	49.2
환경·인쇄 등 및 생산단순직	1,837	76.5	1,529	54.9	337	50.7	394	29.9
농림어업 관련직	27	92.6	15	73.3	11	81.8	6	66.7
군인	96	100.0	-	-	60	100.0	-	-
전 체	35,074		35,074		16,273		16,273	

〈표 6-9〉 과거직업에서 현재 경영·회계·사무관련직으로의 이동 비율
(단위: 명, %)

	전 체		여 자		남 자	
	빈도	이동비율	빈도	이동비율	빈도	이동비율
관리직	407	47.2	195	76.4	212	20.3
경영·회계·사무관련직	17,340	84.5	15,528	90.0	1,812	37.4
금융·보험 관련직	483	74.1	430	80.7	53	20.8
교육 및 연구관련직	329	59.3	249	70.7	80	23.8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117	75.2	96	81.3	21	47.6
보건·의료 관련직	421	55.1	386	56.2	35	42.9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92	46.4	156	51.9	36	22.2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1,108	30.4	710	40.7	398	12.1
운전·운송 관련직	980	9.0	9	44.4	971	8.7
영업·판매관련직	3,239	56.7	2,089	78.6	1,150	17.0
경비 및 청소 관련직	648	35.5	133	77.4	515	24.7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501	58.5	361	72.0	140	23.6
음식서비스 관련직	508	56.9	339	73.8	169	23.1
건설 관련직	520	17.3	78	51.3	442	11.3
기계 관련직	2,013	14.0	252	56.4	1,761	7.9
재료관련직	584	10.3	46	58.7	538	6.1
화학관련직	300	17.0	49	53.1	251	10.0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05	29.8	100	47.0	105	13.3
전기·전자관련직	2,443	26.6	780	59.2	1,663	11.3
정보통신 관련직	627	24.9	156	67.3	471	10.8
식품가공 관련직	149	45.0	78	66.7	71	21.1
생산단순직	1,837	24.1	669	49.3	1,168	9.6
농림어업 관련직	27	40.7	10	80.0	17	17.7
군인	96	27.1	5	60.0	91	25.3
전 체	35,074	59.2	22,904	82.1	12,170	16.1

주: 이동비율은 과거직업 종사자(빈도) 중에서 현재 직업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으로 이동한 비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추출자료, 2007-2008년 상반기.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에서는 직장을 변경 하면서 직업을 변경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졸 청년층의 경우 사무관리직에 대한 희망이 높다는 점에서 과거 직업에서 경영·회계·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표 6-9〉와 같다. 고졸 청년층 중에서 현재 경영·회계·사무관련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59.2% 인데, 여성 82.1%, 남성 16.1%로 나타난다. 과거 경영·회계·사무관련 직이었던 사람이 동일한 직업을 유지하는 비율은 여성 90%로 나타나는

반면, 남성의 경우 37.4%에 불과하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과거 다른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경영·회계·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 빈도가 500명이 넘는 직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디자인, 방송관련직의 40.7%, 영업·판매관련직의 78.6%, 전기·전자관련직의 59.2%, 생산단순직의 49.3%가 현직 경영·회계·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비해서 남성의 경우에는 과거 다른 직업에 종사했다가 현재 경영·회계·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영업·판매관련직의 17.0%, 기계관련직의 7.9%, 전기·전자관련직의 11.3%, 생산단순직의 9.6%가 경영·회계·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하였다.

이와 같이 고졸 청년층에서 여성이 경영·회계·사무관련직으로 집중되는 경향은 고졸 청년층 여성이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회계, 경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기술·기능 중심의 자격취득이나 훈련을 받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고졸 청년 여성층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경험하다가,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직면하게 되고, 이후에 다시 불안정한 일자리로 복귀하게 되는 전형적인 악순환에 처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5. 취업 전후의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의 결정요인

이 절에서는 청년층 구직자들의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의 격차를 살펴보는 한편,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이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취업임금이 구직자들이 종사했던 과거직업이나 구직시의 희망직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나타난 구직자의 의중임금은 구직 등록시에 보고된 희망직종의 희망임금 수준이며, 제시임금은 실제 취업알선이 이루어진 구인직업에서의 제시임금이다. 실제 알선을 거쳤더라도 실제로 취업한 곳이 알선을 통한 구인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구직자가 만약 알선을 통해 취업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취업했다라도 여기에서는 알선을 통한 구인직업과 제시임금을 실제 취업직종과 제시임금으로 간주하였다.

<표 6-10>은 학력별로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의 격차를 보여준다. 자료에 나타난 전체 구직자의 의중임금은 134.5만 원이고 구인자의 제시임금은 127.6만 원이다.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의 격차는 평균 6.9만 원이다. 이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학력일수록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이 높고,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의 격차도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졸의 경우에는 구직자의 의중임금이 128.9만 원이고 제시임금이 124.0만 원으로 그 격차는 4.9만 원 수준이다.

<표 6-10> 학력별 의중임금 및 제시임금의 평균값

(단위: 만 원)

	전 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희망임금	134.5	106.1	128.9	136.9	153.3
제시임금	127.6	101.4	124.0	130.6	140.3
격 차	6.9	4.7	4.9	6.3	13.1
전 체	197,718	13,068	90,789	54,070	39,791
청년층					
희망임금	126.7	122.1	123.7	126	134.8
제시임금	124.6	117.6	122.4	124.1	130.7
격 차	2.1	4.5	1.3	1.9	4.1
전 체	82,898	336	35,074	31,305	16,273
청년층 여자					
희망임금	117.9	93.3	113.8	118.3	125.5
제시임금	114.7	98.7	113.9	117.1	121.4
격 차	3.2	-5.4	-0.1	1.2	4.1
전 체	57,240	81	22,904	22,859	11,396
청년층 남자					
희망임금	146.3	131.2	142.1	146.9	156.9
제시임금	142.4	123.6	138.2	143.1	152.5
격 차	3.9	7.6	3.9	3.8	4.4
전 체	25,748	255	12,170	8,446	4,87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추출자료」, 2007-2008년 상반기.

청년층으로 한정해 보면 고졸 청년층의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의 격차는 1.3만 원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에는 의중임금이 113.8만 원으로 제시임금과 동일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의중임금이 30만 원 정도 높으며 제시임금과의 격차도 약 3.9만 원에 이르렀다.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의 학력별 격차를 살펴보기 위하여 의중임금 또는 제시임금의 자연대수값을 종속변수로 두고, 최소자승법으로 임금방정식을 회귀분석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성, 연령, 학력, 자격증 여부와 함께 직업 대분류 더미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회귀분석 결과는 성, 연령, 자격증, 직업을 통제한 이후 학력별 의중임금 또는 제시임금의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이 자료에서는 과거직업과 구직시의 희망직업, 현재 취업직업이 파악되고 있으므로, 과거직업(또는 구직시의 희망직업)과 현재 취업직업의 일치 혹은 변경 여부가 취업임금(제시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모형 1).

과거직업의 변경 여부는 과거직업의 23개 직업 대분류가 현재직업의 23개 대분류와 일치하면 과거직업을 유지한 것이며, 일치하지 않으면 과거직업을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마찬가지로 구직시 희망직업의 변경 여부도 구직시의 희망직업이 대분류 수준에서 현재 직업과 일치하면 희망직업이 실현된 것이며, 일치하지 않으면 희망직업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과거직업의 변경(또는 희망직업의 변경)을 보여주는 더미변수의 해석은 과거직업을 변경한 집단이 변경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임금프리미엄 혹은 페널티를 받는가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른 직업으로부터 사무관련직으로 이동했을 때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회귀분석하였다(모형 2). 앞서 기술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고졸 여성의 경우에는 경영·회계·사무관련직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대다수이고, 또한 과거 다른 직종에서 사무관련직으로의 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과연 고졸 청년층에서도 사무관련직으로의 직업 변경이 임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표 6-11〉 <모형 1>의 회귀분석 추정 결과(전체 OLS)

변수명	의중임금			제시임금		
	추정계수	std.Err	P	추정계수	std.Err	P
상수항	4.375	0.010	***	4.580	0.011	***
여성	-0.278	0.001	***	-0.214	0.001	***
연령	0.037	0.000	***	0.017	0.000	***
연령자승	-0.001	0.000	***	0.000	0.000	***
중졸이하	-0.071	0.003	***	-0.042	0.002	***
전문대졸	0.056	0.001	***	0.038	0.001	***
대졸이상	0.122	0.001	***	0.078	0.001	***
자격증여부	0.034	0.001	***	0.023	0.001	***
과거직업 변경	-0.086	0.001	***	-0.046	0.001	***
희망직업 변경	-	-		-0.037	0.001	***
관리직	0.122	0.008	***	0.393	0.010	***
경영·회계·사무관련직	0.009	0.007		0.076	0.009	***
금융·보험관련직	0.029	0.008	***	0.129	0.012	***
교육 및 연구관련직	0.016	0.008	*	0.059	0.011	***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0.020	0.012		0.040	0.016	*
보건·의료관련직	0.013	0.009		0.096	0.011	***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0.056	0.009	***	-0.084	0.010	***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0.079	0.007	***	0.137	0.009	***
운전·운송관련직	-0.007	0.007		0.128	0.009	***
영업·판매관련직	0.034	0.007	***	0.143	0.009	***
경호 및 청소관련직	-0.118	0.007	***	-0.129	0.009	***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0.025	0.008	**	-0.039	0.011	***
음식서비스관련직	-0.014	0.008		-0.053	0.010	***
건설관련직	0.157	0.007	***	0.255	0.009	***
기계관련직	0.090	0.007	***	0.184	0.009	***
재료관련직	0.100	0.008	***	0.164	0.010	***
화학관련직	0.056	0.009	***	0.133	0.011	***
섬유 및 의복관련직	-0.013	0.009		0.012	0.013	
전기·전자관련직	0.034	0.007	***	0.129	0.009	***
정보통신관련직	0.063	0.008	***	0.149	0.009	***
환경·인쇄 등 생산단순직	-0.073	0.007	***	-0.022	0.009	*
농림어업관련직	-0.093	0.013	***	-0.053	0.011	***
관측치	197,718			197,718		
수정 R ²	0.397			0.362		

주: 1) 의중임금모형의 직업변수는 과거직업이며, 제시임금모형의 직업변수는 현재직업.

2) 직업더미변수의 기준집단은 식품가공관련직임.

3) *는 0.1, **는 0.05, ***는 0.01의 유의수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추출자료」, 2007-2008년 상반기.

<모형 1>의 추정 결과는 <표 6-11>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임금방정식의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일수록, 저연령일수록, 저학력일수록 의중임금이나 제시임금이 모두 낮았다. 대졸이상은 고졸에 비해 의중임금은 12.2% 높았으나, 제시임금은 7.8%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졸이상의 의중 임금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받을 제시 임금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격증의 임금효과는 23개 대분류 직업을 통제한 이후에도 의중임금에서는 3.4%, 제시임금에서는 2.3%의 임금프리미엄을 보였다.

과거직업의 변경 여부나 희망직업의 변경 여부는 모두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의중임금이나 제시임금에 부(-)의 효과를 미쳤다. 의중임금 모형에서 과거직업과 희망직업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은 과거직업과 희망직업이 일치하는 사람들에 비해 -8.6%의 임금페널티를 받고 있으며, 제시임금 모형에서는 -4.6%의 임금페널티를 받았다. 또한 제시임금 모형에서 희망직업과 취업직업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은 일치하는 사람들에 비해 -3.7%의 임금페널티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 변경시에 과거직업을 변경한 사람들이 과거직업을 유지한 사람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직장이동 과정에서 직업을 변경하게 되면 직업을 유지한 사람들에 비해서 임금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표 6-12>에서는 다른 직업으로부터 사무관련직으로의 직업이동이 임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모형 2). 이를 위하여 과거직업과 현재직업의 사무관련직 여부에 따라 네 개의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즉 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 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 비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 비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마지막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두고 다른 집단 간의 임금격차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무관련직과 비사무관련직 간의 임금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직업변경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료에서 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과 비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은 기준집단(비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에 비해 각각 33.6%, 31.8%의 임금프리미엄을 누렸다. 그러나 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은 기준집단에 비해

2.2%의 임금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무관련직에서 비사무직으로의 이동은 비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표 6-12〉 사무직과 비사무직 간 직업변경경로별 임금 회귀분석(OLS)

변수명	전 체			남 자			여 자		
	추정계수	std.Err	p	추정계수	std.Err	p	추정계수	std.Err	p
상수항	4.576	0.007	***	4.245	0.012	***	4.658	0.010	***
여성	-0.249	0.001	***	-	-		-	-	
연령	0.025	0.000	***	0.041	0.001	***	0.007	0.001	***
연령자승	0.000	0.000	***	-0.001	0.000	***	0.000	0.000	***
중졸이하	-0.071	0.003	***	-0.092	0.004	***	-0.046	0.004	***
전문대졸	0.044	0.001	***	0.058	0.002	***	0.027	0.002	***
대졸이상	0.080	0.001	***	0.088	0.002	***	0.062	0.002	***
자격증여부	0.033	0.001	***	0.058	0.002	***	0.019	0.002	***
희망직업 변경	-0.068	0.001	***	-0.080	0.002	***	-0.048	0.002	***
사무직 유지	0.336	0.011	***	0.305	0.013	***	0.395	0.050	***
사무직에서 비사무직	0.022	0.004	***	0.017	0.005	***	0.004	0.008	
비사무직에서 사무직	0.318	0.007	***	0.298	0.008	***	0.347	0.019	***
관측치	197,718			96,331			101,387		
수정 R ²	0.284			0.237			0.106		

주 1) 직업이동집단의 기준그룹은 비사무직에서 비사무직 집단으로 이동한 집단.

2) *는 0.1, **는 0.05, ***는 0.01의 유의수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추출자료」, 2007-2008년 상반기.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무관련직의 임금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한 집단의 임금프리미엄은 남성의 경우 기준집단에 비해서 각각 30.5%, 29.8%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각각 39.5%, 34.7%로 뚜렷하게 높다. 또한 자격증의 임금효과는 남성에게서는 5.8%의 임금프리미엄을 보이지만, 여성에서는 1.9%로 매우 낮다. 이는 사무직과 비사무직 간의 임금격차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한편, 자격증의 임금효과는 여성에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여성은 사

무관련직을 선호하고, 과거에 비사무직에 종사했다라도 직업을 변경할 때에는 사무직으로의 이동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의 사무관련직 집중 현상은 여성의 생산직 기피 현상 이외에도 사무관련직과 비사무관련직간의 임금격차에서 기인함을 보여준다.

6. 소 결

이상에서는 고졸 청년층 구직자의 과거직업과 현재직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졸 청년층의 사무관련직 선호 경향과 그 임금프리미엄을 분석하였다. 그 주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졸 청년층 구직자가 원하는 직업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이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생산단순직, 전기·전자관련직의 순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업체의 구인직종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 전기·전자관련직, 영업·판매관련직의 순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고졸 청년층 구직자들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을 선호하는데, 특히 고졸 여성들의 사무관련직에 대한 선호는 매우 강하다. 전체적으로 과거 고졸 청년층이 종사했던 직업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이 49.4%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이 구직을 희망하는 직업도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이 62.5%를 차지하였다. 고졸 청년 여성의 경우에는 과거 경영·회계·사무관련직 종사자가 전체의 67.8%에 달했으며, 희망직업에서도 사무관련직이 그보다 높은 84.6%를 차지했다.

둘째, 구직자들이 구직 과정에서 과거직업을 변경하는 비율은 50.7%에 달했으며, 희망직업의 변경 비율도 71.3%로 나타났다. 과거직업을 가졌던 구직자들의 절반이 과거직업과는 다른 직업으로 취업한다는 것이며, 구직 과정에서 희망하는 직업과는 다른 직업으로 취업하는 사람도 71.3%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졸 청년층의 경우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과거직업의 변경이 가장 낮은 직종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이다. 과거에 사무관련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15.5%만이 직장을 변경하면서 사무관련직 이외의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실제 취업 과정에서 구직자의 희망직업을 변경한 경우는 경영·회계·사무관련직 희망자의 11.7%로 나타나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종교관련직, 운전·운

송관련직, 정보통신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고졸 청년층 구직자들은 사무관련직을 선호하고 있어 직장을 변경할 때에도 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고졸 여성 청년에게서 매우 강한데, 여성의 경우에는 과거 다른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경영·회계·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대단히 높았다. 과거 영업·판매관련직의 78.6%, 전기·전자관련직의 59.2%, 생산단순직의 49.3%가 새로 취업할 때 경영·회계·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과거 다른 직업에 종사했다가 현재 경영·회계·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영업·판매관련직의 17.0%, 기계관련직의 7.9%, 전기·전자관련직의 11.3%, 생산단순직의 9.6%에 불과하다.

셋째, 학력별로 구직시의 의중임금과 취업시의 제시임금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일수록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이 높은 반면,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의 격차가 컸다. 고졸 청년층 여성의 경우에는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의 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의중임금과 제시임금과의 격차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구직자의 의중임금과 취업시의 제시임금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저연령일수록, 저학력일수록, 자격증이 없을수록 의중임금이나 제시임금이 모두 낮았다. 주요 변수인 과거직업의 변경이나 희망직업의 변경은 모두 임금에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임금에 부(-)의 효과를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이동 과정에서 직업을 변경하게 되면 임금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과거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사무관련직으로 직업을 변경하게 되면 임금이 높아지는가를 분석한 결과, 고졸 청년층에서도 사무관련직과 비사무관련직 간에 유의미한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금격차가 직업변경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변경 과정에서 사무관련직에서 동일한 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한 집단과 비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은 기준집단(비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에 비해 각각 33.6%, 31.8%의 임금프리미엄을 보였다. 그러나 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은 기준집단과 유사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무관련직으로의 이동

이 주는 임금프리미엄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고졸 여성 청년 구직자들이 사무관련직을 선호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즉 여성의 사무관련직 집중 현상은 여성의 생산직 기피 현상 이외에도 사무관련직과 비사무관련직 간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고졸 청년층에 대한 취업안내과정에서 성별로 다른 정책방향을 취해야 함을 보여준다. 고졸 남성의 경우 학업과 자격증 취득이 취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거직업과 희망직업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고졸 여성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사무관련직 편중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고졸이 노동시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사무관련직 일자리보다는 이들이 기피하는 영업·판매관련직 및 생산관련직 일자리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고졸 청년층에 대해서는 취업과 관련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일자리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고졸 여성의 경우에는 사무관련직으로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을 통한 고용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고학력화 추세하에서 고졸 여성 청년에게 주어지는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은 대체로 소규모 업체의 회계·경리·비서 등의 업무이며, 이러한 분야에서의 여성 고용은 사업체의 불안정성이나 낮은 임금보상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고용으로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졸 여성의 자격취득도 노동시장에서 보상이 높은 자격취득보다는 컴퓨터 활용 능력과 같이 보상이 낮은 자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서는 자격취득의 임금효과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고졸 청년 여성층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경험하다가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다시 불안정한 일자리로 복귀하게 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전형적인 고용 악순환에 처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고졸 여성의 경우 정규 고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취업과 관련한 기술·기능 중심의 자격취득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취업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7장

맺음말

제2장에서는 통계청이 운영하는 KOSIS 자료를 사용해서 주요 고용 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 OECD의 Employment Outlook 자료를 사용해서 OECD에 가입한 30개 회원국의 고용지표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과 저학력층에서 고용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2008년 41.6%로 3.5%p 떨어졌고, 중졸이하 고용률은 47.4%에서 41.7%로 5.7%p 뚝 떨어졌다. 고졸자는 62.9%에서 62.3%로 0.6%p 감소한 데 비해, 대졸자는 75.2%에서 75.3%로 0.1%p 증가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실업률이 증가한 것도 아니다. 청년 실업률은 2004년 8.3%에서 2008년 7.2%로 1.1%p 감소했다. 중졸이하 실업률은 2.5%에서 2.2%로 0.3%p 감소했고, 고졸 실업률도 4.5%에서 3.8%로 0.7%p 감소했다. 이처럼 청년층과 저학력층에서 실업률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률이 뚝 떨어진 것은, 적절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둘째,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은 1980년 38.2%에서 2008년 41.9%로 매우 완만하게 증가했다. 청년층은 33.2%에서 17.3%로 크게 감소했고, 장년층은 56.0%에서 64.4%, 고령층은 10.8%에서 18.3%로 증가했다. 중졸이하는 71.5%에서 22.3%로 49.2%p나 줄었고, 대졸이상은 6.7%에서 36.8%로 30.1%p 증가했다. 여성화 속도는 매우 더딘 반면, 고령화와 고

학력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전체 실업자 중 여성 비중은 1980년 25.4%에서 2008년 34.5%로 증가했다. 청년층은 62.7%에서 41.0%로 감소한 데 비해, 장년층은 34.6%에서 50.5%로 증가하고, 고령층도 2.7%에서 8.8%로 증가했다. '중졸이하'는 1980년 51.1%에서 2008년 15.3%로 크게 줄어들고, '대졸이상'은 8.0%에서 34.9%로 급증했다. 고졸 비중은 줄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지난 5년 동안 노동력 유희화율은 2003년 27.8%에서 2008년 28.3%로 0.5%p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별로 보면 육아가사가 696만 명(45.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교육 415만 명(27.2%), 연로 152만 명(10.0%), 쉬었음 135만 명(8.9%), 취업준비 60만 명(3.9%) 순이다.

비경제활동인구를 100이라 할 때 지난 5년 동안 육아가사와 연로 비중은 감소하고, 교육은 같은 비중을 유지하고, 취업준비와 백수(쉬었음) 비중은 증가했다. 즉 백수는 2003년 91만 명(6.3%)에서 2008년 135만 명(8.9%)으로 44만 명(2.6%p) 증가했고, 취업준비생은 35만 명(2.4%)에서 60만 명(3.9%)으로 25만 명(1.5%p) 증가했다. 특히 남자는 취업준비생이 19만 명(4.2%)에서 34만 명(6.6%)로 15만 명(2.4%p) 증가하고, 백수(쉬었음)는 75만 명(16.3%)에서 111만 명(21.7%)로 36만 명(5.4%p) 증가했다.

넷째, 한국의 실업률은 3%대로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낮다. 청년(15~24세) 실업률은 9.3%로 OECD 국가 중 열 번째로 낮다. 따라서 실업률만 보면 한국의 고용사정은 양호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23위이고, 청년 고용률은 23.8%로 OECD 국가 중 29위다. 한국보다 청년 고용률이 낮은 나라는 헝가리 한 나라뿐이다. 따라서 한국의 청년 노동시장에서 고용사정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제3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09년 5월) 자료를 사용해서 주요 고용지표를 살펴본 뒤, 다른 조건을 통제된 상태에서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5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 3.8%보다 두 배 높다. 청년 고용률은 41.3%로 전체 고용률 59.3%보다 낮다. 실업률은 학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고용률은 '전문대졸(76.1%)>대졸이상(72.0%)>고졸(62.3%)>중졸이하(48.6%)' 순으로 저학력층에서 낮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전문대졸>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순으로 저학력층에서 취업 확률이 낮다.

둘째, 일자리가 없는 비취업자는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자로 분류되고, 구직활동을 안 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실업자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하면, 남성 가구주보다 여성 배우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확률이 높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전문대졸' 순으로 저학력층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이는 그만큼 저학력층의 취업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셋째, 청년층 유희인력은 163만 명이고, 유희화율은 16.7%다. 학력별 유희화율은 '중졸이하(42.7%)>고졸(31.8%)>전문대졸(23.5%)>대졸이상(24.4%)'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유희인력 활동상태는 취업준비가 48만 명이고, 육아가사가 46만 명, 백수(쉬었음)가 29만 명, 구직활동이 28만 명이다. 취업준비는 학력이 높을수록 많고, 육아가사와 백수(쉬었음)는 저학력층에 많다. 취업준비는 고학력층, 육아가사는 저학력층 여성, 백수는 저학력층 남성에 많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비취업자의 활동상태는 성과 학력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고학력층 남성은 취업준비, 저학력층 여성은 육아가사, 저학력층 남성은 백수일 확률이 높다.

제4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09년 5월) 자료를 사용해서 청년 노동시장에서 취업 및 이직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5월 현재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청년들은 4명 중 1명꼴로 직업교육을 받았다. 대졸이상은 31.1%, 전문대졸은 23.9%, 고졸은 22.3%, 중졸이하는 12.5%로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직업교육이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증

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다른 조건을 통제했을 때 직업교육과 취업의 상관관계는 부(-)이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에서, 직업교육기관별로는 사설학원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업교육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취업이 쉽지 않은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들이 주로 사설학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고졸이하 저학력층과 사설학원 이외의 직업교육기관에서는 직업교육과 취업 사이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많은 청년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직업교육이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2009년 5월 현재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청년들 가운데 절반은 학교에 다니면서 직장을 체험했다. 대졸이상은 62.0%, 전문대졸은 57.4%, 고졸은 31.1%, 중졸이하는 16.0%로, 학력이 높을수록 직장체험자가 많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직장체험과 취업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학교현장실습참여는 고졸이상, 직장체험프로그램은 고졸,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전문대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고졸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현장실습참여와 직장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든지,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소요되는 구직기간은 평균 7.3개월이다. 전문대졸은 4.0개월, 대졸이상은 4.4개월인데, 고졸은 9.8개월, 중졸이하는 20.2개월로, 고졸이하 저학력층은 구직기간이 매우 길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경로는 연고채용(42.4%)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문·잡지·인터넷·벽보(29.8%), 공개채용시험(18.0%), 회사특별채용(3.5%), 직업소개기관(3.3%) 순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공개채용시험 비중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연고채용 비중이 높다. 따라서 고졸이하 저학력층의 구직기간을 줄이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직업소개기관에서 맞춤형 취업알선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년층의 취업횟수는 중졸과 고졸이하가 2.3회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은 2.0회, 대졸이상은 1.4회로,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횟수가 많다.

취업횟수는 4회 이상이 '중졸이하(39.9%)>고졸(25.9%)>전문대졸(10.7%)>대졸이상(3.4%)'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여성과 저학력층의 취업횟수가 많다. 이는 그만큼 여성과 저학력층의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이직이 잦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일자리가 최종학교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3%로 '일치한다'(47.3%)보다 조금 많다. '일치한다'는 응답은 '대졸이상(63.8%)>전문대졸(52.7%)>고졸(30.7%)>중졸이하(4.6%)'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본인의 전공이나 희망과 동떨어진 일자리에 비자발적으로 취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첫 일자리를 이직한 사람들의 이직사유는 근로여건 불만족이 43.0%로 가장 많다. 이는 청년층의 이직률을 낮추고 실업률을 낮추려면 근로조건의 개선 또한 긴요함을 말해준다.

여섯째, 2009년 5월 현재 미취업자 147만 명 가운데 1년 이상 미취업자가 51.4%고, 3년 이상 미취업자가 18.1%다. 1년 이상 미취업자는 '중졸이하(64.6%)>고졸(52.3%)>대졸이상(50.8%)>전문대졸(46.8%)' 순이고, 3년 이상 미취업자는 '중졸이하(34.3%)>고졸(21.7%)>전문대졸(14.3%)>대졸이상(12.0%)'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장기간 미취업자가 많다.

미취업자들의 활동도 학력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취업시험 준비는 '대졸이상(52.0%)>전문대졸(26.4%)>고졸(10.9%)>중졸이하(7.3%)'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 그렇지만 육아가사는 '중졸이하(38.5%)>고졸(35.9%)>전문대졸(28.9%)>대졸이상(17.0%)' 순이고, 백수(취었음)는 '중졸이하(28.1%)>고졸(19.9%)>전문대졸(15.2%)>대졸이상(4.8%)'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다.

제5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09년 3월) 자료를 사용해서, 청년 노동자의 노동력 구성과 고용의 질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 사업체 규모와 노조 유무는 학력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사회서비스업과 생산자서비스업, 사무관리직과 전문직,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양질의 일자리

가 적은 개인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많다.

둘째, 비정규직 비율은 '중졸이하(90.0%)>고졸(60.0%)>전문대졸(46.0%)>대졸이상(41.0%)'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은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전문대졸' 순으로 저학력층에서 높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중은 '중졸이하(64.3%)>고졸(46.1%)>전문대졸(40.1%)>대졸이상(39.2%)' 순이고, 신규취업 실패율은 '중졸이하(45.7%)>고졸(26.1%)>전문대졸(20.1%)>대졸이상(13.5%)'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낮다.

셋째, 대졸이상 월평균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대졸은 82.4, 고졸은 76.4, 중졸이하는 56.0이다. 대졸이상 시간당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대졸은 76.9, 고졸은 66.9, 중졸이하는 46.6이다.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학력별 순임금격차를 계산하면, 대졸이상 월평균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대졸은 89.3, 고졸은 85.8, 중졸이하는 78.8이다. 대졸이상 시간당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대졸은 89.0, 고졸은 82.0, 중졸이하는 72.3으로 학력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월임금총액보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학력별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그만큼 저학력층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넷째, 청년층에서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천원) 미달자는 40만 5천명(11.4%)으로, 9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중졸이하(42.9%)>재학생(29.3%)>고졸(13.0%)>전문대졸(6.6%)>대졸이상(4.1%)' 순이다. 학력이 낮을수록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많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못 받을 확률은 중졸이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재학생 아르바이트가 높다.

다섯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은 '중졸이하(72.9%)>고졸(31.3%)>전문대졸(19.3%)>대졸이상(10.2%)'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다. 고임금계층은 '중졸이하(2.9%)<고졸(6.2%)<전문대졸(11.8%)<대졸이상(33.3%)'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저임금계층에 속할 확률은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순이고,

고임금계층에 속할 확률은 '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 순으로 학력에 반 비례한다.

여섯째, 주당 노동시간은 '중졸이하(51.4시간)>고졸(48.0시간)>전문대졸(45.0시간)>대졸이상(42.0시간)'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길다.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중졸이하(57.7%)>고졸(37.8%)>전문대졸(25.7%)>대졸이상(13.4%)'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많고, 주 5일제는 '중졸이하(9.1%)<고졸(35.9%)<전문대졸(53.1%)<대졸이상(69.2%)'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적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순으로 노동시간이 길고, 장시간 근로할 확률이 높고, 주 5일제를 적용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일곱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중졸이하' 순으로 학력에 비례한다. 공무원과 교원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고용보험 가입률도 전문대졸이 대졸이상보다 높은 것을 제외하면 마찬가지이다. 이 밖에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근로계약 서면작성 등 기타 노동조건 적용률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 비율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낮다. 이는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대체로 마찬가지이다.

여덟째, 현재의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중졸이하(78.6%)>고졸(47.7%)>전문대졸(28.4%)>대졸이상(21.7%)'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자발적 취업이 많다. 비자발적 취업사유로 중졸이하(55.7%)와 고졸(20.1%), 재학생(15.5%)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에 많이 응답하고, 전문대졸(9.1%)과 대졸이상(5.9%)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에 많이 응답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청년 노동시장은 학력별로 뚜렷하게 구별된다. 첫째, 학력별 고용률은 전문대졸 76.2%, 대졸이상 72.0%, 고졸 62.3%, 중졸이하 48.6%로, 전문대졸은 4명 중 3명이 일자리를 갖는 데 비해, 중졸이하는 2명만 일자리를 갖고 있다. 둘째, 학력이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가 많은 사회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 사무관리직과 전문직,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좋은 일자리가 적은 개인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

업,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사람이 많다. 셋째,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노동시간이 짧으며,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안정된 일자리에 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학력이 낮을수록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되거나 저임금계층이 될 확률이 높고,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시간은 길고 일자리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학력별 유희화율은 중졸이하 42.7%, 고졸 31.8%, 대졸이상 24.4%, 전문대졸 23.5%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유희인력들의 활동상태를 보면 고학력층은 남녀 모두 취업준비가 많고, 저학력층 여성은 육아가사, 남성은 쉬었음(백수)이 많다.

제6장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DB(2007년 및 2008년 상반기) 자료를 이용하여 고졸 청년층의 구인·구직 특성에서 구직자의 사무관련직 선호 경향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는 한편, 사무관련직과 다른 직종 간의 이동행태에 따라 임금프리미엄이나 임금페널티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졸 청년층 구직자들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을 선호하는데, 특히 고졸 여성들의 사무관련직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과거 고졸 청년층이 종사했던 직업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이 49.4%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이 구직을 희망하는 직업도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이 62.5%를 차지하였다. 고졸 청년 여성의 경우에는 과거 경영·회계·사무관련직 종사자가 전체의 67.8%에 달했으며, 희망직업도 사무관련직이 84.6%를 차지했다.

둘째, 고졸 청년층에서도 사무관련직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과거 사무관련직에 종사했던 이들은 직장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직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직자들이 구직 과정에서 과거직업을 변경하는 비율은 50.7%에 달했으며, 희망직업의 변경 비율도 71.3%로 나타났다. 고졸 청년층의 경우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과거직업의 변경률이 가장 낮은 직종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이다. 과거에 사무관련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15.5%만이 직장을 변경하면 사무관련직 이외의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구직자의 희망직업이 실제 취업 과정에서 변경

된 비율도 경영·회계·사무관련직 희망자의 1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고졸 청년 여성의 경우에는 과거 다른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경영·회계·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았다. 과거 영업 및 판매관련직의 78.6%, 전기·전자관련직의 59.2%, 생산단순직의 49.3%가 새로 취업할 때 경영·회계·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과거 다른 직업에 종사했다가 현재 경영·회계·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영업 및 판매관련직의 17.0%, 기계관련직의 7.9%, 전기·전자관련직의 11.3%, 생산단순직의 9.6%에 불과하다.

넷째, 학력별로 구직시의 의중임금과 취업시의 제시임금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일수록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이 높은 반면, 의중임금과 제시임금의 격차도 컸다. 구직자의 의중임금과 취업시의 제시임금의 결정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저연령일수록, 저학력일수록, 자격증이 없을수록 의중임금이나 제시임금이 모두 낮았다. 주요 변수인 과거 직업의 변경이나 희망직업의 변경은 모두 임금에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임금이 부(-)의 효과를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이동 과정에서 직업을 변경하게 되면 임금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섯째, 과거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사무관련직으로 직업을 바꾸면 임금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 고졸 청년층에서도 사무관련직과 비사무관련직 간에 유의미한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금격차가 직업변경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변경 과정에서 사무관련직에서 동일한 사무관련직으로 이동한 집단과 비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은 기준집단(비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에 비해 각각 33.6%, 31.8%의 임금프리미엄을 누렸다. 그러나 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이동한 집단은 기준집단과 유사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무관련직으로의 이동이 주는 임금프리미엄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고졸 여성 청년 구직자들이 사무관련직을 선호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즉 여성의 사무관련직 집중 현상은 여성의 생산직 기피현상 이외에도 사무관련직과 비사무관련직 간의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 노동시장에서 학력은 고용의 양과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학력수준이 높으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으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유희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청년실업 대책은 전문대졸이상 고학력층보다는 고졸이하 저학력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고졸 미취업 청년층 문제는 사회양극화 문제와 직결되므로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연구되어야 한다(김안국·신동준, 2007). 하향취업보다는 취업준비 또는 백수를 선택하는 청년층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별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정상훈, 2008). 청년층 고용대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 밖에서 진입을 망설이고 있는 청년층에게 노동공급의 유인을 제공하고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단기 일자리로 취업-비취업을 반복하면 불안정한 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적자본이 상실된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와 사회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정성미, 2009).

참고문헌

- 권혜자·김두순·이주현(2008), 『청년층 고용문제와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 권혜자·박선영·황선자(2003), 『청년실업의 원인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김경아(2008),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의 불평등 현황과 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14(1), pp.
- 김대일(2004),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유경준(편저),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한국개발연구원.
- 김안국(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분석」, 『노동경제논집』 26(1), pp.
- _____(2005),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 분석 -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졸업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8(3), pp.
- 김안국·신동준(2007),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 실태」, 『산업노동연구』 13(2), pp.
- 김용성(2009), 「청년실업의 원인: 직업탐색이론을 중심으로」, 노동경제학회 발표문.
- 남재량(2008),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부(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연구용역보고서.
- 노동부 노사정책팀(2009), 「청년 니트(NEET) 해부: 청년니트족 현황과 대책」.
- 류지성 외(2009),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이슈페이퍼.
- 박강우·홍승제(2009),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워킹페이퍼 364호(『금융경제연구』 2009.2).
- 박성준·황상인(2005), 「청년층 학력과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경제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8(3), pp.
- 안주엽·홍서연(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5(1), pp.
- 오호영(2005), 「과잉교육의 원인과 경제적 효과」, 『노동경제논집』 28(3), pp.
- 이병훈(2002), 「구직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동경제논집』 25(1), pp.
- 이병희(2003),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경제논집』

- 26(1), pp.
- _____(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안주엽 · 전병유 · 장수명 · 홍서연(2002),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시균 · 윤정향(2008), 『청년층 고학력자의 성별 노동시장 차별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노동연구』 14(2), pp.
- 장재호 · 최형아(2008), 『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 2007년도 조사 결과』, 한국고용정보원.
- 전병유 · 이상일(2003),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고용 실업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상훈(2008), 『청년층 고용현황과 일자리 창출』, 국회경제위기대응팀 발간시리즈 제5호.
- 정상훈 · 이충언(2008), 『청년층 고용현황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제28호.
- 정성미(2009), 『20대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성변화』, 『월간 노동리뷰』, 제52호(2009년 4월호), 전국노동연구원.
- 정인수 · 김기민(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 · 남재량 · 이승우(2006), 『고졸이하 청년층 실업실태 파악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황수경(2009), 『잠재실업의 구조와 규모』, 『월간 노동리뷰』 52호(2009년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Blanchflower & Freeman ed.(2000), "Youth Employment and Joblessness in Advanced Countries", NBER Comparative Labor Market Series.
- OECD(2008), "Off to a Good Start? Youth Labour Market Transitions in OECD Countries", *Employment Outlook 2008*, Ch.1.
- _____(2009), "Statistical Annex of the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부표 2-1〉 OECD 국가의 주요 고용지표

(2008년, 15~64세, 단위: %)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호 주	4.3	4.0	4.6	73.2	82.2	67.9	76.5	85.5	71.1
오스트리아	3.9	3.6	4.1	72.1	80.1	66.7	75.0	83.0	69.6
벨기에	6.4	6.0	6.7	62.0	68.9	56.0	66.3	73.3	60.1
캐나다	6.2	6.5	5.7	73.7	79.5	71.5	78.6	85.1	75.8
체 코	4.4	3.5	5.6	66.6	76.6	58.3	69.7	79.3	61.7
덴마크	3.1	2.5	3.7	78.4	84.4	75.3	80.9	86.6	78.1
핀란드	6.3	5.8	6.8	71.9	76.0	69.5	76.7	80.7	74.5
프랑스	7.4	6.9	7.9	64.6	69.6	60.4	69.7	74.8	65.5
독 일	7.6	7.4	7.7	70.2	77.4	65.2	75.9	83.5	70.6
그리스	7.3	4.7	10.9	62.2	77.1	49.6	67.2	80.9	55.7
헝가리	7.9	7.6	8.1	56.7	63.6	50.9	61.5	68.8	55.4
아이슬랜드	3.0	3.3	2.6	84.2	91.3	83.1	86.9	94.5	85.4
아일랜드	5.3	6.2	3.9	68.1	77.9	61.3	71.9	83.0	63.8
이탈리아	6.8	5.5	8.5	58.7	71.8	47.6	63.0	76.0	52.1
일 본	4.2	4.1	3.8	70.5	90.0	64.8	73.8	93.8	67.3
한 국	3.3	3.6	2.6	63.8	79.3	57.1	66.0	82.2	58.7
룩셈부르크	5.0	4.3	6.1	64.4	73.0	55.9	67.8	76.3	59.5
멕시코	3.7	3.2	4.2	59.9	86.9	42.3	62.2	89.8	44.1
네덜란드	3.0	2.8	3.2	76.1	83.3	70.8	78.4	85.7	73.2
뉴질랜드	4.2	4.0	4.1	74.9	84.4	71.1	78.2	88.0	74.2
노르웨이	2.6	2.8	2.4	78.1	82.6	77.0	80.2	85.0	78.9
폴란드	7.2	6.4	7.9	59.2	67.4	53.1	63.8	72.0	57.7
포르투갈	8.1	6.5	8.8	68.2	79.1	66.5	74.2	84.6	73.0
슬로바키아	9.6	8.4	11.0	62.3	70.3	54.8	68.9	76.7	61.6
스페인	11.4	10.1	13.0	65.3	75.2	56.1	73.7	83.6	64.5
스웨덴	6.2	5.8	6.3	75.7	80.3	74.4	80.7	85.3	79.4
스위스	3.4	2.8	4.0	79.5	88.1	75.3	82.3	90.7	78.5
터 키	11.2	10.7	11.6	44.9	68.3	24.2	50.6	76.6	27.4
영 국	5.4	5.7	4.7	72.7	80.8	68.1	76.8	85.7	71.5
미 국	5.8	6.1	5.4	70.9	79.8	68.2	75.3	85.0	72.1
OECD 국가	6.0	5.8	6.0	66.5	79.0	59.4	70.8	83.8	63.2

〈부표 2-2〉 OECD 국가의 청년층 주요 고용지표

(2008년, 15~24세, 단위: %)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호 주	8.9	9.1	8.6	64.3	65.2	63.4	70.6	71.7	69.4
오스트리아	8.1	7.9	8.2	55.9	59.5	52.2	60.8	64.6	56.9
벨기에	14.3	14.8	13.8	26.9	29.3	24.4	31.4	34.4	28.3
캐나다	11.6	13.1	10.0	59.6	58.9	60.3	67.4	67.8	67.0
체 코	9.9	9.8	9.9	28.1	32.3	23.5	31.1	35.9	26.1
덴마크	7.2	6.1	8.4	68.5	69.7	67.3	73.8	74.2	73.5
핀란드	14.8	13.7	16.2	49.6	54.0	45.0	58.3	62.6	53.7
프랑스	18.1	18.2	18.0	30.7	33.4	28.0	37.5	40.8	34.1
독 일	10.4	10.7	10.0	47.2	49.7	44.5	52.7	55.6	49.5
그리스	20.6	15.1	27.7	24.0	28.8	19.2	30.3	34.0	26.5
헝가리	19.9	19.1	20.9	20.0	23.2	16.8	25.0	28.6	21.3
아이슬랜드	8.2	9.0	7.5	72.1	70.5	73.9	78.6	77.4	79.9
아일랜드	10.5	13.1	7.6	46.1	47.1	45.2	51.6	54.2	48.9
이탈리아	21.3	18.9	24.7	24.4	29.1	19.4	30.9	35.9	25.7
일 본	7.2	7.9	6.6	41.4	41.0	41.8	44.6	44.5	44.7
한 국	9.3	11.5	8.0	23.8	18.5	28.6	26.3	21.0	31.1
룩셈부르크	13.5	14.3	12.5	26.2	30.1	22.2	30.3	35.1	25.3
멕시코	6.5	6.2	6.8	48.6	57.9	39.8	52.0	61.8	42.7
네덜란드	5.6	5.7	5.5	69.2	69.6	68.7	73.3	73.8	72.7
뉴질랜드	11.0	11.4	10.6	56.5	58.5	54.4	63.5	66.0	60.9
노르웨이	7.5	8.2	6.8	58.0	57.7	58.3	62.7	62.9	62.5
폴란드	17.3	15.2	19.9	27.3	31.0	23.7	33.1	36.5	29.6
포르투갈	16.4	13.4	20.2	34.7	38.5	30.8	41.6	44.4	38.6
슬로바키아	18.9	18.1	19.9	26.2	30.8	21.5	32.3	37.7	26.8
스페인	24.6	23.7	25.8	39.5	43.2	35.7	52.5	56.6	48.1
스웨덴	19.4	19.2	19.6	45.9	45.9	45.9	56.9	56.7	57.1
스위스	7.0	6.7	7.4	62.4	63.6	61.2	67.1	68.1	66.1
터 키	20.5	20.1	21.3	30.3	41.3	19.8	38.1	51.7	25.1
영 국	14.1	16.0	12.0	56.4	57.5	55.1	65.6	68.5	62.6
미 국	12.8	14.4	11.2	51.2	52.3	50.2	58.8	61.0	56.5
OECD 국가	12.4	13.0	11.7	43.7	46.9	40.6	49.9	53.9	46.0

〈부표 6-1〉 학력별 연도별 신규 구직자수

	2004	2005	2006	2007	2008
중졸이하(b)	342,670	345,386	380,304	447,849	467,506
고졸	629,900	714,049	793,825	959,959	1,012,152
대졸이상	537,984	27,169	698,509	823,106	882,011
전 체	1,510,554	1,686,604	1,872,638	2,230,914	2,361,669

<청년층>

중졸이하(a)	13,873	14,890	16,132	21,705	0,130
고졸	230,112	275,612	282,037	327,438	298,499
대졸이상	289,447	358,160	378,241	429,338	416,989
전 체	533,432	648,662	676,410	778,481	735,618

<청년층의 비율>

중졸이하	4.0	4.3	4.2	4.8	4.3
고졸	36.5	38.6	35.5	34.1	29.5
대졸	53.8	57.1	54.1	52.2	47.3
전 체	35.3	38.5	36.1	34.9	31.1

〈부표 6-2〉 학력별 연도별 신규 구인인원 수

	2005	2006	2007	2008
중졸이하	23,379	18,865	21,976	50,899
고졸	163,101	186,065	236,555	251,845
대졸이상	79,182	102,299	133,099	143,942
전 체	265,662	307,229	391,630	446,686

<청년층>

중졸이하	4,735	3,556	3,477	7,289
고졸	85,532	97,869	118,817	119,478
대졸이상	39,873	48,401	61,483	62,398
전 체	130,140	149,826	183,777	198,165

<청년층의 비율>

중졸이하	20.3	18.8	15.8	14.3
고졸	52.4	52.6	50.2	47.4
대졸이상	50.4	47.3	46.2	43.3
전 체	49.0	48.8	46.9	44.4

주: 연령 무관 구인인원 수를 제외함.

〈부표 6-3〉 청년층의 학력별 과거직업 및 희망직업의 차이

	고졸 청년층			대졸 청년층		
	현직	과거직업	희망직업	현직	과거직업	희망직업
관리직	0.1	1.2	0.3	0.3	1.5	0.3
경영·회계·사무관련직	59.2	49.4	62.5	59.8	47.0	62.5
금융·보험 관련직	0.3	1.4	0.4	1.1	2.1	1.3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0.2	0.9	0.2	2.5	8.3	2.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0.2	0.3	0.2	0.4	0.6	0.5
보건·의료 관련직	0.7	1.2	0.7	0.5	1.0	0.5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7	0.6	0.7	2.9	2.1	2.9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 련직	4.4	3.2	4.8	7.3	7.0	7.6
운전·운송 관련직	4.5	2.8	4.1	0.6	0.7	0.3
영업·판매관련직	4.8	9.2	3.4	6.4	8.7	4.2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3	1.9	0.5	0.7	1.5	0.2
미용·숙박·여행·오락·스 포츠 관련직	0.7	1.4	0.8	1.2	2.4	1.3
음식서비스 관련직	0.3	1.5	0.3	0.3	2.1	0.3
건설 관련직	1.2	1.5	1.2	3.3	3.5	3.5
기계 관련직	5.6	5.7	5.5	2.2	2.0	1.9
재료관련직	1.7	1.7	1.3	0.5	0.4	0.3
화학관련직	0.7	0.9	0.5	0.4	0.5	0.6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2	0.6	0.1	0.0	0.2	-
전기·전자관련직	6.0	7.0	5.9	2.5	2.6	2.3
정보통신 관련직	2.1	1.8	2.2	4.1	3.2	4.1
식품가공 관련직	0.2	0.4	0.1	0.3	0.4	0.4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4.7	5.2	4.4	2.8	2.1	2.4
농림어업 관련직	0.1	0.1	-	0.2	0.1	-
군인	-	0.3	-	-	0.4	-
전 체	35,074 (100.0)			16,273 (100.0)		

◆ 집필자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권 혜 자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 종 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 명 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고졸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인 쇄 2009년 11월 06일

발 행 2009년 11월 11일

발 행 인 정 인 수

발 행 처 **한국고용정보원**

150-09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공원길 5

☎ 02-2629-7115

홈페이지 www.keis.or.kr

조판 및 인쇄 다 인

☎ 02-796-0062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331-168-5 93320

